



2

1995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5. 2호

(루계 568)



◆◆◆◆◆◆◆◆◆◆ 차 례 ◆◆◆◆◆◆◆◆◆◆

받으시라 인민의 축원을	4
해빛넘치는 거리에서	5
청춘	6
김정일 동지께 인사를	15
우리의 생명	16
빛나라 김정일 장군의 나라	18
염분진전설	19
태양은 하나	21
수령님은 우리의 김정일 동지	21
크나큰 믿음	22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며	24
명언	25
그분을 받드는 길에 영광넘친다	26
길이 받들자, 우리의 태양	27
민족문화유산 계승발전의 진로를 뚜렷이 밝힌 강령적문헌	28
우리는 믿는다	32
축원의 노래	32
푸른 들	33
첫 물음	42
뵈고싶은 마음	42

송시죽자	43
친근한 그이의 정든 품을 구가한 열정의 송가	44
명제해설	46
한달 두달 백날이 지나고	47
귀여운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	47
세계지도를 보며	48
향만의 숲이여	49
인권찬가	50
우리는 먼저 보고있습니다	50
밀영의 봄빛	51
접중화	52
아버지와 아들들	60
나는 사회주의의 초석이 되련다	63
영원한 모습	64
투쟁은 우리의 승리	65
풍만한 서정속에 안겨오는 동지애의 심오한 철학	66
행복한 밤에	72
중대방송을 들으며	73
탄부의 시간 (외 1 편)	74
봄맞이풍경	75
즐거운 밤길	76
딸에게 주는 시	77
그 밝은 웃음이 (외 1 편)	78
나는 당의 3대혁명소조원이다 (외 3 편)	79

받으시라 인민의 축원을

김응하

강토가 눈물에 젖은
비통한 시각에
우리를 비애의 바다에서 일으켜 세워주신분은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이시였다

아버이 수령님을 잃고
하늘이 캄캄했던 그때
우리가 마음의 기둥으로 의지한분은
오직 경애하는 그이뿐이시였다

오랜 세월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믿음으로 키워주신
인민의 아버지

겉쌓이는 시련을
무비의 담력과 지략으로 이겨내시며
승리에서 승리로 조국을 이끌어오신
백두산의 장군 강철의령장

우리의 목숨이시고 하늘이신
친애하는 그이 아닌 그 누가
우리의 운명을 끝까지 지켜주실수 있으랴
조국의 미래를 반석위에 세워줄수 있으랴

사랑의 해빛이 넘치는
우주같이 넓고넓은 품

김일성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우리의 **김정일** 동지

받으시라 탄생일 이 아침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위대한 령도자로 높이높이 받드는
인민의 열화같은 축원을 받으시라

민족의 아버지로
통일의 태양으로
높이높이 모시고 따르는
력사의 경건한 맹세를 받으시라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
한생을 바치시고
심장의 마지막 열과 박동까지
다 바치신 위업
주체의 봄동산으로 이끄시는 그 진두에
언제나 서계시는 우리의 장군

그이 이끄시는 길에서 우리
아까울것 없고 두려울것이 없나니
진격로를 여는 육탄이 되리라
폭탄이 되고 방패가 되리라

민족의 운명을 다 안으시고
세계의 운명을 다 안으시고
불패의 기치가 되시여
백전백승의 영원한 태양이 되시여
우리를 이끄시는 강철의령장

위대하고 위대하신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이시여
천년만년 인민의 축원속에
건강하시라

해빛넘치는 거리에서

박창화

해빛처럼
별빛처럼
낮에도 밤에도 그 언제나 빛나는 미소
이 땅에 뿌리둔 모든 삶을 꽃피워주시는
수령님의 자애로운 그 미소를 우러르면

금나락 설레이는 소리 들으시며
그이께서 지금 별가운데 서계시는듯
학생들의 새 교복을 살펴보시며
인민들의 새 집들이를 바라보시며
만족을 금치 못해하시는듯...

아, 하늘땅이 환하도록
기쁨의 미소 짓고계시는 수령님 영상
수도의 거리거리에
사람들 가슴가슴에
뜨거움을 채워주시는 어버이모습이여!

5천년 민족사에 있어보지 못한
그렇듯 크나큰 상실의 아픔을 당하고도
주눅이 들지 않은 사람들
손맥을 놓지 않은 인민들
수령님 생전의 뜻 그대로 꽃피워가나니

새벽안개 걷히는 대동강반에
주체사상탑의 봉화는 더욱 붉고
노을비낀 궤도전차의 차창에 비낀
신념에 넘친 모습들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 노래소리...

예대로 굽이쳐흐르는
창조와 건설의 세찬 격랑이
예대로 도도히 제궤으로만 흐르는
행복한 생활의 물결이
온 거리에 가득차넘치며

수령님 저리도 만족한 미소 짓는것이리
수령님 저리도 기쁨의 미소 뿌리시려
이슬내린 아침에도
노을비낀 저녁에도
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우리 수령님

정녕 그렇게
수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여
김정일 장군님을 받들어
아름다운 미래를 앞당겨가라고
걸음걸음 밀어주고 손잡아 이끌어주시나니

사람들 아침저녁으로
크고작은 모든 기쁨 그이께 아뢰여라
논머리와 기대 앞에서
새 집들이한 희한한 방에서
수령님 만나뵈던 그날처럼, 그때처럼

아, 그것이 기쁘시여 마음놓이시여
언제나 환히 지으시는 수령님의 미소
그 미소 이 땅에 해빛으로 비끼여
날마다 희망찬 새날이 시작되는것이여라
인민의 행복은 더 향기롭게 무르익는것이여라!

청춘

리호인

밤은 소리없이 깊어갔다.

살림집창문들을 환히 비치던 전등불이 꺼진지도 퍼그나 오래다. 분주히 오가던 차들도 뜸해진 거리는 고요하다. 폭넓은 도로 량견으로 줄지어 서있는 가로등들도 깜박깜박 조은다. 마치 군무를 하듯 정신없이 떼지어 물놀이를 하던 물오리들도 사라지고 대동강에 하늘의 못별들이 조용히 내려앉아 춤을 추듯 흔들거린다.

대동강반의 록음속에 자리잡은 려관도 불을 끄고 군잠이 들었는데 한 호실만은 불이 켜져있었다. 그 호실의 창문가에 얼굴이 가름하고 윤기도는 머리를 곱게 빗어넘긴 곡선미가 있는 아릿다운 녀성이 유유히 흐르는 강물에 눈길을 던진채 명상에 잠겼다.

그의 눈앞에 1년전에 이 려관에서 얼굴을 두손으로 싸쥔채 침대에 쓰러져 울던 일이 밝혀왔다.

그날도 여느날처럼 봉화예술극장에서 공연을 마치고 려관으로 돌아온 그는 긴 머리를 빗다말고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매력적인 오목눈이 류달리 빛나고있었다. 그는 거울앞에서서 무용동작을 하며 관중을 향하여 인사를 하듯 머리를 숙였다. 우뢰같은 박수소리가 귀전에 들려오는것 같았다.

《리남선생님...》

자기를 찾는 소리에 리남은 흠칫 놀라 뒤돌아보았다. 문가에 뒤머리를 쫓진 무용배우가 한손으로 입을 가리우고 웃고있었다.

《에그 깜짝이야! 남의 방에 들어오면서 손기척도 안하고... 들어와요.》

《잘못했습니다. 손기척을 했는데... 〈예〉 하고 응답하시길래...》

무용배우의 말은 옳았다. 순진한 그는 무례하게 처신할 그런 처녀가 아니다. 리남은 손기척소리를 들은것 같기도 하고 응답한것 같기도 했다.

《그런데 뭐가 그리 우스워서 웃어요?》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거울앞에서 어린 처녀아 이처럼 노시니까...》

《됐어요. 왜 왔어요?》

《단장방에 오시랍니다.》

무용배우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한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열른 방문을 여닫고 나갔다.

(오늘 공연에 대한 총화를 하겠다고 오랄가?)

리남은 마음속으로 고개를 기웃거리며 삼면거울 앞에서 일어섰다.

단장방의 긴 쏘파에 단장을 비롯해서 예술단지휘성원들이 다 앉아있었다.

리남이가 긴 쏘파 한쪽끝에 앉자 초인종이 울리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방문에 눈길을 던졌다.

이마가 흰하고 체구가 좋은 문화예술부 책임일군 정현철이 방에 들어왔다.

단장을 비롯한 지휘성원들이 일어나 그를 맞이했다.

《앉읍시다...》 정현철은 예술단지휘성원들에게 손짓을 하고 자리에 앉았다. 《여러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것처럼 바쁘신 시간을 내시여 재일조선인예술단의 공연을 록화로 보아주시였습니다. ...》

지휘성원들이 긴 쏘파에 앉자 그는 허두를 이렇게 뻗다...

문화예술부 책임일군 정현철이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부르심을 받고 그이의 집무실을 찾은것은 봄해가 지고 둥근달이 교묘한 달빛을 내려 부으며 하늘중천에 떠있을 때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긴 쏘파에 앉으시여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은 창문너머 멀리를 바라보고계셨다. 쏘파앞 사각탁에는 공연순서책이 놓여있었다.

《현철동무, 여기 와 앉소.》

경애하는 그이께서 자신의 곁에 와 앉으라고 손짓하시였다.

그이의 곁에 조심히 앉아 사업수첩을 무릎우에 펼쳐든 정현철은 사각탁우에 놓인 공연순서책을 보았다. 그것은 재일조선인예술단의 공연순서책이었다. 정현철은 그 순간 그이의 마음은 동해너머 멀리 이국 일본땅에서 사는 동포들에게로 가계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철동무, 재일조선인예술단이 래일 돌아간단지요?》

경애하는 그이께서 시선을 정현철에게로 옮기셨다.

《예, 래일 〈만경봉〉 호편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올리던 그는 대답을 채 마무리지 못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정현철을 앉히신 다음 담배불을 붙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정현철이 마무리하지 못한 말뜻을 헤아려보시였다. 필경 재일조선인예술단 공연을 봐달

라는 제기일것이다. 그것은 그 혼자의 심정이 아니라 재일조선인예술단 성원들의 한결같은 소망일것이다. 그러나 그럴만한 시간을 낼수 없으시였다.

《현철동무의 심정을 알만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번에는 극장에 나가 동무와 함께 관람합니다.》

내가 오라고 한것은 다름이 아니라 재일조선인예술단 공연에 대한 동무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해서입니다.》

《저의 짧은 생각이지만 수준이 있는 공연이라고 봅니다.》

《나도 동감입니다. 오늘새벽에 록화물을 보았는데 수준이 있는 공연이었습니다. 특히 독창 〈풍년가〉와 무용 〈오복놀이〉는 세련된 기교와 재인 안삼불로 해서 다른 종목들보다 눈에 띄게 좋았습니다.》

수첩에다 그이의 말씀을 적는 정현철의 가슴속에서 뜨거운것이 치밀어올랐다. 그이께서 극장에 나오실 시간을 낼수 없으시여 재일조선예술인들이 곁나라로 가있을 새벽에 그들의 공연을 록화로 봐주실줄은 미처 몰랐다. 정현철의 마음은 그이의 사랑을 전하고싶어 벌써 재일조선예술인들이 든 대동강반 록음속에 있는 러관으로 내달렸다.

《그런데 유감스러운것은 마치 도예술단의 공연을 보는것과 같은 감이 드는것입니다. 예술이란 자기의 독특한 특성, 색깔이 있어야 합니다. 결코 모방이 아닙니다. 재일조선인예술단의 공연은 총련의 얼굴, 총련의 색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정현철동무, 총련예술인들을 잘 도와줍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새기며 그는 뇌리에 재일조선인예술단 공연을 그려보았다. 노래와 무용들이 세련되고 기교가 있었으나 그이께서 지적하신것처럼 특색이 없었다. 형식도 그렇고 무대에 올린 종목들이 이미 공연된 명곡들이고 잘 알려진 이름난 무용들이였다. 어느 면으로 보아도 재일조선인예술단의 특색이 보이지 않았다. 소개자의 해설이 없으면 재일조선인예술단의 가무인지, 도예술단의 가무인지 가릴수 없다. 그의 이마에는 자책으로 하여 땀송이가 내뿜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여 넓은 이마에 내뿜은 땀을 훔치고 일어섰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러관으로 가서 재일조선인예술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잘 생각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신 경애하는 그이께서 그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으시였다....

긴 쏘파에 앉아 문화예술부 책임일군 정현철의 이야기를 듣고있던 리남은 경애하는 그이께 심려를 끼쳐드린 죄송함을 금할수 없었다. 자책과 후회의 방망이가 가슴벽을 세차게 때렸다.

호실에 돌아온 리남은 침대에 엎디어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고 울었다. 그는 눈물에 흠뻑 젖은 마음속으로 다음해는 그이께 만족과 기쁨을 드리는 공연을 보여드리리라 굳게 다졌었다....

《아직도 자지 않구 뭘해요?》

예술단 단장이 호실에 들어오는바람에 리남은 깊은 명상에서 깨났다.

《단장언니, 미안해요. 그런데...》

리남은 말을 채 마무리지 못하고 맞은편 의자에 앉은 단장을 바라보았다.

단장은 눈물이 감도는 리남의 눈동자를 본 순간 그의 마음을 읽었다.

무대생활로 같이 늙은 자별한 사이라 얼굴표정만 보아도 속마음을 짐작하고도 남았다.

《리남동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기쁨을 드리자면 눈을 붙여야 해요. 리남동무도 잘 알지만 이번 공연은 단순히 재일조선예술인들의 공연이 아니라 70만 재일동포들의 공연이라는것을 명심해야 돼요.》

《알고있어요.》

《그럼 됐어요. 리남동무가 총연출도 맡고 직접 춤도 추는것만큼 동무의 책임이 중요해요.》

단장은 리남에게 오금을 박았다.

《단장언니두 참, 알았다는데두... 날이 새면 총관 통훈련을 하겠어요.》

단장언니, 저는 무대에서 내려올 결심을 이미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대에서 춤을 추다가 생을 마치고싶은 생각이 가끔 나군해요.》

《리남동무의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돼요. 그러나 단호해야지. 인정사정 없는게 나이라지 않아요. 문예등에서 무대에서 내려와 안무가로, 무대연출가로 일할것을 권고했을 때 단장인 내가 그 권고에 동의한것은 리남동무의 나이에문이었어요. 무용가의 생명은 여느 예술가의 생명보다 짧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고도의 육체적로동을 요하는 예술이기 때문이지요. 리남동무두 선고개를 넘지 않았나요. 제때에 물러날줄 알아야지. 춤추다가 만약 사소한 실수라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리남동무의 인상이 흐려진단 말이요. 30년동안 쌓아올린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건 회복 못해요.》

첫 국제무대에서 복춤을 잘 추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기쁨을 드렸는데 래일 그이를 모신 만수대에 술극장에서 복춤을 멋들어지게 추어 마지막무대를 장식합니다.》

단장은 리남의 두손을 굳게 잡았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리남의 눈앞에 20년전 베를린에서 열렸던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여 독무 《복춤》을 추어 금상을 받았던 일이 선히 밝혀왔다.

그때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축전에 참가하는 대표

단 단장을 부르시어 국제무대에 한번도 나서본 일이 없는 젊은 총련무용배우가 《복춤》을 가지고 참가한다는데 무대담을 키워주어야겠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사는 우리 민족의 긍지와 자랑을 《복춤》에 잘 담도록 해야겠다고 하시었다. 그러자면 온 유럽이 떠들썩하게 복을 힘껏 치면서 무대가 좁다하게 춤을 추어야 한다고 간곡히 이르시었다.

베를린의 숙소에서 단장으로부터 경애하는 그이의 말씀을 전달받은 리남은 그이께서 자기를 보살펴주고계신다는것을 몸으로 뜨겁게 느꼈다. 그 위대한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오늘은 공화국 인민배우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민족무용가로 자랐던것이다.

리남은 눈길을 별들을 싣고 흘러가는 대동강에로 옮겼다. 그리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모실 공연에서 리남이 자기가 출연할 복춤을 머리에 그리고있었다.

봄해가 서쪽으로 거의 기울어졌을 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 정권기관 책임일군들과 함께 만수대에술극장에 나오시었다.

그이께서 극장안에 들어서시자 관객들이 일제히 일어나 장내가 터져나갈듯이 만세환호성을 올리었다.

그이께서는 한손을 들어 답례를 보내시며 앞줄가운데 좌석으로 가 앉으셨다. 그러나 환호성이 멎을 줄 몰랐다. 그이께서 일어나시어 손을 흔드시며 그칠것을 몇번이나 권해서야 극장안이 조용해졌다.

그이께서 앞탁에 놓여있는 공연순서책의 표지를 보시었다. 거기에는 붓글씨체로 공연의 총제목이 쓰여있었다.

《음악무용구성시 〈수령님의 환하신 웃음속에 우리 행복 꽃핍니다〉》

그이께서는 곁에 앉은 문화예술부 책임일군과 재일조선인에술단 단장을 번갈아 보시었다.

《총제목이 좋습니다.》

극장안을 대낮처럼 환히 비치던 천정조명등이 서서히 꺼지기 시작했다.

몸매가 날씬한 치마저고리차림의 소개자가 조명을 받으며 무대막의 중심에 나타났다. 그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우러러 큰 절을 올리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을 모시고 공연하는것은 우리 총련예술인들의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원수님께서 저희들의 소망을 헤아려주시어 그 바쁘신 속에서 저희들의 미숙한 공연을 보아주시게 된것은 최대의 행복이며 영광입니다.

이제부터 서장과 종장 그리고 7장으로 된 음악무용구성시 〈수령님의 환하신 웃음속에 우리 행복 꽃핍니다〉를 보시겠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공연하게 된 감격과 흥분으로 하여 소개자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엔 눈물이 반짝이였다.

관람석에서 우뢰와 같은 박수가 터졌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재일조선인에술단 단장을 돌아보시었다.

《단장동무, 소개자가 발음도 정확하고 정말 우리 말을 잘합니다.》

《작년에 조선대학교를 졸업하고 금강산가극단에 온 동무입니다. 초급학교, 중급학교, 고급학교 그리고 조선대학교를 다닌 동무입니다.》

단장은 자리를 고쳐앉으며 말씀올렸다.

《그러니까 어릴적부터 민족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았구만.》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고 공연순서책을 번지시었다.

합창과 무용 《수령님의 환하신 웃음속에》로부터 공연의 막이 올랐다.

이어 혼성중창 《아, **김정일** 70만의 아버지》, 무용과 방창 《우리의 말》을 무대에 올렸다. 그 종목들은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모신 민족의 영광과 행복을 자랑차게 구가함으로써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다.

무용 《우리 민족 제일이네》가 무대에 오르자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등반이에 기대섰던 몸을 앞으로 기울이시고 무대가 좁다하게 복춤을 추는 무용수들을 유심히 보시었다.

무대 복판에 놓인 큰 북과 가슴에 메고있는 북을 다양한 기법으로 치며 원을 그리면서 춤을 추며 돌아갔다. 8분의 12박자의 굵거리장단과 4분의 4박자의 안팎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는 복춤은 그야말로 장쾌했다. 이 아름다운 춤동작에 북가락을 조화롭게 결합한 복춤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사는 민족적긍지와 기쁨이 넘쳐흘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눈길을 한 무용수에게 집중시키시었다.

그 무용수는 다른 무용수들보다 어딘가 모르게 나이든것 같았다. 그러나 그 무용수의 춤동작에는 젊음이 넘치고있었고 보다 세련돼있었다. 북을 치는 그의 모습은 민족적정서가 짙었고 힘이 있었다.

복춤이 끝나 객석을 향해 인사를 하는 그 무용수의 얼굴에 땀이 비오듯 줄줄 흘러내렸고 숨이 차 헐떡거렸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제일먼저 박수를 쳐주시었다.

《단장동무, 가운데 서서 인사를 하는 배우가 누구입니까? 나이가 든것 같은데 정말 춤도 잘 추고 북도 잘 칩니다.》

《인민배우 리남동무입니다.》

단장은 대답을 올리며 속으로 의아해하였다. 그 이께서 리남이가 나이들었다는것을 어떻게 아시었을까? 독무라면 몰라도 50대의 그가 20대의 젊은 무용수들속에 끼여 춤을 추었는데?...

안삼불이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북춤을 조마조마하게 보았다. 그러나 그 우려는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정말 춤을 잘 추었다. 젊은 무용수들 못지 않게 패기가 있었다. 어느모로 보아도 젊은 무용수같았다.

《리남동무가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20년전이나 다름없이 북춤을 패기있게 잘 춥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저희들은 리남동무를 나 이도 있고 재능도 있고 해서 금강산가극단의 전속 무대연출가로 활동하게 하자고 합니다.》

《춤을 저렇게 잘 추는 동무가 무대에서 내려오겠다고 하겠습니까?》

《이번 공연에서 마지막춤을 추고 무대에서 내려 오겠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겠다 말이지. 무대에서...》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조용히 뇌이시며 20년전 베를린에서 있던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고 돌아온 대표단 단장이 가져온 필름을 보냈던 일을 회상하시였다. 그때 그이께서는 난생처음으로 국제무대에 나와서 금상을 받은 리남의 독무 《북춤》 장면을 보시며 이국땅에서 태어나 조국땅을 한번도 밟아보지 못한 젊은 그를 훌륭한 민족무용가로 키워야겠다고 결심하시였다. 그러자면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재능있는 조국의 민족무용가의 지도를 받게 해야 했다. 그러나 아직 재일동포들이 사회주의조국래왕의 권리를 쟁취 못했기때문에 그를 사회주의조국에 부를수 없었고 조국래왕의 권리를 쟁취할 때까지 기다릴수도 없으시였다. 조선무용을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설한 필름을 보내기로 하셨다. 베를린축전이 끝나서 보름이 지난후 리남이가 사랑의 필름을 받았다는 소식이 날아왔다...

무대에는 무용과 노래이야기 《만경봉-92》호가 펼쳐졌다. 이 종목은 《만경봉-92》호에 깃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은정어린 사랑을 무용과 노래이야기로 형상한 작품이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몸소 조국래왕에 리용하도록 하라고 보내주신 대형화객선 《만경봉-92》호가 일본 니이가타부두에 닿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이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재일동포들의 모습을 무용으로 펼쳐보이는 장면은 이 작품의 절정이였다. 무용배우들이 경쾌한 동작으로 춤을 추며 돌아갈 때 한 무용배우가 환희에 차서 빠른 속도로 돌아갔다. 국부조명이 따라가며 그를 비친다. 객석에서 박수가 요란히 울렸다.

극장이 떠나갈듯이 울리던 박수소리가 갑자기 멎었다. 동시에 《아!》하는 소리가 장내를 휩쓸었다.

그렇게도 환희에 차서 경쾌하게 돌아가던 그 젊은 무용배우가 그만 악사들이 있는 복수에 떨어졌던 것이다. 그바람에 무용의 안삼불이 형클어졌다.

순간 단장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실수를 해두 그런 실수하다니?! 만회할수 없는 실수를!...)

단장은 얼굴을 두손으로 싸쥐고 앞탁에 파묻었다.

《단장동무, 춤을 보지 았구 뭇합니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앞탁을 가볍게 다독이시였다.

《...》

단장은 얼굴을 들수 없었다.

《단장동무, 춤을 봅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채산 이르시기에 단장은 무거운 머리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가랑가랑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입밖으로 나오지 았고 눈에 함씩고였던 눈물이 불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다.

《단장동무, 보시오. 무용배우들이 춤을 잘 춥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단장의 속마음을 읽으시고 웃음을 지으시였다. 그리고 정현철에게로 몸을 돌리셨다.

《현철동무, 무용배우가 다치지 았았는지 복수에 갔다오시오.》

정현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구부리고 복수에 갔다.

단장은 흠뻑 젖은 눈길을 무대로 옮겼다.

무용배우들은 형클어졌던 안삼불을 용케도 바로잡고 춤을 추고있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들이 추는 춤이 어딘가 모르게 어색한 느낌이 들었다. 무엇인가 빠진것 같아 그냥 볼수 없었다. 눈길이 자기도 모르게 곁에 았아계시는 경애하는 그이께로 갔다.

이윽고 정현철이 소리없이 객석으로 돌아왔다.

《다친데는 없었습니까?》

경애하는 그이께서 근심어린 어조로 물으시였다.

《예, 갑자기 복수에 떨어졌기때문에 놀랐을뿐 다친데는 없습니다. 인차 무대에 나올것 같습니다.》

정현철은 그이께서 걱정하실가봐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지 못했다.

정현철이 복수에 갔을 때 그 젊은 무용수는 리남의 품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끼고있었다. 리남이 또한 소도구를 떨궈두 큰 실수인데 무대에서 떨어지는 그런 실수를 어쩌면 경애하는 그이앞에서 했는가 하고 하며 안타까와 하고있었다. 정현철이 다가가자 그 무용수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뵈울뻔이 없게 됐다고 사죄하는것이였다. 그러는 그에게 정현철은 경애하는 그이께서 무용수가 상하지 았았는

가 심려하고계시는데 무대에 나가라고 타일렀다. 리남은 무용수의 팔소매를 잡고 분장실로 올라갔다. ...

《그렇소. 참 다행입니다.》

경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정현철의 넓은 어깨에 한손을 얹으시고 무대를 보시였다.

무용과 노래이야기 《만경봉-92》호가 끝나자 무용수들이 무대에 한줄로 서서 인사를 하였다. 그들속에 그 젊은 무용수도 있었는데 그는 깊숙이 숙인 머리를 들줄 몰랐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환한 웃음을 지으시며 남먼저 박수를 쳐주시였다.

재일조선인예술단의 공연이 끝났다.

출연자들이 무대에 나와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러러 큰 절을 올리였다.

그이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손을 머리위로 높이 드시며 출연자들을 축하하시였다. 그리고 발을 구르며 만세를 웨치는 그들에게 손저어 답례를 보내시며 극장을 나가시였다.

휴계실로 향한 복도에 나서자 그이께서는 동행하던 정현철을 돌아보시였다.

《오늘 공연은 참 잘했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총련예술인들을 만나보고 갑시다.》

정현철은 방금 나온 극장안으로 급히 되돌아갔다. 휴계실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그이께서 쏘파에 앉으시여 방금 보신 예술공연을 눈앞에 그려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우리 동무들이 옵니다.》

결쏘파에 앉았던 재일조선인예술단 단장이 조용히 일어났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휴계실 출입문쪽을 바라보시며 일어서시였다.

그 열려진 출입문쪽에서 문화예술부의 정현철이 걸어왔다. 그뒤로 총련예술인들이 따랐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앞에 오자 옷매무시를 바로 하고 큰절을 올렸다. 예술단 단장이 그들을 그이께 소개하였다.

예술단 단장은 맨 마감으로 치마저고리차림의 무대복을 입은 무용배우를 그이께 소개하였다.

《오사까조선가무단 무용배우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뵈울 면목이 없습니다. ...》

무용수는 한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흐느꼈다.

《〈만경봉-92〉호에 나왔던 무용수구만. 울긴. 춤을 잘 추었는데 왜 옵니까?》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무용배우의 어깨를 두드리시며 위로하시였다.

그렇스록 무용배우는 가슴속에서 뜨거운것이 치밀어올라와 눈에 함짝 고였던 눈물이 콧 쏟아져 옷자락을 적시였다.

《3년전에 조선고급학교를 졸업하고 오사까조선가무단에 들어왔습니다. 무대생활은 1년도 채 되지 않은 동무입니다. 게다가 조국의 무대에서 춤을 춘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무용배우의 심정을 대신하여 그이께 예술단 단장이 말씀을 올렸다.

《그래서 실수했다는거겠구만?...》 그이께서는 무용배우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물으시였다. 그러자 무용배우는 머리를 좌우로 저으며 그이의 넓은 품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껴울었다.

《나는 동무의 춤을 마감까지 봤습니다. 정말 춤을 잘 추었습니다. 〈만경봉-92〉호가 니이가다항에 닿을 내렸다는 소식에 접한 재일동포들의 감격과 환희를 펼쳐보이는 장면은 눈물없이 볼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훌륭한 무용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용배우는 와들 놀라 한발 뒤로 물러나 그이를 우러러보았다. 그이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그이께서 높이 평가하신 장면은 자기가 복수에 떨어진것으로 하여 실수한 장면인것이다. 그런데 그이께서 그 장면을 보셨다고 하시며 것처럼 높이 평가하실줄은 몰랐다. 무용배우만이 아니라 단장을 비롯한 총련예술인들모두의 생각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죄송합니다.》

예술단 단장이 총련예술인들모두의 마음을 대신하여 말씀을 올리였다.

《단장동무가 조국의 무대에서 처음 노래를 부르던 때가 생각납니까? 그때 단장동무가 무슨 노래를 불렀던가. 〈조국을 노래하네〉였지...》

순간 예술단 단장의 뇌리에 잊을수 없는 18년전 그날이 번개치듯 떠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말씀이 계시여 새로 일떠선 인민문화궁전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공연하였다. 그때 그는 《조국을 노래하네》를 불렀다.

나라도 빼앗기고 고향도 빼앗기여
원한의 노예생활 얼마나 슬렸더냐
원썬을 물리치고 조국을 다시 찾은
그 기쁨 노래하네 그 감격 춤을 추네

노래여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수령님 계시는곳 조국에 울려가라

첫 절은 관록있는 공훈배우답게 잘 불렀다. 그런데 2절부터는 걱정이 북받쳐 가사조차 제대로 읊기지 못했다. 관현악반주만이 계속 울릴뿐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그자리에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군들과 평양시내 근로자들, 재일동포 조국방문단 성원들 그리고 외국 국가수반들과 우리 나라 주재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까지 앉았다.

(위대한 수령님앞에서 무슨 실수인가. 대외공연에서 사소한 실수도 나라의 큰 수치로 된다. 노래를 불러야 한다.)

가수는 마음속으로 몇번이고 몇번이고 다졌지만 노래는 나오지 않고 흐느낌소리만이 마이크로 통해 확성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안경을 벗으시고 손수건으로 눈을 훔치시었다.

그는 종시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반주가 끝나자 정중히 인사를 하고 마이크앞에 눈물을 흘리며 그냥 서있었다.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잘 부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크게 박수를 쳐주시었다.

장내에 요란한 박수가 일었다. 우리 말을 모르거나 우리 인민의 수난의 역사를 잘 모르는 외국사람들도 가수의 강렬한 감정에 공감되어 박수를 보냈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조국을 노래하네〉였습니다.》

《잊지 않았구만. 단장동무가 그걸 잊을리가 없지요...》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무용배우를 손으로 가리키시었다.

《나는 온 심혼을 기울여 추는 이 무용배우의 춤을 감명깊게 보았습니다.》

단장은 그제야 그이께서 조국의 무대에서 처음 노래를 부르던 때가 생각나는가고 물으시던 말씀의 뜻을 알아차렸다. 재일조선예술인들에게는 슬하에 있는 자식보다 멀리 떨어져있는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친아버지 사랑으로 안아주고 보살피주는 품이 있다는것을 가슴뜨겁게 느꼈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쏘파에 앉으시어 그냥 서있는 단장에게 어서 앉으라고 거듭 권하셨다.

총련예술인들이 그이앞에 놓인 의자들에 앉았다.

그이께서는 앞탁에 놓인 재일조선인예술단 공연순서책을 드시었다.

《동무들, 좋은 공연을 보여주어서 감사합니다.

음악무용구성시 〈수령님의 환하신 웃음속에 우리 행복 꽃핍니다〉는 하나의 오점도 없는 만점짜리 공연입니다. 공연의 내용도 좋고 구성도 좋습니다. 또한 음악과 춤가락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재일동포들의 사상감정을 특색있게 잘 살렸습니다. 총련의 얼굴이 잘 나왔습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들었던 공연순서책을 내려놓으시고 책갈피를 번져가시며 음악에 대해서, 무용에 대해서, 안삼불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평가하시었다.

분에 넘치는 치하를 받는 총련예술인들은 기쁨과 긍지로 하여 가슴이 설레이었다.

《지난 기간에도 그랬지만 총련예술인들이 민족

문화를 적극 개화발전시키며 우리 동포들의 가슴에 애국의 념을 심어주는 예술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려나가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공연순서책을 덮으시었다. 그리고 석양을 받아 불그스레 물젖은 창문을 등지고 앉아있는 총련예술인들을 바라보시었다.

그들의 대견스러운 모습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시려는듯 하나하나 눈여겨 바라보시던 그이의 시선이 리남에게 이르렀다.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그이의 말씀을 적은 수첩을 내려다보는 리남의 자태는 다 자란 자식들을 거느린 소박한 어머니와도 같았다. 방금전에 무대가 좁다하게 북을 치며 돌아가던 환희에 차고 젊음이 넘치던 기백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이께서는 이번 공연에서 마지막 춤을 추고 무대에서 내려오겠다고 했다면 예술단 단장의 말이 상기되시었다.

무용수는 무대를 떠나서 있을수 없으며 무대없는 무용수는 죽지 부러진 새가 아닌가. 자진해서 날개를 접고 그렇게도 날고싶어하는 하늘, 한생을 춤추며 날던 하늘을 바라보며 남모르게 속으로 울어야 한단 말인가... 그이께서는 가슴이 아프시었다. 물론 무대연출도 중요하고 후비육성사업도 중요하다. 그러나 보다는 그에게는 춤이 필요할것이다. 춤을 떠나서는 무대연출도 후비육성사업도 잘 할수 없다. 리남이 무척 서운해할것이다.

《리남동무!》

경애하는 그이께서 다정히 부르시었다.

리남은 다소곳이 숙였던 고개를 들었다. 뜻밖에도 찾으시기에 어리둥절해졌다. 그이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계셨다.

《이번 공연이 성공한데는 연출가의 공적이 매우 큼니다. 리남동무, 정말 수고했습니다.》

리남은 조용히 일어났다.

분에 넘치는 그이의 찬사를 직접 받고보니 가슴이 활랑거렸다. 지난 한해동안 고생스럽게 공연을 준비하던 나날이 순시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뇌리에 떠올랐다.

《리남동무, 이번 공연에서 마지막 춤을 추고 무대에서 내려오겠다고 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리남은 대답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리남동무가 20년전에 베를린에서 열렸던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여 독무 〈북춤〉을 추어 금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총련에 민족무용가가 나왔다고말입니다. 나는 동무가 훌륭한 민족무용가로 자라날것을 바랐습니다. 그 기대는 어긋나지 않았습니

국 공훈배우로, 인민배우로, 오늘은 총련의 이름난 무용가로 내외에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공연에서 북춤을 추는 동무의 모습을 보고 그 누구도 신이 넘었다고 할 사람은 없을겁니다. 유연하면서도 힘있게 춤을 추는 모습은 정말 젊음이 넘치고있었습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조용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리남의 머리에 베를린축전에 참가하여 독무 《북춤》을 추어 금상을 수여받았던 일이 선히 밝혀왔다. 그때 그는 베를린상공 높이 휘날리는 람홍색공화국기를 바라보며 무대담을 키워주시고 무용가의 억센 날개를 달아주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앞에서 북춤을 추어 기쁨을 드리리라 다짐하였었다. 그것은 그의 간절한 소망이였다. 그 소망이 그때로부터 20년 세월이 흘러 오늘에야 비로소 성취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모시고 춤을 추는것이지의 평생소망이였습니다. 그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리남은 품었던 생각을 터쳐놓았다. 그러나 마음이 후련하지 못하였다. 마음 한구석에 자리잡은 이제는 어차피 무대를 떠나지 않을수 없는 아쉬움을 다는 털어버릴수 없었다.

《고맙습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사의를 표시하시였다. 《리남동무, 한생을 무대우에서 춤을 추어온 동무가 죽지 부러진 새로 되겠다는겁니까? 리남동무가 그렇게 결심하기까지는 무척 피로웠을것입니다. 나는 동무의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물론 무용배우가 나이들어 무대에서 내려오는것은 어쩔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무대를 떠난 리남동무를 생각할수 없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무용배우는 60이 넘도록 무대를 떠나지 않고 춤을 추었다는데 조선의 인민배우가 신이 넘었다고 나이타령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청춘의 열정을 안고 춤을 추어야 합니다.》

리남은 것처럼 자기를 아껴주시는 그이의 말씀에 그만 가슴속이 몽클하여 눈시울이 뜨개와졌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마음이 놓이신듯 쏘파등반이에 몸을 기대시며 문화예술부 책임일군 정현철을 돌아보시였다.

《정현철동무, 리남동무는 총련과 함께 걸어온 무용가인데 독무회를 마련해주시다.》

총련예술인들과 리남이 감격에 겨워 어쩔줄 모르는데 정현철이 말씀올렸다.

《앞으로 리남동무의 독무회를 평양대극장에서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담배를 태우시며 생각에 잠기셨다.

휴계실 천정형광등이 켜졌다.

저녁 노을이 소리없이 내려앉았던 높은 창문너머로 바라보이는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하나 머물어가고 키높은 가로수들이 저녁 봄바람에 가볍게 설레이었다. 고층주력의 창문들은 불빛으로 환하였다.

잠시 생각에 잠기셨던 경애하는 그이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타이르시였다.

《리남동무는 총련과 더불어 일본에서 무용생활을 해온 동포 2세입니다. 평양대극장이 아니라 일본 도쿄 한복판의 극장에서 보란듯이 독무회를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재일동포들은 물론, 해외동포들과 남조선인민들의 가슴에 애국의 녀, 통일 녀를 심어주고 일본인민들에게 사회주의조국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독무회로 될것입니다. 그러자면 독무회에 앞서 선전을 잘해야 합니다. 대대적으로 말입니다.》

단장동무, 금강산가극단이 주최가 되어 리남동무의 독무회를 성대히 해주시다.》

그이께서는 독무 《진주의 무희》로부터 시작하여 《물동이춤》, 《북춤》, 《도란봉》, 《칼춤》, 《고난의 행군》에서 막을 내리고 중간휴식을 했다가 2막은 독무 《청춘가》로부터 시작해서 《도라지》, 《장단소개》, 《장고춤》, 《오복놀이》에서 막을 내리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며 열두개 작품을 선정하시였다. 그 작품들은 거의가 리남자신이 안무를 한 작품들이였고 그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들이였다.

그이께서는 반주는 금강산가극단 민족관현악단이, 소개는 매 종목을 시작하기전에 환등과 록음으로 독무가의 생활과 결부하여 해설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국에서가 아니라 일본에서 독무회를 여는것만큼 애로되는 점이 많겠는데 우리가 다 해결해줄테니 어려워하지 말고 문화예술부에 제기하라고 이르시였다.

무용가들 치고 독무회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것이다. 리남이라고 그 례외는 아니다. 그는 그 생각을 마음속 깊은곳에 두면서도 그 누구에게도 말한적이 없었다. 그것을 그이께서 헤아리시여 독무회를 열도록 해주시였다.

사실 독무회를 가진다는것은 무용가에게 있어서 최상의 평가인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다름아닌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발기와 사랑으로 가지게 되었으니 그 영광, 그 기쁨 이룰데 없었다. 리남의 가슴은 막 터질것만 같았다.

《리남동무, 준비를 잘해서 독무회를 훌륭히 장식합시다! 총련의 이름난 무용가답게 말입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김정일** 동지의 기대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리남은 일어나 그이께 정중히 절을 올리며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로 말씀올렸다.

함박눈이 내리는 수도의 밤은 깊어갔다.

어제 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온 거리를 한별 덮었다. 눈이 내려쌓여 거리는 숨이불을 뒤집어쓰고 짙은 잠에 든듯싶었다. 제설차가 이따금 눈을 끌고 지나갈뿐 오가는 차들도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다. 아파트창문에서 흘러나오던 불빛도 꺼진지 오래다. 가로등들도 머리위에 눈을 떠이고 깜박깜박 조은다.

고요히 닫힌 수도의 거리에 조명등 불빛을 비치며 까만 승용차가 경애하는 그이를 모시고 미끄러져가고있었다. 올해 농사차비정형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서부지구 농촌들을 현지지도하시고 돌아오시는 길이었다.

그이께서는 의자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잠그시고 차창밖에 내리는 함박눈을 바라보시었다.

《좋은 눈이 내리는구만.》

그이께서는 혼자소리처럼 뇌이시고 눈을 감으시었다.

이윽하여 승용차가 당중앙위원회 청사앞에서 멎어섰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차에서 내리시여 곧바로 집무실로 가시었다.

집무탁에는 그이의 결론을 받을 문건들이 놓여있었고 그결에 일본 도쿄에서 열린 독무회의 공연순서책과 독무회에 대한 신문기사들이 놓여있었다.

그이께서는 집무탁앞에 앉으시여 공연순서책을 집어드시고 의자등받이에 기대시었다.

표지의 웃단에는 《리남독무회》라고 큰 활자로 새겼다. 표지 중심에는 새빨간 치마저고리차림의 무용수 리남이 약간 경사지게 맨 장고를 오른손에 쥔 참대채로 땅- 하고 때리는 장면사진이 실렸다. 방금 장고소리가 귀청을 때리며 울려오는것같았다. 하얀 봄꽃의 무늬를 놓은 치마자락밑으로 흰 버선이 수집은듯 약간 코를 내밀었다. 무용수의 자태에는 맑고 락천적인 민족적정서가 한껏 넘쳤고 강의한 기상이 내뿜기고있었다. 표지 아래단에는 《공연장소-도쿄, 신쥬무문화센터, 공연날자-1월 31일~2월 2일, 주최-금강산가극단, 후원-재일조선문학예술가동맹》이라 썼고 여백에는 《조선무용에 매혹되어 나비처럼 나는듯, 불길처럼 타오르는듯 춤추어온 30년, 사랑과 갈채 속에서 영광의 나날을 주옥같은 명작으로 이어왔다.》라고 썼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밤도 깊었는데 좀 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중앙위원회 일군이 다가와 그이께서 다문 얼마만이라도 쉬시기를 간청하였다. 눈을 맞으시면서 논뚝길을 걸으시며 이른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휴식도 없이 현지지도 하시느라 피로하신 그이의 건강이 걱정되어서였다.

《고맙소.·· 그런데 문화예술부 정현철동무를 찾

을수 없겠소?》

《예, 알았습니다.》

책임일군이 집무실을 나가자 그이께서 공연순서책의 갈피를 천천히 번지며 보시었다.

매 페이지마다 두 종목씩 천연색사진을 받쳐 간단한 해설과 리남의 글을 실었다.

그이께서 다 보시고 공연순서책을 덮으셨다가 다시 군무 《고난의 행군》을 소개한 페이지를 펼치시었다.

항일유격대군복에 붉은 넥타이를 맨 꼬마나팔수로 분장한 리남이가 한눈에 안겨왔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사령부를 지키기 위해 나팔을 불며 적을 자기에게로 유인하다가 적의 총탄에 맞아 운명하는 유격대 꼬마대원의 숭고한 모습이다. 나팔을 두손에 틀어쥔채 운명하는 순간까지 나팔을 부는 그의 귀여운 얼굴에는 사령부의 안전을 지켰다는 안도감이 흐르고있었다.

경애하는 그이의 귀전에는 그날의 나팔소리가 은은히 들려오는것 같으시었다.

그이께서는 사진아래 써여있는 무용수의 글을 마음속으로 읽으시었다.

《군무 〈고난의 행군〉은 저에게 있어서 잊을수 없는 작품입니다. 27년전 2월에 40만명의 관객이 관람한 대음악무용서사시 〈조국의 해빛아래〉중의 한 종목으로 공연하여 대호평을 받은 작품입니다. 가정생활에서 난관이 제기될 때마다, 훈련이 너무 힘들어 쓰러질 때마다 이 작품을 생각하며 힘을 얻어 시련을 이겨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나팔로써 사령부의 안전을 지키는 꼬마나팔수처럼 사회주의조국을 춤으로 지켜나가겠습니다.》

(사회주의조국을 춤으로 지켜나가는 딸이 되겠다 말이지, 장해!)

그이께서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시며 마음속으로 뇌이시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공연순서책을 집무탁에 내려놓으시고 리남독무회에 대한 반향기사를 실은 신문들을 보시었다.

《...독무회가 대성황을 이룬것은 무용가에 대한 최상의 평가라고 본다. 〈리남독무회〉는 류레없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어릴적부터 빨간 구두를 신고 춤을 추는것이 희망이었던 리남동무가 꿈을 꽃피운지 어언 30년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리남동무는 셀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무대를 밟았으며 그 어느 무용가보다 몇갑절 더 많은 땀을 흘렸다. 무용에 바치는 그의 정열은 식지 않을것이다. 통일된 조국의 꽃무대에서 춤을 출 그날까지 빨간 구두를 벗지 않고 동포들의 가슴에 애국의 넋을 심어주는 춤을 추어주기를 바란다.》(《조선신보》)

《...이웃에 살던 평범한 처녀애였던 리남녀성이 도쿄 한복판의 큰 무대에서 세상사람들이 보란듯이

성대한 독무회를 열고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받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꿈만 같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해외동포 무용가로서 이렇듯 성대한 민족무용독무회를 가진것은 아마 리남녀성이 처음 일것입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리남녀성은 단순히 무용가라기보다 일본에 사는 우리 동포들의 문화재 산이라고 봅니다. 무용가의 수명은 짧다고 하지만 금후 무용예술을 더 닦아서 40주년, 50주년을 맞이하여 독무회를 열것을 바라면서 그 독무회를 여는데 성의를 바칠것을 결의합니다.》(《조선신보》)

《〈리남독무회〉를 보고 감동한것은 이국땅에서 태어난 2세인 리남녀성이 조선민족무용 춤가락을 잘 이어받아 발전시키고있는것이다. 리남녀성의 무용적천성에 놀라움을 금할수 없다. 그 무용적천성이 타고난것이었는가? 부모에게 물려받았는가? ...이름있는 예술가에게는 반드시 위대한 스승이 있는 법이다. 위대한 스승이 없이는 무용적천성이 자랄수 없다. 리남녀성에게도 반드시 위대한 스승이 계시기에 오늘과 같은 〈독무회〉를 훌륭히 장식했다고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본사람은 과연 나 혼자만이겠는가...》(《도쿄신문》)

《...〈부채춤〉과 〈도라지〉가 무대에 오르자 나도모르게 어깨춤을 추었습니다. 〈칼춤〉은 정말 힘이 솟는 춤이었습니다. 조선춤의 특유한 멋과 무게가 있는 예술성이 높은 춤이며 여자라면 누구나 다 한번 추고싶은 훌륭한 춤입니다. 군무 〈고난의 행군〉을 보고 캐나다에 돌아가면 조국을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해야겠다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돌아갈 때 〈리남독무회〉의 카세트를 사가지고 가서 캐나다에 있는 동포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민족시보》)

《〈오복놀이〉에서 후배들과 어울려 대, 중, 소의 북을 치면서 춤추는 리남녀성의 모습은 기백이 넘쳤다. 50대의 녀성으로서 어찌면 젊은 기백으로 춤출수 있을까? 그의 청춘의 기백, 열정은 남다른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것일까? 아니면 선천적인것일까? 아니다. 그것은 진정한 조국, 존경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빛내이시는 사회주의조국이 준 것이리라...》(《아사히신보》)

《...》

《...》

경애하는 그이께서 밑줄을 그으시며 그 많은 신문기사들을 다 읽으신다음 원주필을 탁우에 놓으시였다.

집무실 출입문가에 서서 신문을 보고계시는 그이를 바라보고있던 당중앙위원회 일군이 집무탁앞으로 걸어왔다.

《문화예술부의 정현철동무가 대기실에서 기다립니다.》

《왜 이제 말합니까?》

《신문을 보고계시기에 사색에 방해가 될가봐 그랬습니다.》

《어서 들어오라고 하시오.》

《예, 알았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일군이 정현철을 앞세우고 집무실에 들어오자 그이께서는 공연순서책과 신문들을 집어드시고 그에게로 다가가셨다.

정현철이 그이께 정중히 인사를 올렸다.

《오래 기다렸습니까?》

《신문을 다 보실 때까지 제가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안했습니다.》

정현철동무, 리남동무의 독무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까?》

《일본 신주꾸문화센터에서 열렸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자세한것은 모르고있습니다.》

《나도 방금 리남동무의 독무회가 대성황리에 열렸다는것을 알았습니다. 〈리남독무회〉에 대한 반향이 대단합니다...》 그이께서는 손에 들었던 공연순서책과 신문들을 그에게 주시였다.

《정현철동무, 축전을 보내줍시다!》

정현철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빛나는 눈길을 가슴에 안은 공연순서책 표지에 떨구었다. 장고를 멘 새빨간 치마저고리차림의 사진의 리남이가 반달눈을 위로 약간 치켜며 웃고있었다.

《리남동무의 모습에서 청춘의 기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이께서 만면에 흐릿한 미소를 지으시고 사진의 리남을 가리키며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정현철동무, 우리 리남동무가 내 말을 들은 모양입니다. 장고를 땅- 하고 치는걸 보니...》

그이께서는 정현철을 보고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정말 그런것 같습니다. 제 귀에도 장고소리가 들리는것 같습니다.》

정현철은 따라웃으며 장고를 멘 리남의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사진의 리남이가 참대채로 장고를 치고있는것 같았다. 착각이라 하기에 너무나도 현실적이였다.

《정현철동무, 〈리남독무회〉의 반향기사들을 읽어보시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당장 읽겠습니다.》

정현철은 그이께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집무실을 나갔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창가로 가시여 창문가리개를 제끼시였다. 그리고 소리없이 내리는 함박눈을 바라보시며 그냥 움직이지 않으시였다. 그이의 마음은 멀리 이국땅 일본 도쿄 신주꾸문화센터로 가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자정이 훨씬 지났습니다...》

한 일군이 그이곁으로 와서 말씀드렸다.

《고맙소. 결론을 기다리는 문건들이 있는데…》
 그이께서 창문가리개를 닫으시고 집무탁앞으로
 다가가 앉으시었다.
 고요한 집무실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문건
 들을 번지시는 소리, 원주필로 글을 쓰시는 소리만
 이 조용히 들렸다.

도표에 하얀 눈이 내렸다.
 신쥬구문화센터는 재일동포들과 일본인민들, 아
 메리카와 유럽에서 온 해외동포들 그리고 남조선에
 서 온 동포들로 초만원이 이루어졌다.
 그들은 하나같이 《리남독무회》의 막이 오르기
 를 기다리고있었다.
 드디어 개막시간 6시 30분이 되었다.
 관람석의 천정등들도 꺼지지 않았다. 무대막도
 오르지 않았다. 관중들은 의아한 눈길을 무대막에
 던졌다.
 이윽고 분홍색 조선치마저고리차림의 소개자가
 하얀 봄꽃 무늬를 놓은 새빨간 치마저고리를 입은

민족무용가 리남을 앞세우고 무대에 나타났다.
 소개자가 마이크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눈물에 젖
 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배우이며 〈금강
 산가극단〉 무용가 리남동무의 독무회를 보러오신
 관람자 여러분,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70만 재
 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일**
 원수님께서 〈리남독무회〉 앞으로 축전을 보내주
 셧습니다.》
 장내가 떠나갈듯이 박수가 터졌다.
 리남은 고개를 깊숙이 숙였다. 그리고 심장으로
 웨쳤다,
 《**김정일**장군님, 리남이 뭇길래…독무회를 마련
 해주신것만도 분에 넘치는데 축전까지 보내주십니
 까! 장군님의 팔담계 청춘의 기백을 안고 사회주의
 조국을 춤으로 지켜나가겠습니다. 영원히…》
 눈은 소리없이 펄펄 내렸다. 리남을 축복하듯
 이…

김정일동지께 인사를

시라즈 초우드리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여
 당신의 탄생기념일을 맞으며
 이 제자의 가슴
 감격으로 끓고
 소박한 시구절에 담아
 끝없는 충성을 표합니다
 백두산밀영 귀틀집에서
 광명성으로 솟아오르신 **김정일**동지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을 발전풍부화시키시고
 인민대중을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내세우시여
 력사의 주체를 튼튼히 하시고
 정치, 문화, 경제, 국방의 모든 분야에서
 기적을 창조하시었나니
 당신의 령도로

기념비적창조물 시대를 빛내이고
 조선은 20세기 문예부흥의 조국으로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세계인민들
 당신께 운명을 의탁하고
 모든 행복과 미래의 꿈을
 당신의 품에서 찾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당신의 탄생기념일을 맞으며
 소박한 제자의 가슴
 감격에 끓고
 소박한 시구절에
 충성의 맹세를 표합니다
 (필자는 방글라데슈라지 오방송국 기자임)

우리의 생명

황영환

정일봉마루에 태양이 솟는다.
 위대한 인민이 세기의 위인을 따라서가는 그 길
 에 찬란한 해빛을 뿌린다.
 태양의 위업 태양으로 이어가시는 우리 당과 인
 민의 위대한 령수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신 력사의 날!
 하늘도 이날을 기다려 강산가득 축하의 꽃보라를
 아낌없이 뿌리고 서리꽃 핀 백두밀영 추녀낮은 고
 향집 트랙에도 축원의 마음담아 흰주단을 정히 퍼
 놓는다.
 정일봉의 장엄한 해돋이로 밝아온 경사로운 2월
 의 이 아침. 다함없는 경모와 축원과 흠모의 정을
 담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러러 인민은
 삼가 만수축원의 인사를 올린다.
 만민칭송의 최정상, 만민경모의 최절정에 서
 계시는 절세의 위인에게 뜨거운 인사를 드리는
 우리 인민은 지금 형언할수 없는 심정을 안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생각하고있으며 그이를
 떠나 순간도 살수 없는 자신과 우리 사회주의생
 명에 대한 가장 성스러운 감정을 체험하고있다.
 《수천만 이 나라 인민의 복락은 위대한 **김정일**동지
 께 달려있고 우리의 생활이고 운명인 사회주의생명
 도 전적으로 그이께 맡겨져있습니다. 이걸 생각하
 니 수령님을 생각하시며 한밤을 그대로 보내시고
 이 아침을 맞이하시였을 그이의 영상이 하늘가득
 안겨와 이 순간 그이를 위해 드릴 그런 말을 찾을
 수 없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 많이 받아
 온 한 녀성일군의 뜨거운 심장의 목소리, 바로 그의
 이 말속에 혁명의 령도자와 사회주의생명에 대한
 우리모두의 뜨겁게 체험화된 사상감정이 얼마나 력
 력히 어려있는것인가.
 혁명의 길에서 령도자와 인민은 하나의 생명으로
 굳게 결속된 운명공동체이다.
 령도자는 인민에게 한 모성의 품에서 받아안은
 육체적생명만이 아닌 자주적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가장 고귀한 사회정치적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받
 아안은 인민은 자신의 운명을 령도자에게 전적으로
 의탁한다. 이것이야말로 세월의 끊임없는 풍화작
 용속에서도 절대로 사멸되지 않고 인민의 운명과
 그 력사에 결정적으로 작용하여 어제와 오늘과 래
 일의 생명들을 하나의 피줄로 튼튼히 이어주고 있
 는 위대한 혼연일체인것이다.
 우리의 가슴속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생전에 남기신 다음과 같은 교시가 뜨겁게 새겨진

다.
 《노래에도 있는바와 같이 **김정일**동지가 없으
 면 동무들도 없고 사회주의조국도 없습니다. 그
 의 운명이자 동무들의 운명이고 조국의 운명입니
 다.》
 새기면 새길수록 얼마나 뜻깊고 위대한 유훈이신
 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우리 사회정치적생
 명의 아버지이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이시자 우리의 운명이시며
김정일동지는 곧 우리 사회주의생명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주체의 생명관의 근
 본중핵이며 경애하는 그이를 모시고 혁명해오면서
 피와 살에 새긴 특출한 신념이며 인생철학이다.
 오늘의 조선은 이 신념으로 꿋고 숨쉬고 약동하
 고있다. 우리 인민은 슬플 때나 피로울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자
 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산다.
 세기에 한분밖에 계시지 않는 위인에게 운명을
 맡긴 인민이 신심과 락관에 넘쳐 부르는 노래들이
 있다.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없고 당신이 없으면 조국
 도 없다는 그 노래의 맥박, 그것은 **김정일**동지가 계
 시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도 없고 사회주의도 없다
 는 위대한 신념의 분출이다.
 당신만 있으면 대적이 무어나, 당신만 있으면 우
 리는 이긴다는 그 노래의 진가, 그것은 **김정일**동지
 께서 계시면 그 어떤 천하대적도 우리의 생명을 앗
 으려 달려들수 없고 사회주의조국도 건드릴수 없다
 는 백전백승의 락관의 토로이다. 이 신념의 노래들
 을 높이 부르며 우리 인민은 온 우주가 울고 온 인
 류가 대성통곡하던 상실의 크나큰 슬픔을 힘과 용
 기로 바꾸어 일떠섰다.
 지난해 7월 8일, 우리 인민은 인류력사에 다시없
 을 최대의 상실을 당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는 우리 인민들과
 세계 진보적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이였고
 최대의 손실이였다. 너무도 애석하게 아버지수령님
 을 잃은 절통함에 우리는 진정 하늘이 무너지고 땅
 이 꺼진것만 같아 눈앞이 캄캄해지는 충격을 받았
 고 그 충격의 여파로 심장이 멎고 생명이 끊기워나
 가는듯한 상실의 아픔을 느꼈다.
 그러나 조선은 쓰러지지 않았다. 우리는 비판하
 지 않았고 락심하지도 않았다. 우리의 생활은 최대
 로 안정되어있었고 모든것이 자기의 정상궤도를 그

대로 유지했다.

무엇이 우리 생명의 활력이 되어 일떠서게 하였으며 과연 그 어떤 거대한 힘이 우리 마음의 기둥으로 되게 하였는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시었다는 청천벽력같은 비보에 접했던 그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모두는 어떻게 될번하였는가 그이께 삼가 편지를 올렸던 한 인민군장령의 절절한 목소리를 들어보라.

《그 시각 나는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장군님을 생각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이시자 경애하는 장군님이시고 장군님이시자 우리 수령님이시라는 강한 느낌이 뇌리를 칠 때 나는 비로소 우리는 생명의 아버지를 잃지 않았다, 우리의 머리위에 태양은 여전히 빛난다라고 세상을 향하여 마음속으로 웨치고 또 웨쳤습니다.》

가장 비통한 시각에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생각했다. 그이께서 계시여 조국과 우리 사회주의 운명을 영원히 담보되어 있다는 신심과 락관을 잃지 않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이시자 곧 위대한 **김정일**동지이시며 **김정일**동지이시자 아버지수령님이시다.

이 위대한 신념, 위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침식을 모르고 밤낮을 이어가면서도 천백배로 강해지면서 일떠섰다. 이 위대한 신념, 위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큰 영광인가를 다시금 폐부로 절감했고 그이이시야말로 우리 수령님과 꼭 같으신 우리 사회정치적생명의 아버지, 삶의 태양이시라는 철리를 심장으로 체감하면서 세월을 앞당겨 성장했다.

생각해보라, 그이와 나, 그이와 우리, 그이는 진정 어떤분이신가를.

이 세상 우리와 제일 가깝고 우리와 제일 친근하시며 우리의 심장속에 언제나 함께 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그이는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주시고 참된 혁명전사로 키워주시는 위대한 스승이시며 우리모두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따듯이 보살펴주시는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다.

그이는 인민대중을 정치의 희생물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의 혜택을 받는 주인으로 내세워주시는 회세의 정치가이시며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해주시는 은혜로운 삶의 태양, 운명의 수호자이시다.

그이는 인민을 위함이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 한다는 필생의 좌우명을 간직하시고 당도 사회주의도 군대도 인민을 위해 복무하도록 이끄시는 절출한 령도자이시며 혁명도 건설도 인민을 위해서

만 있다는 신념으로 창조와 건설의 새 역사를 펼쳐가시는 위대한 영재이시다.

력사에는 이름난 명장들과 영웅호걸들, 나라와 인민을 위해 큰 일을 해놓아 오늘까지도 인류사에 지울수 없는 흔적을 남겨놓은 령도자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어느 시대, 어느 력사에도 인민대중에게 생명은 준 생명의 모체, 운명의 수호자로 절대적인 지지와 숭배를 받은 세기적위인, 절세의 령도자는 없었다.

력사를 다시 소급해보자.

인민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있었다. 인민은 력사의 수레바퀴를 전진시켜왔고 사회를 변혁하는 위대한 력량으로 되어왔다.

그렇다고 하여 인민대중이 다 자기 운명의 주인, 력사의 창조자로 되는것은 아니다. 사회정치적집단의 생명의 모체로서의 인민대중의 최고뇌수, 령도의 중심인 올바른 수령을 모시지 못하면 인민은 버림받은 고아의 운명을 면치 못하고 살아도 죽은 목숨과 같은것임을 지나온 세기는 물론 사회주의가 좌절된 나라들에서 펼쳐지는 그 비참상이 그대로 실증해주고있지 않는가.

우리는 수령복이 있는 인민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살아온 행운에 이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또 한분의 탁월한 령도자로 잘 모신 우리 인민의 민족대행운, 참으로 인민대중에게 고귀한 사회정치적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꽃피워주며 보호해주는 위대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것이 인민의 가장 긍지로운 력사라고 한다면 자손만대로 수령복을 누려갈수 있는 행운을 타고난 우리 인민의 력사는 무엇이라 말해야 할것인가.

우리에게는 진정 하늘이 무너지고 지구가 깨어져 나가는것과도 같은 그런 엄혹한 역경, 그런 크나큰 슬픔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수 있는 정신적자양을 부여주시는분이 계시고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항상 마음의지하고 우려했던 때에 달릴수 있는 위대한 아버지가 계신다.

인민이 당하는 슬픔, 인민이 겪는 괴로움앞에서는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때식도 주무심도 잊으시는분, 자신께서 사랑하시던 전사와 귀중한 혁명전우를 잃었을 때는 너무도 가슴아프시여 끝없이 눈물을 흘리시는분!

아 그이를 위해 순간을 살아도 값있게 살고 피를 바치고 목숨을 바쳐도 그이를 위해 바친다면 아가울것이 무엇이라.

행복한 날에는 인민에게 주실수 있는 더 큰 행복을 위해 비오고 눈내리는 길을 누구보다 많이 걸으시고 원썬들이 우리를 넘보는 준엄한 나날에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그 어떤놈도 다치지 못하도록 천변만화, 립기응변의 지략을 펴시느라 최고사령부 작전대앞에서 매일밤 새날을 맞으시는 천하무적의 령장 우리의 최고사령관.

행복하여라, 영광이여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하나의 생명으로 결속되어 혼연일체를 이루고 사는 우리의 행복, 우리의 영광.

그이께서는 언제나 인민에게 사랑과 믿음을 안겨 주시고 인민은 오로지 그이께 충성과 의리로 보답하며 삶을 누리는 이보다 더 큰 행복을 우리는 모른다.

그이를 어버이라 스스로없이 부르며 마음속 고충도 말 못할 사연도 무릅없이 스승들께 편지를 보내듯 아무때나 진정어린 편지도 올리면서 그이와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며 살아 호흡하는 이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는 모른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 인간에 대한 증오를 이기게 하는 만능의 힘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신념의 화신, 의지의 화신, 사람의 화신이라고 항상 목매여 말하고있는 리인모동지는 남조선에 있는 비전향장기수 김영태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 리인모를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시고 인생의 청엽으로 다시 피여날수 있게 하여주시었소.

우리의 **김정일**장군님의 자애로운 품이 없었더라면 남쪽에서 이름석자도 없이 수인번호로만 불리우던 내가 어떻게 〈신념과 의지의 화신〉으로, 세상이 다 아는 리인모로 될수 있었겠소.

정말 그분께서 이 리인모를 위하여 바치신 로고와 돌려주신 사랑과 은정은 동서고금에 전무후무한 의리의 정화이고 애정의 결정체라고 해야 할것이요.》

심장이 뛰고 피가 흐른다고 인간의 생이 아니다. 공기를 마시고 대지를 확보하며 하늘을 이고산다 해서 산 생명도 아니다.

울창한 숲의 보호없이 애어린 나무들이 거목으로 자랄수 없듯이 연약한 봄싹들이 태양없이 무성한 잎새를 펼칠수 없듯이 인간은 령도자의 손길, 령도

자의 품, 령도자의 보호없이 순간도 살지 못한다.

우리는 누구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신 고귀한 생명을 지닌 사람들, 오로지 그이의 손길, 그이의 품, 그이의 보호속에서만 너와 나, 우리모두가 한피줄로 뜨겁게 이어져 뜻도 숨결도 같이하며 오늘에 살고 래일에 살 인민이다.

바로 것처럼 위대한 인민의 령도자를 어버이로 모시고사는 우리의 삶이 그리도 부러웁기에, 사람 위주의 우리 식 사회주의가 그토록 매력있기에 세계는 오늘 이렇게 뒤흔다.

《우주의 무수한 행성들이 자기의 궤도를 따라 변함없이 돌고있듯이 세계는 주체의 궤도, 조선의 사회주의궤도를 따라 전진하고있다.》

《세계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주체의 궤도를 따라 나아가고있다. 그이께서 력사발전의 방향타를 잡고계시는 한 조선인민들과 세계인민들은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변함없이 사회주의의 최후승리를 향해 나갈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우리 생명의 위대한 어버이이시며 삶의 태양이시다.

사회주의기치이시며 승리의 상징이신 **김정일**동지를 하늘처럼 받들고 모시자.

이것이 오늘 조선의 신념, 조선의 의지, 조선의 맹세이다.

우리의 사명이고 본분이며 도리인 이 위대한 신념을 더더욱 심장속 깊이 굳건히 다짐하며 인민은 자기의 위대한 령도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삼가 축원을 드린다.

우리모두의 생명과 함께 우리 당, 우리 사회주의, 우리 군대의 그 모든 생명을 시대와 력사앞에 책임지신 세상에 한분밖에 계시지 않는 더없이 존귀한분이시여! 길이길이 건강하시라.

우리의 태양 위대한 **김정일**동지이시여, 빛나는 세월과 함께 무궁토록 젊어계시라.

가사

빛나라 김정일장군의 나라

최주원

사랑의 해빛으로 행복은 넘쳐라
인덕의 정치로 대가정 꽃피라
온 나라가 화목한 인민의 우리 세상
빛나라 **김정일**장군의 나라

백두에 뿌리내려 흔들림 없어라
정일봉의 기상으로 굽힘이 없어라

목숨같이 지켜가는 불패의 우리 조국
빛나라 **김정일**장군의 나라

주체의 등대로 미래는 밝아라
일심단결 한뜻으로 승리만 펼쳐라
세상이 바라보는 우리의 사회주의
빛나라 **김정일**장군의 나라

염분진전설

함경북도 경성군 룡현리에 가면 아름다운 바다기슭에 염분혁명사적지가 있다.

옛날부터 소금을 구워낸 곳이라 하여 염분이라고 부르는 여기 포구는 바다가에 잔자갈이 많이 깔려 있어 일명 《잔자개》라고도 하였다.

염분진포구는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어린 시절에 다녀가신 뜻깊은 고장이다.

이곳에는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이끼낀 바위 위에 오르시어 저 멀리 수평선을 향하여 화살을 날리신 뜻깊은 사적이 있다.

오늘 이고장 사람들은 그이께서 오르셨던 이 바위를 룡마바위라고 부르고있다.

이 룡마바위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깃들어있다. 퍼그나 오래전에 있는 이야기이다.

산 좋고 물 맑은 삼천리 금수강산 어디나 다 그러하지만 출렁이는 푸른 바다를 끼고있는 염분진은 그림처럼 아름다운 고장이었다.

아침해는 솟아올라 오붓하게 들어왔은 이 마을을 먼저 비쳐주었고 지는 달은 푸르른 바다를 은빛으로 단장하며 마을을 뜨기 아쉬워하였다.

사람들 또한 로인들을 존경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도우며 화목하게 살고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마을에는 신기한 일이 생겼다.

아침해가 솟아오르는무렵, 하늘에 오색채운이 서리고 북소리같은 우뢰소리가 한동안 울리더니 말음소리와 함께 난데없는 룡마 한필이 네굽을 안고 훨훨 날아내려오는것이였다.

무술을 익히던 젊은이들과 도래굽이에서 섬을 따던 아낙네들 그리고 모래등을 쌓던 아이들과 장미에 서리가 불린 로인들이 모두 모여들어 룡마를 구경했다.

룡마는 발통 하나가 동이만큼이나 크고 옆구리에서 쪽 펼쳐진 두날개는 어찌나 넓은지 작은 배 두척은 실히 올려놓을듯하였고 그 울음소리 또한 장쾌하여 산을 울리고 수평선에 메아리쳤다.

마을의 좌상로인이 가슴노리에까지 드리운 수염을 쓸어내리며 기쁜 어조로 말했다.

《룡마는 하늘이 보내준것이 틀림없네. 이 룡마를 타는 사람은 천하를 다스릴것이니 생각있는 무사는 누구든 올라보라.》

이때 키가 구척이고 몸이 장대한 무사가 앞으로 나섰다.

《제가 한번 올라보겠나이다.》

좌상로인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모여선 사람들은 모두 응성거렸다.

마을에서뿐아니라 아근에는 그만한 무사가 없는 즉 그럴만도 하다는 생각에서였다.

무사는 심호흡을 하고 룡마에 다가섰다.

한손으로 룡마의 고삐를 잡은 그는 등자를 밟고 말잔등에 뛰어오르려고 하였다.

그런데 엄청나게 큰 이 룡마는 어찌나 갈개는지도저히 오를수가 없었다. 그는 무진 애를 썼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마의 땀을 훔치면서 룡마에서 맥없이 물러서는 무사를 바라보며 마을사람들은 저으기 아쉬워하였다.

다른 젊은이들이 또 몇명 나섰으나 그들은 룡마에 오르지도 못하였다.

이 소문은 삽시에 온 나라에 퍼졌다.

그리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룡마를 타보려고 온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이름난 장수들이 염분진바다가에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장풍이 늘어선 염분진 백사장에는 모여온 장수들로 날마다 흥성거리었다.

그러나 며칠을 두고 술한 장수들이 룡마를 타보려고 했지만 끝내 그 누구도 뜻을 이루지 못하고말았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더 올라보겠소이다.》

한 장수가 나서며 다른 장수들에게 두손을 마주 잡아보였다.

그 장수는 여러 싸움에서 용맹을 떨친 나이지극한 장수였다.

《어서 타보게.》

모여선 장수들이 자기들은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라도 룡마에 올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적극 부추겼다.

그 장수는 먼저 무릎을 꿇고 하늘에 큰절을 한 다음 룡마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이제까지 키워온 힘과 재주를 다해볼양으로 이윽히 룡마를 바라보더니 땅을 차고 뛰어올랐다.

그러나 그 장수도 룡마의 잔등에 오르지 못하고 떨어지고말았다.

모여선 장수들은 모두 혀를 찼다.

《안되겠군.》

《룡마의 임자가 이 나라엔 없소그려.》

이때였다.

한 장수가 나서며 《내가 오르겠소.》 하고 웨치

는것이였다.

모두 돌아보니 그는 키가 자그마한 암팡진 몸에 쇠장식을 가득 단 이웃나라 장수였다.

하늘에서 내려온 룡마에 대한 소문은 어느새 멀리 이웃나라에까지 퍼졌던것이다.

이웃나라 장수는 그쫘한 룡마에도 못오른다면 무슨 장수냐는듯 자신만만해서 룡마앞으로 다가섰다.

그리고는 룡마의 고삐를 잡았다.

그 순간 룡마가 갑자기 천둥이 우는듯 요란한 울음소리를 내며 머리를 휘둘렀다.

룡마의 고삐를 잡았던 이웃나라 장수는 날새마냥 하늘에 뿌러지더니 돌맹이처럼 모래바닥에 떨어지고말았다.

《와-하-하》

웃음소리가 터져올랐다.

결국 하늘에서 내려온 룡마에는 그 누구도 오르지 못하였다.

장수를 만나지 못한 룡마는 몇달동안 《오호호-오호호!》 안타깝게 울어대더니 그자리에 바위로 굳어지고말았다.

사람들은 몹시 아쉬워하였다. 하늘에서 룡마가 내려는데 탈 장수가 없어 바위로 굳어지게 하였으니 한편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다.

가슴을 치며 안타까와하였으나 어찌는 도리가 없었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염분진에 내린 룡마에 대한 이야기는 한갓 옛말로 남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해 여름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과 함께 이곳 염분진에 오시였다.

마을사람들은 명절처럼 흥성거렸다.

그 이름만 들어도 삼도왜적이 벌벌 떨었다는 항일녀장수이신 김정숙어머님과 함께 백두광명성으로 높이 솟아오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자기들의 마을에 모시였으니 왜 그렇지 않으랴.

감격으로 들끓던 어느날 아침이였다.

바다가로 나가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머님과 함께 룡마가 굳어져 바위로 되었다는 그 룡마바위로 다가가시였다.

그이께서는 룡마바위를 올려다보시며 어머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더니 그 바위로 오르시였다.

마을의 한 로인이 간밤에 꾸 꿈이 하도 이상하여 아침일찍 바다가로 나왔다가 뜻밖에도 이 광경을 목격하였다.

저 룡마가 바위로 굳어지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을가? 그러면 백두산의 어린 장수께서 룡마를 타고 하늘로 날아오르시련만...

그는 룡마바위에 전해오는 전설을 생각하며 이런 아쉬운 마음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런데 이 어인 일인가?

그는 자기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어린 장수가 룡마바위에 오르시자 갑자기 금빛서기가 어리더니 바위가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조금 있더니 《오호호!-》 하는 말울음소리와 함께 룡마가 하늘로 날아올랐다.

봄우뢰마냥 장쾌한 그 말울음소리는 산을 울리고 바다를 흔들며 수평선 한끝으로 멀리 메아리쳐갔다.

바위가 룡마로 변한것이였다.

《영?》

그는 지난밤 꿈에 룡마를 본것이 너무도 신통하여 입을 벌리고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룡마는 바위우를 날으는데 그 기상은 장엄하기 이를데 없었다.

하늘가득 노을은 불타고 바다는 끓어번지는데 날으는 룡마의 갈기는 무지개마냥 찬란하고 네굽에는 구름발이 걸려있었다.

어느덧 룡마가 바다기슭에 날아내려왔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룡마의 곁으로 다가가시였다.

어머님께서는 말머리를 쓰다듬어주시며 룡마에서 내리시는 어린 장수의 손을 잡아주시였다.

이때 수평선에서는 아침해가 장엄하게 솟아오르기 시작하였다.

(백두산의 정기를 타고나신분이 다르긴 다르구나.)

그는 경탄하여마지 않았다.

《으로부터 룡마는 제 주인을 알아본다고 하더니 파시 천만군사를 거느릴 명장이 하늘에서 내려도다. 우리 민족은 만복을 받아안았구나.》

로인은 허연 수염을 내리쉴며 기쁨에 넘쳐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는 경건한 마음으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러렸다.

그후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곳을 떠나시자 룡마는 다시 바위로 변하였다고 한다.

지금 염분혁명사적지에 있는 룡마바위는 그날에 바위로 굳어진 룡마라고 한다.

태양은 하나

최정용

우리는 무척 오래전부터
느끼며 살았습니다

김정일장군!

예지로 빛발치는 안광에서
밝으신 미소에서
아버이수령님의 그 모습을

우렁우렁하신 그 음성에서
수령님의 음성을 들었고
근엄하고도 자애깊으신 그 모습
그 활달하신 인품에서
수령님의 체취를 느꼈습니다

주체의 심원한 철리로 가르쳐주시는
삶의 진리도 하나이고
인민들에게 기울이시는
사랑도 한결같으시기에
우리는 알았습니다
김정일장군님 뜻이면
그것이 다름아닌 수령님의 뜻인 줄

그렇게 이 아침도 우리롭니다
우리의 영명하신 **김정일**동지!
위대한 그 영상 우러르면
수령님, 우리 수령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앞에 계신다는 생각
한가슴에 꼭 차오릅니다

조금도 다름없습니다
우리 장군님 지니신
인민을 위하시는 그 천품도

지구도 들어올리실 그 담력도
산천초목도 머리숙이게 하시는 그 덕망도...

진정
인민의 숨결에 사색을 이어놓으시고
하루같이 언제나 밤을 지새우시며
세월의 찬바람 다 막아주시는
그이의 모습은 다름아닌
아버이수령님 그 모습입니다

수령님 슬하에서처럼
끝모를 인정의 세계에
우리 저도 모르게 마음이 끌리고
온몸에서 풍기는 백전백승의 그 기상에서
우리 신심과 용기를 받아안았거니

아, 달리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의 머리위에 하나의 하늘 펼쳐져있듯이
우리의 심장속에
하나의 태양이 솟아있습니다

김일성! 그이는 **김정일!**

김일성! 그이는 **김정일!**

인민의 세상에 솟아오른
하나의 태양!
변함없이 우러르고
변함없이 받들어가려니
인민을 위한 사랑으로 열렬하고
세상을 밝히는 그 빛으로 광휘로운
영원한 주체의 태양이
우리 앞길에 찬연히 빛나고있습니다

수령님은 우리의 김정일동지

강명화

언제나 뵈고싶은 수령님 모습
인자하신 그 영상 그려볼 때면
경애하는 그이 미소 어리여오네
아 수령님은 우리의 **김정일**동지

언제나 듣고싶은 수령님 음성
다정하신 그 말씀 그리울 때면

경애하는 그이 음성 내 심장 울려주네
아 수령님은 우리의 **김정일**동지

언제나 안기고픈 수령님 그 품
따사로운 그 품이 그리울 때면
경애하는 그이께서 품어주시네
아, 수령님은 우리의 **김정일**동지



크나큰 믿음

1988년 1월 어느날, 평안북도의 어느 한 군에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앞에 죄를 짓고 죽었다는 사람들의 가족 420여명이 한낱한시에 애국렬사증을 수여받는 일이 있었다.

그 많은 주민들이 하루밤새에 인민앞에 죄를 지른 사람들의 가족으로부터 애국렬사유가족으로 돌변하다니?

거기에는 필경 곡절이 있을것이라고 짐작한 한 기자는 당시 현지에서 당사업을 하면서 그 일에 직접 관여한바 있는 한 일군을 찾아가 사연을 알아보았다.

《그런 일이 있었지요.》

지금은 어느 한 중앙기관의 당일군으로 일하고있는 그는 기자의 취재용건을 듣자 감회가 새로운듯이 이렇게 말하며 기억을 더듬었다.

그것은 이런 사연이었다.

...

도에서 당사업을 하던 그는 오래전에 그 군에 지도사업을 나갔다가 그곳 주민구성이 다른 군에 비하여 복잡하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상 일시적후퇴시기 인민앞에 죄를 짓고 죽었다는 사람들의 가족이 유별히 많았다. 그런데 그 죄를 지었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과거에 가난하게 살던 노동자, 농민들이었다.

지도사업을 마치고 도에 올라온 그는 아무래도 의문이 풀리지 않아 해당 일군들을 여러명 내려보내어 확인해보았다. 하지만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었다.

그는 흔히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우리 혁명의 간고성과 복잡성이 낳은 불가피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거기에 더 개의치 않았다.

세월이 흘렀다.

그러던 1984년 10월 어느날 그에게는 사람들의 정치적운명에 보다 깊은 관심을 두지 못했던 자신의 태도를 되돌아보게 될 충격적인 기회가 있었다.

이날 락원기계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산소분리기제작에 기여한 노동자, 기술자들 가운데 가정주위환경이 복잡한 사람들이 있다는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전폭적인 믿음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그들모두를 후보당원기간을 거침이 없이 정당원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심으로써 그들의 평생소원을 풀어주시였던것이다. 그때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수행하면서 큰 자극을 받은 도의 그

일군은 그 군의 류다른 주민구성실태가 돌이켜져 그것을 그대로 말씀드리게 되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그리 크지도 않은 한개 군에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지난날 못살던 기본군중이 인민앞에 죄를 지었다는것이 납득되지 않으시여 강력한 조사그루빠를 무어 료해사업을 해보라고 이르시였다.

일군은 이미 진행한 료해사업정형에 대하여 보고드리면서 확인된 모든 자료로 미루어보아 다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것 같다고 말씀드렸다.

그이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그 지방으로 말하면 전략상 일시적후퇴시기 적들이 들어와보지도 못한 미강점지구였다, 사람들이 적들에게 속아 나쁜짓을 할래야 할수도 없었던곳이였다, 또 그 곳은 준엄한 전쟁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현지지도하신 군이고 군중토대가 좋은곳이다, 이런 군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민을 배반하였다는것을 어떻게 믿을수 있겠는가, 지난날 지지리 못살던 우리 인민은 해방후 공화국정권의 고마운맛을 눈물겹도록 체험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정권과 자기 인민을 배반할수 있겠는가고 하시면서 이렇게 단호히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그곳 인민들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자료를 다시한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 문제는 사람들의 정치적생명과 관련된 심중한 문제인것 만큼 힘이 좀 들더라도 중단하지 말고 10년이고 20년이고 끝장을 볼 때까지 해명하여야 합니다.

나는 우리 인민들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과거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일제는 조선사람 100명을 죽이면 거기에는 한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는 승냥이와 같은 강도적인 논리를 들고나오면서 **술한 조선사람들을 죽였지만 우리는 천만사람을 믿고 품에 안으면 한놈의 나쁜놈도 얼씬하지 못한다는 믿음의 철학을 주장합니다.**》

그러시면서 시일이 걸려도 좋으니 끝까지 해명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리하여 그 군에서는 전쟁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전면적으로 조사하는 료해사업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전후 근 40년동안 《확인》되고 또 《확인》된 문제를 달리 규명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

니 었던것만큼 조사그루빠성원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 사실을 헤아리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조사사업을 늘 하던 식으로 해서야 다른 결과를 기대할수 있겠는가고 하시며 조사사업도 다른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어디까지나 군중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되 전쟁시기 적들의 교활한 책동과 결부하여 심화시키라고 가르치시었다.

그이의 가르치심은 막막해하던 일군들의 눈을 크게 띄워준 참으로 귀중한 지침이었다.

조사그루빠성원들이 그이의 가르치심대로 철저히 군중에 의거하여 사업하는 과정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실에 접하게 되었다. 그것은 이런 일이었다.

그 군의 어느 한 농촌마을에 젊은 시절부터 청력 장애로 하여 말을 잘 듣지 못하는 오랜 토배기한사람이 있었다.

귀머거리인 그는 모든 일군들의 담화대상밖에 놓인 사람이었고 그자신도 주변의 일에 대하여 별로 알려고 하지 않았다.

조사그루빠의 한 일군은 미심결에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이 귀머씨는 사람도 찾아갔다.

큰소리와 글자로 의사소통을 하던 중에 일군이 찾아온 목적을 알게 된 그는 이런 놀라운 말을 하였다.

《후퇴때 나처럼 말을 잘 듣지 못하는 내 친구 하나가 내무원들한테 죽었시오. 왜 죽었는고 하니 나랑 같이 신체검사에 불합격이 되어 인민군대에 나가지 못했는데 글썽 군대기피자라고 잡아가서 죽이질 않았갔소. 귀머거리지만 마음이 착하고 농사일을 잘했는데 그렇게 됐시오. 정말 억울하지요.》

(영?! 귀머거리를 군대기피자로 몰아 죽이는 그런 내무원이 있나니?)

한 귀머씨는 사람이 들려준 이 이야기는 진실을 밝히는데 귀중한 단서로 되었다.

이것을 실머리로 하여 조사사업을 심화시켜보니 술한 애매한 사람들이 내무원의 손에 죽었는데 량정창고경비원을 하던 한 로동당원은 세포회의를 하러 간다고 나가더니 그날밤 직무태만죄로 죽고 한 젊은이는 인민군대기복창고가 폭격을 맞아 군복들을 자기 집에 가져다 보관했다가 후에 가져다 바친 훌륭한 일을 하고도 군사물자절취죄로 죽었다.

의혹을 품은 일군들은 사회안전기관과 합동하여 고심어린 추적과 조사끝에 마침내 전쟁시기 《내무원》으로 가장한 적간첩일당이 그 일대에서 준동하면서 사람들속에 불화와 반목을 조성할 목적으로

수많은 농촌핵심들과 무고한 주민들을 교묘하게 살해하였다는것을 과학적으로 판명해내고야말았다.

도의 일군은 서둘러 이 사실을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 보고드리었다.

1988년 1월 7일,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적들의 만행에 치를 떠시며 전쟁시기 그 군에서 인민앞에 죄를 짓고 죽었다는 사람들을 모두 원쑤들에게 피살된 애국렬사로 선포하시고 그 가족들에게 빠짐없이 련사증을 수여할데 대한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이렇게 되어 가정주위환경이 불미스럽다는것으로 하여 수십년동안 고민속에 살던 500명 가까운 주민들이 한날한시에 애국렬사유가족이 되는것과 같은 전례없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던것이다.

《정말 이것은 우리 시대의 전설입니다. 지금도 내 눈앞에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일제는 조선사람 100명을 죽이면 거기에는 한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는 승냥이와 같은 강도적인 론리를 들고 나오면서 술한 조선사람들을 죽였지만 우리는 천만사람을 믿고 품에 안으면 한놈의 나쁜놈도 얼씬하지 못한다는 믿음의 철학을 주장한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모습이 언제나 숭엄하게 떠오르군합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자주 나는 그대들을 믿는다, 그대들도 나를 믿으라, 이것이 나의 철학적신념이다라고 말씀하시군하였습니다.

이 말씀인즉 사람들을 무조건 믿고 들어가는것이 자신의 신념이며 자신의 정치철학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가히 알수 있는것처럼 사람들에게 대한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믿음은 천성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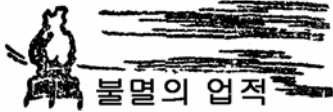
이런 철석같은 믿음이 있었기에 그 군에서 있었던것과 같은 그런 꿈같은 이야기도 생겨나게 되었던것입니다.

정말 경애하는 그이는 믿음의 정치가, 믿음의 철학가이십니다.》

일군은 무언가 자기의 느낌을 더 이야기하고픈 표정이었으나 적중한 표현을 고르지 못했는지 말을 그쳤다.

전후 사연을 알게 된 기자의 머리속에는 위대한 인간의 초상이 생동하게 그려졌다.

그것은 《불신》이라는 흉기를 들고 인간을 살륙하는 야수들과 맞서 《믿음》이라는 신성한 보검을 비껴들고 사람들을 지켜주는 위인의 거룩한 초상이었다.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며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없고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는 신념의 노래를 부르며 경사롭게 맞이하는 위대한 령도자의 탄생일을 앞둔 지난해 2월 4일이였다.

대소한의 추위도 지나간뒤 립춘날이여서 날씨는 한결 푸근하였다.

이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만수대에 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을 보여주시였다.

경애하는 그이를 한자리에 모시고 가르치심을 받는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한없이 격동된 심정에 휩싸여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만수대예술단의 공연을 오래간만에 보았는데 전반적으로 수준이 있게 잘하였습니다.》

좌중을 둘러보시면서 웃음지으시는 그이께서는 합창을 아주 잘하였다고 분에 넘친 믿음의 평가를 주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오늘 만수대예술단에서 합창을 여러곡 내놓았는데 합창성원은 그리 많은편은 아니지만 노래소리가 시원히 튀어나오는것이 아주 좋다고 거듭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 순간 창작가, 예술인들은 감격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올랐다. 그저 자신들이 노력을 다하여 노래형상에 힘을 기울이었을뿐인데도 이처럼 과분한 평가를 주시니 무어라 말할수 없었다. 너무도 크나큰 신임이 아닐수 없었다.

한동안 사이를 두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최근 창작된 가요를 가지고 만수대예술단에서 규모가 큰 합창으로 형상하였는데 아주 좋다고 말씀하시였다.

창작가, 예술인들의 마음은 또다시 크나큰 감격으로 설레였다.

그이께서는 이처럼 규모가 큰 합창으로 형상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며 크나큰 믿음을 주시니 창작가, 예술인들의 마음은 세찬 격동으로 끓어올랐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 그이의 령도를 받는 크나큰 공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당과 생사운명을 끝까지 같이 해나감으로써 우리 당의 위력과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패성을 더욱 힘있게 과시해나가고있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 위대한 령도자와 창작가, 예술인들이 혼연일체를 이루고 문학예술혁명이 어떤 풍파도 뚫고 승리적으로 전진하고있는것은 전체 창작가, 예술인들이 당과 수령을 충성으로 받들고 당과 생사운명을 함께 해나가고있기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시대의 장엄한 흐름과 모습을 규모가 크게 형상하는것은 너무도 응당한 리치이며 생활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그런데도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의처럼 과분한 평가를 주시는것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창작가들을 이윽히 바라보시다가 이 가사를 가지고 작곡을 여러 예술단체들에서 하였지만 보천보전자악단의 작곡가는 머리를 잘 써서 새로운 양상의 노래를 지었다고 작곡을 아주 잘하였다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그이의 귀중한 말씀을 새겨받아안은 창작가, 예술인들과 함께 그 작곡가는 크나큰 믿음어린 그 말씀에 몸둘바를 몰랐다.

그 작곡가의 생각은 더없이 깊어만 갔다. 생활이 있는곳에는 음악이 있고 음악이 있는곳에는 생활이 있다. 그래서 음악은 인간생활의 친근한 길동무라고 한다. 유구만년의 역사를 펼쳐온 우리 인민은 일찍부터 민족교육의 음악을 창조하여왔으며 그것을 자신들의 생활과 투쟁을 반영한 건전한 음악으로 발전시키는데 많은 관심을 돌려왔다.

이 가사에 곡을 붙일 때만 해도 그렇다. 노래의 가사에는 경애하는 그이의 탁월한 령도를 받들어 나간다면 그 어떤 대적도 물리치고 승리할수 있다는 신심을 안겨줄뿐만아니라 혁명적락관에 넘쳐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완성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몸바쳐 나서게 하는 숭고한 사상이 담겨져있는것이다.

실로 가사에는 한생을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믿고 따르면서 모진 고난과 역경을 헤쳐오는 나날에 불태워온 심장의 피방울을 신념과 의지의 시줄로 엮은 작가의 필생의 력작이라고 작곡가는 생각하였다. 바로 그때문에 작곡가는 혁명적신념과 락관주의가 가요전반에 줄기차게 관통되도록 작곡하였을뿐이다.

그런데도 경애하는 그이께서 이처럼 과분한 평가의 믿음을 주시니 무어라 말할수 없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계속하여 이 노래는 선들과 장단을 랑만적으로 하였기때문에 좋다고 하시면서 병사들이 전호숙에서 부르기도 좋고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 부르기도 좋으며 결혼식장에서 불러도 좋고 어려운 때에 불러도 좋은 노래라고 말씀하시였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크나큰 걱정에도 넘쳐 또다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혁명은 순풍에 돛단 배와 같이 저절로 전진하지 않으며 승리는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혁명은 간고하며 투쟁은 어렵다.

하늘땅이 진동하는 세상의 변천과 엄혹한 역경 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자기의 붉은 기발을 더욱 높이 추켜들어야 하는것이 혁명이며 때로는 참기 어려운 슬픔과 아픔도 힘과 용기로 바꾸고 산악 같이 일어나 전진해야 하는것이 혁명이다.

이 간고한 혁명을 순간의 꺾임도, 흔들림도, 탈선도 없이 두줄기 궤도로 달리는 기관차와 같이 힘차게 이끌어가는 그 거대한 향도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위대한 령도자의 신념과 의지이다.

경애하는 그이는 우리의 모든 투쟁과 승리의 조직자, 고무자, 향도자이다.

생각에서 깨어난 창작가, 예술인 모두는 이를 할수 없는 걱정이 솟구쳐올랐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세련된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창작가, 예술인들의 앞길을 막을자 이 세상에 없다! 온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탁월한 전략과 세련된 령도로 인민들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의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는 끄떡없고 언제나 이긴다!

참으로 우리 창작가, 예술인들은 경애하는 그이의 모습에서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가장 높이 받들어나가시는 참다운 충신의 귀감을 보았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심화발전시켜나가시는 령도예술의 극치와 인간에 대한 가장 뜨거운 사랑을 느끼었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활화산과도 같이 끓어번지는 피끓는 심장의 맹세대로 위대한 령도자이신 **김정일**동지를 우러러 신념의 맹세를 굳히었다.

한동안 창밖으로 활기에 넘쳐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계속하시

여 내가 오늘 만수대예술단의 공연을 보면서 제일 기쁜것도 평양음악무용대학을 비롯하여 예술부문 대학을 나온 배우들이 노래를 잘 부른것이라고 하시면서 만수대예술단 예술인대렬이 대학졸업생들로 꾸려진것이 제일 마음에 든다고 더없이 기뻐하시면서 만수대예술단 예술인대렬이 대학졸업생들로 꾸려진것이 제일 마음에 든다고 더없이 기뻐하시였다.

한없이 만족스러워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러르는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의 가슴을 세차게 높뛰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높이 우러러모시고 충성다하는 길에 우리 당과 주체조선의 끝없는 영광과 백전백승의 길이 있다는 절대적인 신뢰심을 심장깊이 새기리라.

정녕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 그이와 영원히 생사운명을 같이하려는 우리 창작가, 예술인들의 신념과 의지는 오늘 더욱더 강하여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와 운명을 끝까지 같이하려는 확고부동한 이 신념은 오직 탁월한 령도자를 모시고 혁명하는 창작가, 예술인들만이 지닐수 있는 가장 고결한 사상정신적풍모이다. 그것은 령도자의 위대성과 현명성에 대한 굳은 확신이고 령도자를 따라나아갈 때 자기들의 운명도 미래도 빛나게 개척될수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이며 령도자를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결사옹위하려는 각오이며 의지이다.

우리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의 이 신념은 그 무엇으로써도 꺾을수 없고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절대적으로 위력한것이다.

본사기자



《사색이 없는 인간들한테 창발성이 있을수 없고 창발성이 없는곳에 창조와 혁신이 있을수 없다는것은 누구나 다 알고있는 상식이다.

인간을 세계의 지배자로 만들고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해내는 힘있는 존재로 되게 한것도 엄밀하게 따지고보면 사색의 덕이라고 말할수 있다.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인 인간은 끊임없는 사색과 사색의 루적을 통하여 자연과 사회와 자기자신을 개조해왔고 세계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군림하였다.

우리 당이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향해 정열적인 사색가가 되라고 호소하는것은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개조하는데서 사색이 노는 역할을 절대적으로 중시하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5)중에서

그분을 받드는 길에 영광넘친다

남태범

너무도 크나큰 슬픔에 잠겨
수령님의 서거를 애도하면서도
인민의 마음속 깊이
믿고 따르며 받아들여온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

하늘이 무너지는듯한 상실앞에서도
장군님 계시여
우리 하늘을 뗏뗏이 쳐다볼수 있었고
아무리 통곡해도 비분이 가는지지 않는
그 모진 설음을 터쳐놓을수 있었나니

일찌기 혁명의 진두에 서시여
수령과 인민을 하나로 묶어세우신분
장군님의 이끄심을 떠나서야
전체 인민이 떨쳐나 수령님과 영결한
그 일심단결을 상상이나 할수 있었던가

불행앞에 맥을 놓고 쓰러진것이 아니라
대오를 더 조이고
굳은 맹세를 다지며
불사신과 같이 일떠서는 이 전진을
그 누가 감히 오늘에 마련할수 있었으랴

수령님의 뜻을 그대로 이으신
장군님은 하늘이 낸 또 한분의 령도자
수령님의 그 뜻으로
수령님의 그 숨결로
인민을 위하시교
인민을 보살피시나니

예지에 넘치신 영광
인자하신 그 모습
은정어린 손길에서
인민은 오늘보다 더 좋은 래일을
믿음에 넘쳐 내다보고있다

타빈을 세차게 돌리며
언제바다에서 물은 폭포쳐내리고
철탑들이 솟은 강철공장의 넓은 구내에
출선의 붉은 화광은 넘친다

들은 들마다 오곡을 무겁게 무르익힌 농민들이
필필이 비단필을 짜내는 방직공들이
머나먼 항로에 닻을 올린 무역일군들이
새 경제전략의 장엄한 기치를 높이 들었다

아 들끓어라, 내달으라, 넘치여라
김정일장군님을 모신
내 조국의 빛나는 모습으로
우리 수령님께서 언제나 바라시던
조선의 아름다운 미래의 모습으로
들끓어라, 내달으라 조국이여!

우리 나아가는 길에
천만산악도 길을 비껴났고
강하도 흐름을 멈추고 머리숙였도다
장군님의 령도따라 가는 이 길은
백전백승하는 길
이 길우에 어버이수령님
언제나 밝게 웃으시며 함께 계시여라

길이 받들자, 우리의 태양

차영도

이 땅에 억척같은 사회주의를 안으시고
우리의 창창한 앞날을 안으시고
백두의 장군 **김정일** 동지
민족의 운명앞에 나서시였다

머리들어 우러르라, 민족이여 인민이여
우리의 하늘에 태양은 불멸하거니
수령이 비우고간 커다란 자리
그이는 더 크게 메우시였다

그이는 우리의 령수,
그이는 우리의 기발,
그이는 우리의 승리,
그이는 우리 운명의 태양!

가슴에 무겁던 눈물의 조기는
우리 혁명의 천만대오를
그이께서 억세게 틀어잡으신 붉은기아래
더욱더 엄숙히 정렬시켰나니

김일성 동지를 잃은
가슴 찢어지는 이 땅의 낮과 밤은
이 나라 인민을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와
더욱더 한몸이 되게 하였다

오, 하늘에서 태양을 떼어내지 못하듯이
무엇으로 가르냐
우리와 그이
무엇으로 막으랴
그이께 향한 이 나라 인민의 일편단심을!

그이께서 가장 큰 아픔을 안으시고
조국의 운명을 떠메고 나섰기에
우리는 저마다
한몸이 두몸이 되고 세몸이 되어
그이를 받들어나섰다

눈물은 뚫어번지는 피가 되였다
슬픔은 무서운 불이 되였다
쏟아지는 석탄은 곱절로 더해졌고
화력타빈의 증기는
더한층 뜨거워졌다

누구나 날이 밝으면
더 일찍 서두르는 출근길
아이들마저 이 땅에서 제 할 일
어른스럽게 찾아든다

정녕 이 하늘밑에
우리의 **김정일** 동지밖에
더 믿고 따를분이 없어
온 녀를 다해, 심장을 다해 우리 따라나선
그이는 나라의 아버지, 우리의 령도자

그이의 신념은
꺾을수 없는 강철이고
그이의 담력은
무너뜨릴수 없는 백두의 산악이거니

그이께서 높이 추켜드신
우리의 붉은기는
피바다 만리를 헤쳐온 붉은기
불바다 천만리를 뚫고온 붉은기

혁명은 부른다
인민이여 앞으로!
아버지 **김일성** 동지께서
위대한 사상과 영생의 모습을
고이 두고 가신
아, 우리의 천만목숨인
주체혁명의 이 붉은기!

오, 이 기발아래
발걸음 더 높이 들라
김정일 동지의 인민이여
보폭을 더 크게 내짚으라
김정일 동지의 조선이여

승리는 그이따라 나아가는
우리의것
단결은 그이께 운명을 맡긴
우리의 의지, 우리의 신념
더 높이 받들자 우리의 태양
더 길이 모시자 **김정일** 동지!

민족문화유산 계승발전의 진로를 뚜렷이 밝힌 강령적문헌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민족문화유산계승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발표 25 뉼에 즈음하여 -

은종섭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주체적인 사회주의적민족문화가 찬란히 개화발전하고있다. 민족적특성이 현대적미감에 맞게 살려지고 혁명적이며 사회주의적인 내용이 민족적정서가 짙은 형식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우리의 문학예술은 우리 인민의 사상문화수양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강력한 무기로 되고있다. 또한 7천만민족모두의 심장을 틀어쥐고 그들을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 위업실현으로 고무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되고있으며 인류문학예술의 앞길을 밝혀주는 휘황한 등대로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문학예술인들의 한결같은 찬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5천년 민족사와 인류문예사에서 일찌기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었던 민족문화의 이러한 경이적발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내놓으시고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나가는 주체적문예사상과 정력적인 령도가 가져온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주체적문예사상을 창시하시고 민족문화유산을 훌륭게 계승발전시키는데 대한 독창적사상을 제시하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의 발전단계에 맞게 그것을 심화발전시키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1960년대말~1970년대초에 우리 문학예술분야에서는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벌어졌다. 하여 문학예술전반에 우리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과 주체적문예사상이 철저히 구현되고 문학예술의 혁명적 성격과 기능이 더욱 강화되게 되었다. 문학예술발전에서 일대 전환이 일어나는 이 시기에 극히 부분적이기는 하나 우리 당 문예정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사람들속에서 봉건유교사상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민족문화유산을 허무주의적으로 대하려고 하는 경향이 일부 발로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민족문화유산에 관한 우리 당의 일관한 로선을 사소한 편향도 없이 정확히 철저히 관찰하며 사회주의적민족문화예술을 더욱 휘황찬란하게 개화발전시키기 위하여 1970년 2월 17일 과학교육 및 문학예술부문 일군협의회를 소집하시고 고전적로작 《민족문화유산계승

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발표하시였다.

이 력사적로작은 민족문화유산 계승발전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문예사상이 집대성되어있는 강령적문헌이며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인 사회주의적민족문화발전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불멸의 기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고전적로작에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민족문화유산의 본질적내용과 그 계승발전의 합법칙성, 유산계승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을 심오히 천명하시고 민족문화유산을 주체적립장에서 바로 평가하고 계승해나가기 위한 방도와 구체적인 대책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작에서 먼저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본질적내용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는것은 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데서 선결조건으로 된다. 유산문제에서 이러저러한 편향을 발로시키는것은 결국은 그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지 못한데 기인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만민년의 오랜 과정을 거쳐 내려오는 우리 민족의 력사는 그 기간에 창조된 문화유산을 통하여 전하여지고있습니다.》

민족문화유산을 민족의 오랜 발전과정에 창조된 재부이며 거기에는 민족의 력사가 반영되어있다.

책이나 유물 등 선조들이 창조하여놓은 문화적재부가 후대들에게 귀중한 유산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거기에 민족이 걸어온 력사, 과거의 사회제도와 정치생활, 경제생활, 생활풍습 같은것이 반영되어있기때문이다. 후대들은 선조들이 남겨놓은 문화유산을 통하여 민족이 걸어온 력사와 당해 시기의 생활방식, 사람들의 생활처지, 의식정도와 문화수준 같은것을 알게 된다.

민족문화유산에는 또한 민족의 재능과 정서가 구현되어있는 귀중한 민족적형식, 수단과 수법 등이 들어있다.

례를 들어 우리 선조들이 남겨놓은 미술품들을

보면 여러 면에서 제한성이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섬세하고 힘있고 아름답고 고상한 필치로 특징되는 조선화의 우월성과 우리 선조들의 뛰어난 예술적재능을 찾아볼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민족문화유산에는 민족의 력사와 슬기가 담겨져있다. 이것이 민족문화유산의 본질적내용이며 그 가치와 의의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고 로동계급의 새 문화를 창조하는데서 민족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는것이 합법칙적요구로 제기되는것도 유산이 가지고있는 이러한 본질적내용과 가치에 의해 규정된다.

민족문화유산을 주체적립장에서 옳게 평가하고 계승해나가는것은 무엇보다도 자기 민족의 력사를 옳게 인식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사람들은 자기 선조들이 걸어온 력사와 창조해온 문화에 대하여 잘 알아야 민족의식을 높일수 있으며 민족적 긍지와 자존심을 가질수 있다.

우리 인민은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가진 슬기로운 인민이다. 반만년의 오랜 과정을 거쳐 내려오는 우리 민족의 생활과 투쟁의 력사는 그 기간에 창조된 수많은 문화유산을 통하여 전해지고있다. 그러므로 지난날 우리 민족의 력사를 잘 알려면 선조들이 남겨놓은 문화유산을 보아야 하며 그것을 옳게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허무주의는 사대주의를 낳으며 사대주의를 하면 민족이 망한다.

민족문화유산을 주체적립장에서 바로 평가하여 새 세대들이 그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도록 하여야 그들이 확고한 민족의식, 민족적자존심을 가지고 혁명의 대를 줄기차게 이어나갈수 있다.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평가하고 계승해나가는것은 또한 주체적인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적민족문화는 지난날의 문화가운데서 진보적이며 인민적인것을 계승하여 새생활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는 기초우에서만 성과적으로 건설될수 있습니다.》

로동계급의 새 문화는 결코 빈터우에서 건설될수 없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건설하는 새로운 사회주의적문화는 지난날 선조들이 창조한 문화유산 가운데서 진보적이며 인민적인것을 계승하고 그것을 새로운 시대적요구에 맞게 발전시킴으로써만 성과적으로 건설될수 있다. 로동계급의 새 문화는 주체적인 사회주의적민족문화로 되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사회주의적민족 문화건설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은 우리 나라 문화의 고유한 민족적형식을 살리면서

서 거기에 사회주의적내용을 옳게 결합시키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문학예술의 사회주의적내용이란 곧 혁명적인 내용이며 그것은 낡은것을 없애고 새것을 창조하는 투쟁, 착취계급과 착취사회를 반대하는 투쟁, 근로인민들의 리익을 옹호하며 모든 사람이 잘살도록 하는 투쟁 같은 내용을 말한다.

우리 문학예술의 민족적형식은 조선사람이 좋아하고 조선사람의 감정과 구미에 맞는 문학예술형식이다. 우리 민족은 자기의 감정과 구미에 맞는 고유한 문학예술형식을 가지고있다. 조선사람들은 노래와 춤은 우아하고 점잖은것을 좋아하며 말투는 부드럽고 겸손한것을 좋아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학예술을 창조하는데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심리적특성과 민족적감정, 우리 인민의 우수한 재능이 잘 반영되어있는 민족적형식을 옳게 살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또한 민족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는데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원칙적인 문제들을 천명하여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방도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우리 인민들이 창조한 민족문화유산가운데서 진보적이고 인민적인것과 낡고 반동적인것을 정확히 갈라내어 낡고 반동적인것은 버려야 하며 진보적이고 인민적인것은 오늘의 현실과 로동계급의 혁명적요구에 맞게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합니다.》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평가하여 진보적이며 인민적인것과 낡고 반동적인것을 정확히 갈라내며 낡고 반동적인것은 버리고 진보적이며 인민적인것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 로동계급의 혁명적요구에 맞게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이 가르치심은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주체적인 립장과 태도를 전면적으로 규제하고있는 고전적명제이다.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평가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력사주의적원칙과 현대성의 원칙, 로동계급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여기에서 허무주의적경향과 복고주의적경향을 엄격히 경계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지난날의 문화유산은 그것이 창조된 당시의 시대력과 련관속에서 보아야 하며 이러저러한 제한성이 있다고 하여 허무주의적으로 대하지 말아야 한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시였다.

지난날의 문화유산에는 그것이 만들어진 력사적시기에 산 사람들의 생활처지와 의식수준이 반영되어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오늘의 견지에서 보아서 용납될수 없는 시대적제한성, 계급적제한성이 불가피하게 있기마련이다.

일제강점시기에 우리 인민이 부른 노래는 거의 다 슬픈 감정으로 일관되어있다. 이러한 노래가 혁명적으로, 락천적으로 살며 일하는 오늘 우리인민의 생활과 감정에 맞을수는 없는것이다. 또한 옛날의 그림을 보아도 대부분이 인간생활은 취급하지 않고 주로 꽃이나 산, 구름, 기러기, 병아리, 나비같은 자연을 묘사하는데 치우쳤으며 인물화인 경우에도 봉건통치배들은 곱게 미화하여 그리고 인민대중은 못나게 천스럽게 그렸다. 이러한 식의 그림이 사람 중심의 주체사상이 구현되고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된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수 없다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난 시기 력사의 산물이다. 력사적건지에서 보면 구슬픈 노래는 일제의 식민지노예로, 수난을 겪던 우리 인민의 슬픔과 울분의 감정을 그대로 반영한것이며 봉건시대 그림의 제한성도 화가들로 하여금 사회생활을 진실하게 그리지 못하도록 여러모로 제한하고 압력을 가한 봉건통치배들의 횡포와 관련되어있는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오늘의 건지에서 제한성이 있는 문화유산이라 하더라도 허무주의적으로 부정하지 말아야 하며 력사주의적원칙에서 옳바로 평가하고 계승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지난날의 문화유산을 덮어놓고 그대로 이어받아서 안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작에서 우리는 민족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는데서 허무주의를 반대하는 것과 함께 지난날의것을 덮어놓고 다 그대로 살리려는 복고주의적경향도 철저히 반대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지난날의 민족문화유산이 력사적시대의 산물이며 민족적특성이 구현되어있다고 하여 제한성을 보지 않고 덮어놓고 그대로 살리면 지난날의것을 과대평가하는데로 나가게 되며 낡고 반동적인것이 되살아날수도 있다. 여기에서 민족문화유산을 대하는 데서 력사주의적원칙과 함께 로동계급적원칙을 철저히 지킬데 대한 요구가 제기된다.

우리는 로동계급의 계급적립장에 확고히 서서 지난날의 문화유산을 정확히 평가하고 낡고 반동적인 것과 진보적이고 인민적인것을 옳게 가려내야 하며 낡고 반동적인것은 버리고 진보적이고 인민적인것만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 계승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또한 비록 민족적특성이 구현되어있는 민족적형식이라고 하여도 이전의것을 그대로 오늘의 문학예술에 옮겨놓는다면 그것은 현대 우리 인민의 감정과 시대적지향에 맞을수 없다. 원래 민족적형식은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다. 민족적형식은 오랜 력사적과정에 형성되고 시대와 함께 변화발전되어왔으며 오늘에 와서도 그러한 과정은 합법칙적으로 계속되

는것이다. 더우기 지난 모든 력사적시대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시대, 근로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당당한 주인으로 등장한 우리 시대에 와서 민족적형식도 웅당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혁신적으로 개조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작에서 지난날의 문학예술작품들을 새로 발굴하고 정리하는 사업을 힘있게 벌려 우리 나라 력사발전의 매 시기를 대표하는 작품들을 다 갖추도록 할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슬기롭고 재능있는 인민이며 단일민족으로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살아오면서 가치있는 문학유산들을 수많은 남겨놓았다. 그가운데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것들도 적지 않다.

문학예술작품 발굴사업을 잘 조직하여 고전문학 예술작품들과 1910년대, 1920년대의 작품들을 더 찾아내고 파괴된 유적들도 복구하여 문화유산을 풍부히 하며 매개 력사적시기 우리 인민의 생활과 감정을 반영한 대표적작품들로 민족의 력사를 풍만하게 엮어놓는것은 이 시기 문학예술부문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되였다.

로작에서는 더 많은 작품들을 찾아내어 출판하며 한문으로 된것은 번역하여주는 등 대책을 잘 세워 광범한 근로자들이 민족고전작품들을 널리 보고 옳게 리해하도록 할데 대한 문제, 권위있는 전문일군들로 국가심의위원회를 조직하여 그들이 당과 대중 앞, 후대앞에 책임지는 립장에서 민족문화유산을 정확히 평가하고 대책을 세울데 대한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작에서 이외에도 다른 나라의 문학예술에 대한 옳바른 립장과 태도를 가질데 대해서도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문학예술건설에서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자기 나라의것만 내세우고 다른 나라의 문학예술은 다 배척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 결코 아니다.

물론 주체적문학예술을 건설하고 발전시키는데서 마땅히 민족적인것이 위주로 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진 문학예술의 성과도 우리 인민의 감정과 구미에 맞게 받아들이며 주체적인 문학예술발전에 옳게 리용하여야 한다.

레를 들어 음악분야에서 악기를 쓰는 경우에도 우리의 민족악기를 위주로 하고 서양악기도 적당히 배합하여 리용하며 그것을 조선음악발전에 복종시켜야 한다.

민족적인것을 위주로 하고 그 특성과 우월성을 잘 살리면서 다른 나라의 문학예술에서 이루어진 성과를 우리의 비위에 맞게 받아들이고 소화하는것은 우리의 주체적문학예술을 세계 혁명적문학예술의 본보기로 계속 줄기차게 발전시켜나가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은 민족문화유산을 주체적립장에서 옹계 계승발전시키며 주체적인 사회주의적민족문화예술의 전면적개화를 이룩하는데서 참으로 커다란 의의를 가졌다.

로작에 밝혀진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문학예술실천에 빛나게 구현되었으며 우리 문학예술발전에서 가지는 그 거대한 의의와 생활력은 지난 25년동안 남김없이 과시되었다.

민족문화유산계승에서 복고주의적경향과 허무주의적경향이 철저히 극복되고 반만년의 오랜 역사적 과정에 창조된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문화 유산과 전통은 새로운 시대적요구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고있으며 우리 나라에는 주체적인 사회주의적민족문화예술의 일대 전성기가 찬란히 펼쳐졌다.

민족문화의 우수한 형식을 옹계 살려 현대적미감에 맞게 발전시킴으로써 서구적인 잔재와 틀이 완전히 가셔지고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혁명이 일어났다.

무엇보다도 우리 문학예술은 지난 기간 민족문화유산의 최고봉을 이루는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대를 이어 변함없이 순결하게 고수해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문학예술은 지난 기간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소설과 가극, 연극, 영화로 옮기는 사업을 줄기차게 밀고나감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본보기적작품들을 창조하였다. 특히 가극분야에서 오래동안 내려오던 유럽식가극의 종래의 틀을 대담하게 마스고 민족적정서가 차넘치는 절가와 방창에 기초한 새로운 《피바다》식가극을 창조한것은 그 대표적실례로 된다.절가와 방창에 기초한 새로운 《피바다》식가극을 창조한것은 그 대표적실례로 된다. 가극뿐이 아니다.

문학분야만 하여도 민족적특질이 뚜렷한 주체형의 인간성격을 형성하는데 지향된 구성형식이 탐구되고 총시 《불멸의 력사》를 비롯한 독특한 소설형식이 창조되었으며 전통적인 민족시가의 운률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살린 명가사들이 수많은 창작되었다.

영화분야에서는 민족적특성이 뚜렷이 산 우리 식 영화가 창조되어 세계영화계를 뒤흔들어놓았으며 연극분야에서는 《성황당》식혁명연극이 탄생되어 연극발전의 새 시대가 펼쳐졌다.

민족음악을 위주로 하는 주체적음악과 민족적춤형식을 살리고 소품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 식 무용예술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였다. 조선화를 기본으로 하고 수령, 당, 대중의 통일을 조형적으로 형

상한 혁명적기념비조각으로 특출한 우리 식의 미술이 일대 전성기를 장식하고 민족적특색이 진한 주체적인 교예와 우리 식 건축예술이 발전하여 우리 조국을 찬연히 빛내고있다.

혁명소설과 혁명영화의 출현, 《피바다》식가극과 《성황당》식연극의 탄생, 주체적 무용, 음악, 미술 등 이 모든것은 항일혁명문학예술전통의 빛나는 계승이였고 문학예술창조의 전기간에 이룩한 귀중한 결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고전적로작에서 밝혀주신 사상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또한 수많은 귀중한 문화유산들이 새로 발굴정리되고 우리 민족문학예술의 력사는 새로운 가치있는 자료들로 풍부화되었다.

고려시기와 1910년대, 1920년대 작품들을 비롯하여 방대한 량의 문학작품유산이 새로 발굴되고 평가정리되어 출판되었다. 각각 백여권의 규모로 간행되는 《조선고전문학선집》과 《현대조선문학선집》에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적과정에 창조한 우리 인민의 귀중한 문학예술유산가운데서 매 시기를 대표하는 가치있는 작품들이 풍부하게 편집되고 있으며 각종 작품집, 문집들이 많이 출판되었다. 새로 발굴한 작품자료들을 포괄하여 우리 문학의 발전력사를 보다 폭넓고 깊이있게 서술한 새로운 문학사들이 나왔다. 500여권에 달하는 방대한 량의 《조선봉건왕조실록》이 전면적으로 번역출판된것을 비롯하여 수많은 민족고전물들이 새로 발굴연구되고 출판되었다.

대성산의 광법사와 남문, 묘향산의 만세루와 무진리의 정릉사를 비롯한 여러 고적들이 원상대로 복구되었으며 우리 민족의 원시조인 단군의 유골이 안치된 단군릉을 비롯하여 동명왕릉, 왕건릉 등 력대건국시조의 왕릉들이 웅장하고 특색있게 개건되어 유구한 민족의 력사를 자랑하고있다.

이상의 몇가지 사실들만 놓고보아도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지난 25년동안 민족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는데서 얼마나 거대한 성과가 이룩되었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민족문화유산에 관한 주체적문예사상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 새롭게 심화발전되었으며 그것은 자주시대 인류문학예술의 진로를 환히 밝혀주는 지침으로 되고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민족문화유산에 관한 주체적문예사상을 높이 받들고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민족의 력사를 더욱 빛내이며 주체적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찬연히 빛내어나갈것이다.

우리는 믿는다

진창우

아버지를 잘 알듯 그이를 잘 알기에
어머니를 잘 알듯 그이를 잘 알기에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
그이만을 우리 믿는다

그이와 손잡고 걸어온 세월
품에 안아 보살펴주시고
삶을 빛내여주신 그 나날들에
우리 그이께 정이 들고 매혹되었어라

아 험치 않은 세월에 우리 살아
바람인들 그 얼마나 세쳤으며
눈비인들 그 얼마나 사나왔고
길인들 그 얼마나 험했던가

우리는 잘 안다 그이의 담력
우리는 잘 안다 그이의 예지
그이 아니시면
우리 벌써 집을 잃고
황막한 광야에 모래알처럼 흩어졌으리
포악한 제국주의의 희생물이 되어
력사의 거지가 되었으리

그이 아니시면
슬픔의 그 순간에 캄캄하던
저 하늘이 다시 열리지 않았으리
천년을 울고 만년을 울어도
우리의 눈물은 마르지 않았으리

그이 계시어

눈물을 닦던 손으로
창조의 불꽃을 다시 날렸고
힘과 용기를 안고 다시 일어나
그이의 심장에 우리의 숨결을 합쳤거니

김정일 동지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바로 이분이
인민의 어버이이시다
마음속에 제일 가까우신 바로 이분이
우리 운명의 하늘이시다

보통날에 받든분이 아니기에
아침에 저녁에 부르는 노래에도
7천만의 마음을 하나로 담았다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고
당신만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고

우리는 더 높이 모셨다
더 부강해질 래일의 조국을 보고있기에
더 위대해질 우리 인민의 모습을 보고있기에
사회주의운명을 알고있기에
우리는 스스로 높이 받들었나니

아, 인간으로 위대하고
령도자로 위대하신 **김정일** 동지
그이의 손잡고 가는 찬란한 미래를
우리는 믿는다
그이 이끌어가는 영원한 승리를
우리는 믿는다!

축원의 노래

쓰. 쉼렌자브

조국통일을 위한 그이의 성업은
반드시 훌륭히 실현되리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력사에 금문자로 새겨지리

인민의 희망이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

조국을 위한 그이의 마음
예지의 호수이라네

주체학설의 심화발전은
그이만이 하실수 있는 일
천리마의 속도로
승리로로 이끄시네
인민의 희망이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
조국을 위한 그이의 마음
예지의 호수라네

(필자는 몽골조선친선협회 부위원장임)

푸른 들

김호석

비육분조 사료채취공 천옥녀는 바지런하고 재간 있는 녀자다. 해뜨기전에 아침먹이풀을 해다놓은 그는 어느새 재봉기에 마주 앉았다. 짹짹이 남의 바느질까지 해주는 그였다.

《다르릉, 다르릉, 다르르릉-》

연두색 바탕에 목란꽃무늬가 박힌 수천이 재봉바늘밀판우에서 꼬리치마형태를 이루어간다. 재봉기 소리에 반주나하듯 부엌에서는 기타소리가 쿵작거린다. 허지만 옥녀의 생각은 판데 가있었다. 줌전에 마을앞길에 《전진호》를 세워놓고 먹이풀을 하고 있을 때였다. 뒤에서 자동차소리가 난다했는데 《귀남 예미, 수고하누만.》 하는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리었다. 이사짐을 실은 자동차착제함에 앉은 엄술렵아바이가 빙그레 웃고있었다.

작업반세포비서를 하다가 나이들어 그만두었는데 령너머 아들네가 모셔가는 길이었다. 아바이는 머리를 끄덕해보이며 떠나갔다. 그 모습을 바라보느라니 옥녀의 마음은 젖떨어진 아이처럼 허전해졌다. 하긴 그것은 아바이가 비서를 그만둔 석달전부터 줄창 느껴오는 감정이었다. 새로 된 원웅남비서가 서먹하고 정이 붙지 않으면서 그 감정은 더해졌다.

《수고하시누만요.》

옥녀는 《아이 깜짝이야.》 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원웅남비서가 웃으며 서있었다. 무뚝뚝해보여도 친정아버지같이 믿음이 가던 엄술렵비서에 비하면 너무도 젊어 인생의 다반사를 모르는 풋내기 같아 보이는 원웅남이었다.

《엄술렵아바이가 떠나시더군요.》

아바이를 바래우러 나왔었는지 그는 묻지도 않는 말을 먼저하며 무저놓은 풀망태들을 차우에 올려놓았다.

《봐두어요, 웃버리지 말구.》

옥녀는 비서먼저 나머지것들을 냉큼냉큼 들어올리며 만류하였다.

《춘영이 어머니 사료채취나 하긴 아까와요. 처녀때 유명한 사양공이였구 리상이 대단했다던데.》

《호, 리상은 무슨. 젊어서 고만한 공상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라구요.》

하며 옥녀는 시들히 웃어보이였다. 원웅남비서는 어서 들어가 아침 잡수라는 말을 남기고 유치원선생네 집쪽으로 향했다...

(내가 왜 새 비서를 푸접없이 대했을까.)

옥녀는 자신을 꾸짖듯 재봉기발누르개를 힘껏 밟았다. 재봉바퀴가 바람을 일쿠며 고속으로 돌아갔

다. 갑자기 실이 툭 끊어져나갔다.

《춘영아, 밥상 안차리구 뭘 덩당거리니.》

옥녀는 그게 기타소리타이거나 한듯 소리쳤다. 춘영이는 새초롬해서 기타를 벗어놓았다. 퇴적장을 손질하던 장룡운이 들어오며 딸의 어깨를 다독여주었다.

《저녁에 런습해보자꾸나.》

그리고는 바깥에 돼지물을 퍼담았다. 춘영이도 말없이 밥담을 차비를 하였다. 요새 귀남오빠때문에 속썩는 어머니의 심정을 춘영이도 알고있었다.

어머니는 오빠의 대학입학문제가 틀어질가봐 신경을 쓰는데 오빠는 무엇때문인지 새 비서와 엇서면서 납청물동골로 소방목을 가버렸던것이다. 그밖에도 어머니는 또 아버지 일로 머리를 앓고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이일 저일 신경을 쓰며 기분상해하는것을 알고는 될수록이면 집안에서라도 그의 기분을 돌구어주려고 무척 애를 쓴다.

장룡운은 딸에게 한눈을 찡긋해보이고나서 바깥에 나가 부엌문을 나섰다.

《남이 보면 웃겠어요.》

이때 그먼저 퇴마루를 내려섰던 옥녀가 바깥에 손잡이를 쥐며 말하였다.

《웃으면 뭐라고. 바가지만 굵지 말구려.》

룡운은 이까짓게 대수냐는듯 웃으며 바깥에 나가 서 있었다.

《미안해요.》

《됐다니까. 어서 마저하구려.》

일 다니는 사람한테 날밤은 옷감을 가져오면 어떻게 해내느냐고 짜증을 부리던 안해가 아예 제치기라도 하면 어쩔가 조심하는 룡운이었다. 그는 돼지와 개물부터 주고 작은 짐승들을 돌보았다. 담장에 잇대여 쇠살창을 한 토끼우리에 민들레를 넣어 주니 흰토끼들이 바람탄 숨뭉치같이 우르르 밀려오며 헤엄빈다. 저들도 당당한 이 집 식구라는듯 액액 거리는 게사니와 오리의 먹이를 주고 닭장문도 열었다. 검정개는 벌써 배가 불쑥해서 꼬리를 저으며 룡운이 앞으로 다가왔다.

이때였다. 주인을 찾는 고운 목소리가 대문간에서 나더니 앙바툼하게 생긴 처녀가 들어왔다.

어느새 밖을 내다보았는지 안해가 반색을 한다.

《오, 유치원선생. 얼른 와서 입어봐요.》

《다 됐어요? 수고하셨군요.》

《이제 뭘가봐 새벽부터 온 집안을 들볶아. 춘영이 아버지가 짐승시중한다고 홍보지 말아요.》

옥녀의 어조에는 남편과 딸에 대한 사회의 감정

이 따듯이 배여있었다. 새서방 맛을 행복을 앞에 두고 똥똥 떠있는 교양원은 그런데 마음쫄 계제가 못되는듯 얼른 신을 벗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사르륵 사르륵 옷입어보는 소리가 나더니 《야, 어쩔!》 하는 탄성이 들렸다. 때맞추 비쳐드는 아침해살에 새옷 입은 교양원의 얼굴이 달덩이처럼 환하게 보이었다. 목이 바름하고 키가 작아서 새옷을 지어입어도 옷맵시가 없었는데 무슨 재간을 부렸는지 처녀는 선녀처럼 날씬한게 금시 날아갈것만 같았다.

《거기 가서두 유치원선생을 하나?》

옥너는 첫날옷을 입고 노상 방글거리는 처녀를 이리저리 둘러세우며 옷맵시를 봐주고 실밥을 때주며 물었다.

《글쎄요...》

《하긴 너자란 시집가면 다야.》

옥너는 서글픈 어조로 말했다. 엄술렵아바이가 이애가 머리 좋고 동심이 있는 애라고 하면서 교양원으로 키우기 위해 애썼는데 시집을 가면 다겠구나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이윽고 교양원은 모이 쫓는 닭무리를 화르르 풍겨놓으며 종종 걸음쳐갔다. 그러다가 대문가에서 춘영이를 손짓해 불렀다. 영문모르고 따라나갔던 춘영은 발췌거리며 하얀 새끼염소를 안고 들어왔다.

《유치원선생네가? 도루 갖다드려라.》

옥너가 소리쳤다. 《왜요? 오빠가 좋아할텐데.》

《무슨 말이 많니. 갖다주라면 갖다줄것이지. 그건 이미 점찍어놓은 임자가 있다더라.》

아직 비가 적은철이어서 풀이 성하지 못하였으나 납청강기슭의 사료전에는 기름이 자르르 도는 비름이 흐드러졌다. 옥너는 책임량을 오전에 해치우고 귀남이가 시험치러 가게 되면 입힐 옷을 지으리라 걱정하였다. 이제는 아들딸의 뒤시중이나 잘해내세우고 그것들이 잘되는데서 락을 찾는 옥너였다.

부지중 그의 입에서 한숨이 새어나왔다. 한생이 그리도 덧없을가. 정말이지 처녀시절에 옥너의 꿈은 남달리 크고 아름다웠다. 진지끓네 반지끓네 밥질놀이 재미나던 때부터 싹튼것인지도 모른다.

그는 어릴 때부터 집승을 무척 사랑했다. 누가 조가비 《가마》에 집승을 흙으로 빚어 《고기국》을 끓인다고 하면 양탈을 부려서라도 꺼내고 《냉이국》을 끓이곤하였다. 흙으로 만든 집승에 속새풀 뿌리로 털을 돋히고 굴레까지 달아주었었다. 그 소년자가 자라서 전문학교에 다닐 때에는 남들이 모르는 먹이풀과 약초를 대단히 많이 알고있어 《풀박사》 소리를 들었다. 그는 다양한 그 풀들의 물리화학적조성과 동물생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리라 결심했었다. 그랬건만 운명의 회룡으로 꿈은 풍지박산이 되고말았다. 그것은 농장에 나온지 이태째 되는 해의 일이었다.

...먼산 읍담엔 아직 흰눈이 희뜩희뜩 보이는 3월이었다. 옥너는 양떼를 물고 방목장으로 나가고있

었다. 강기슭의 개지꽃이며 냉이, 묵은 일을 헤치고 올라온 잔디순을 본 양들이 느침을 흘리며 흠뻑 지려 하였다. 옥너는 하모니카를 꺼내 물고 새된 소리를 내었다. 양떼가 다시 정연해졌다. 양들은 강물 위에 나지막하니 건너놓인 나무다리에 들어섰다. 닭알같은 자갈이 깔린 강물에서 꼬리치며 유희를 하던 잔고기들이 때아닌 발구름소리에 놀라 삼시에 돌밀으로 숨어들었다. 수면우엔 푸른하늘을 거꾸로 서서 또각또각 걸어가는 양무리의 모습만 그림처럼 비끼었다.

참으로 보람있는 꽃시절이었다. 꽃시절에 보는 산천은 다 정다운것인가. 양들이 마시는 츤령바위 밑의 웅달샘이며 젖이 흐를듯 기름기도는 풀과 나무잎이 무성해질 산골짜기마다가 평생을 살고싶도록 유정하다. 옥너는 알릴듯말듯 물안개 떠도는 강물속에서 채찍을 켜 처녀가 마주 올려다보는것을 발견하고 방긋 웃었다. 이때 무언지 영치를 쿵 찌르는바람에 옥너는 물에 곤두박질번하였다. 등골이 췌늘해서 돌아보니 배가 남산만한 점백이가 머리로 들이받고는 옥너를 뺨히 올려다본다. 해마다 삼태자만 낚아주는 보배덩이인데다가 옥너의 연구대상이여서 남달리 사랑을 받는놈이었다.

《오저 버릇없이.》

옥너는 지분거리는 점백이의 주둥이를 하모니카로 건드리며 웃었다. 점백이도 마주보며 웃었다.

《오호호- 매해해.》

푸른 하늘이 곱게 비긴 수면우로 랑랑한 웃음소리가 구울러가며 메아리를 일으켰다. 이때 벼락이라도 치듯 《우당탕- 탕》 하는 소리가 났다. 방목장에 후방물자를 싣고 왔던 트랙토르가 다리끝에서 랑각수를 넣다가 길을 비키느라고 서두르는것이였다. 나무다리는 발동기가 일으키는 진동에 우르르 떨리였다. 앞서가던 애기양패들이 겁을 먹고 돌파서 뛰였다. 뒤에 섰던 큰것들은 어쩔사이없이 밀치락재치락하다가 강물에 떨어졌다. 옥너는 악소리를 지르며 물에 뛰어들었다. 강물은 살을 도려내는듯 찼다. 옥너는 가까스로 점백이를 따라잡았다. 다음일은 옥너도 몰랐다.

정신을 차렸을 때 눈에 들어온것은 김이 문문나는 넓은 잔둥이였다. 다음은 굵은 목덜미와 멋지게 물결쳐내린 머리카락, 연한 디젤유냄새...

트랙토르운전수 장룡운이 억센 팔로 옥너를 꼭 죄여업고 달리고있었다.

옥너는 두달나마 병원신세를 지고야 심장기능장애를 이겨냈다. 후유증으로 채찍을 켜수는 없었다. 룡운은 옥너의 어머니에게서 《고드름장절임같은 녀석, 병주고 처녀를 달래》라는 등 별소릴 다 들으면서도 종내 옥너와 결혼하였다. 옥너는 앞으로 몸이 좋아지면 방목공을 다시 하기로 하고 룡운을 따라 소재지마을로 내려왔다. 귀남이가 태어나고 이어 춘영이를 낳았다. 춘영이를 낳은지 닷새만에 밤

참을 들고 나갔던 옥너는 뜻밖의 일을 저질렀다. 이튿날을 밝힌 남편이 써레질하던 차우에서 조는것을 보고 눈물에 뛰어들었다. 심장이 약한 녀자가 해산 직후에 찬물에 뛰어들것은 제 발등을 제 도끼로 찍는것이였다. 그리하여 옥너의 희망은 납청강물에 실려 천리만리 흘러가버리고말았다. 이제 와서 다시 찾아올수 없는 그 꿈을 귀남이라도 쫓아올수 있게 한다면 한이 없겠다. 귀남이는 외락을 했는지 짐승을 좋아했다. 중학교때 축산대학엘 가겠다더니 군대바람에 나타나다가 마당밭때문에 계도 구럭도 다 놓치고말았다. 이제 앞길을 열어주자면 어떻게 하든지 일하면서라도 공부를 시켜야 하였다.

그런데 원웅남비서가 어쩐다는건 무슨 소리인가. 축산을 전공하면 모내는 운전공을 떼올가봐? 하긴 남편을 붙잡아두는걸 보면 사람욕심이 있는 일군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옥너는 애초부터 원웅남비서에게 정이 가지 않았다. 전 세포비서 엄술렵아바이를 친정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던데서부터 오는것인지도 모르겠다. 아니아니하던 불안이 현실로 되어 옥너네 집문턱을 넘어서는 날이 왔다.

모내기 시작을 앞둔 어느날 비서하고 기계정비를 하던 귀남이가 얼굴이 말박만해서 투덜거리며 들어오던 시각부터였다.

《제가 뭐길래. 누가 저더러 시험쳐달랬나.》

이것저것 떠보던 비서가 그런 실력 가지고는 대학소릴 하지도 말했다는것이다. 옥너는 비서가 했다는 말이 지난 5.1절 때의 일과도 관련되리라 짐작했다. 그날 작업반대항 배구경기에서는 귀남이가 판을 쳤다. 5회전까지 올라간 경기의 승패는 한번의 성공과 실수에도 크게 달려있었다. 저쪽에서 묘하게 깎아서 치널기한 뿔을 원웅남비서가 가까스로 받아 다른 선수에게 주어 높이 띄우게 하였다. 왼손강타가 위력한 비서는 상대방의 공간을 노리고 도약할 자세를 취했다. 이때 《와두라-》 하며 벼락같이 뛰어나온 귀남이가 강타할듯 기만하고 살짝 밀었다. 성공! 응원패들이 떠파고아대며 환성을 올릴 때 옥너는 비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귀남이의 행동이 무례하였던것이다. 그랬던데다가 수령은 기계모때문에 귀남이가 콧지않게 굴었다니 그럴만도 하다...

옥너는 한숨을 호 불며 동독에 선 살구나무임을 주르륵 훑었다. 그는 별안간에 치밀어오르는 화중머리를 귀남이에게 돌려버리었다.

《그만큼 철들라고 일렸는데 짜지 짜-》

《누굴 욕해요?》

살그머니 등위로 다가서며 말을 붙이는건 앞집 송이였다.

《간떨어지겠구나. 발자국소리나 좀 낼게지.》

옥너는 이마를 찌프리며 말하였다.

《날아왔게 소리가 안났을가. 살구있도 돼지가 먹어요?》

옥너의 흐렸다밝았다하면서도 뒤가 없는 성미를 잘 아는 송이는 해물해물 웃으며 다가든다.

《먹든말든, 사양공이 뭘테냐?》

그래도 송이는 웃는다. 옥너는 부드러우면서도 속이 영근 송이를 내심 사랑하였다. 성장해가는 총각의 어머니로서 알뜰한 처녀에 대한 애정을 품고 바느질도 해주곤하였다. 그래서인지 송이가 입는 옷이라면 작업복은 작업복대로 활력이 넘쳐나 보였으며 나들이옷은 그것대로 이슬 머금은 나리꽃처럼 청초한 자태를 돋구어 못치녀들의 부러움을 자아내게 한다.

《유치원선생네 새서방 왔어요. 옥종가라던지. 그 언니 유치원때부터 감또라지 한알이 호박만하게 만드는 사람하구만 한다더니. 색시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커요. 색시 고와할 형이라나. 비서가 소개했대요.》

《부러운거로구나. 너두 거기 소개해달랴?》

《어마. 갈바엔 왜? 정든데서 정든 사람 만나 살지. 참 색시 치마저고릴 해주었지요? 사람마다 색시 이빠졌대요. 옷이 날개라면서.》

《그만해. 너 왜 여기까지 따라나와 사설질인지 내 다 안다. 암만 그래야 모자만들센 없어.》

《아야, 래일 들놀이에 못쓰고 가겠네. 할수 없지 뭐. 그래두 나 여기 좀 있다 갈래.》

《퇴직장 손질하는 날이라문서. 너넨 안하니?》

옥너의 물음에 송이는 입을 비죽하고 속삭인다.

《비서가 파요. 우리 아버지가 그네발디디개 만들 줄 안다고 손바꾼다나. 래일 씨름두 하구 그네두 편대요. 준비를 우리 반에서 맡았다던지. 거기다가 씨름준비까지 돌보느라구 비서가 땀빠요.》

옥너는 잔시름 가득고인 가슴속에 돌맹이 하나가 떨어져 물결을 일으키는듯하였다. 놀음놀이에는 관심이 큰 비서가 귀남이의 운명문제는 어쩌서 외면할가. 나이 오십이 된 남편더러 씨름판에 나서라는거나 말하고 기타2중주를 하라고 따라다니는 절반만이라도 생각해주었으면. 하지만 내색은 않고 탄말을 하였다.

《야, 새 비서 뒤가 길다는게 무슨 소리인가?》

송이는 동실한 어깨우에서 쏙 뽑힌 하얀 목을 까딱까딱하며 대답하였다.

《우리두 물랐는데 사로청생활총화때 〈동무들이 청춘시절을 어떻게 보내는가 두고볼테요. 난 원래 뒤가 긴 사람이니까.〉 하잖아요, 글썸.》

《그게 무서워서 피하는 동작이구나.》

《어제 망신해서 그래요. 휴식시간에 비서가 록을 기를 틀어놓으면서 룰동체조를 배워달라겠지요. 동무들이 떠밀어서 내가 나섰었는데 어찌나 눈치가 발바닥인지 술한 사람 웃겼어요. 서너번만에 〈이젠 알았어〉 하고 동작을 하는데 얼마나 멋들어졌어요. 우린 속은게 분해서 달라붙어 두들겨쳤어요. 비서는 〈종단말이야. 오늘은 처녀들 맛이 나거

든. 그렇게 문화정서적으로 살아야지 뜨개질이나 하구 앉아서야 늙은이하구 뭐가 달라. 아이어머니만 되면 아주 로친네티를 낼걸.) 하잖겠나요. <일이 힘들지 않구 일터가 흥성거리게 하니 얼마나 좋아.> 퇴근할 땐 나보구<송인 리상이 낮아. 남이 가르친 춤만 출텐가. 우리 생활을 가지구 안무도 해보라구.> 이래요.》

송이가 말은 비뚤어지게 하는것 같지만 새겨보면 다 비서 좋다는 소리였다. 옥녀의 가슴은 더 심란해지기만 하였다.

《아차, 네바람에 독풀이 들어갔구나. 어서 가. 모잔 들놀이때 쓰게 저녁에 해줘.》

옥녀는 돼지풀그릇에 섞여들어간 파리약풀을 골라내며 역증을 냈다. 그러거나말거나 송이는 들놀이때 고운 모자가 생기게 되어 손벽을 짹-치며 돌아섰다.

처녀시절 꽃시절 웃음도 많아...

춤추듯 허리를 꼬며 뛰어가는 송이의 뒤모습을 옥녀는 부드러운 눈길로 바라였다.

(좋은 때로구나. 실컷 즐기고 일해라. 열흘 붉은 꽃 없단다.)

점심참에 들어온 옥녀는 선풍기부터 틀어놓고 이것저것 집안을 거두었다. 창문에 드리운 휘장을 제끼던 그의 눈길은 웃켄 벽에 걸린 액틀속의 사진에 가 멎었다. 날아갈듯한 옷차림으로 만경대꽃동산에 찾아가는 소년소녀들의 모습이 찍힌 사진이다. 어린 배우들의 화려한 날개옷을 옥녀가 지었다. 처음에 옥녀는 제 자식이 끼인 사진도 아닌데 하고 심드렁해하였다. 자기에게 올것이 아닌걸 엄비서가 증관을 해서 가져왔다는것을 알고는 더욱 그랬다. 찾아오는 사람마다 류다른 그 사진에 눈을 주게 되었고 날아갈듯한 아이들의 그 옷이 옥녀의 손끝에서 만들어졌다는것을 알고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날이 감에 따라 옥녀는 은근한 자부심을 가지고 사진을 대하였다. 자기가 하는 일이 죽지부러진 날새의 몸부림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것이라는 의식이 들기 시작했던것이다.

엄술럼비서는 정말 고마운분이였다. 해산후 제불찰로 병을 얻은날 젊은 아낙네가 주책머리없이 망령을 부린다고 꾸짖던 툇한 목소리는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룩미환》이랑 구해다주며 애를 쓰더니 몸이 추서기 시작하자 재봉기를 저다주었다. 하는 일 없이 세월을 보내면 없던 병도 생긴다는것이였다. 오색기를 만든것이 첫바느질이였고 다음에 저 무대의상을 지었다. 그렇게 한두가지씩 만드는것을 보고 걸음마 때는 아기를 대견해하듯 빙그레 웃던 아바이의 모습도 사진속에 있는것 같았다. 그가 늙지 않고 비서를 했다면 귀남이의 쫓돌거리리는 버릇을 툇 때 주교도 대학은 대학대로 힘써주었을것이

아닌가.

《귀남이 어머니 있나요?》

옥녀의 명상을 깨뜨리며 대문으로 들어서는것은 원웅남비서였다. 그는 길쭉한 얼굴에 부자연스러운 웃음을 짓고 휘적휘적 다가왔다. 옥녀는 공연히 가슴이 후두두 떨려서 가만있었다. 비서는 토방아래 선채 말하였다.

《잔치집에서 첫날옷 잘했다구 좋아들 하더군요.》

옥녀는 비서가 할말이 있으면 어서 했으면싶어 대답을 안했다. 할말이라야 나가서 김이나 매자는 거겠지. 이제라도 논란에 뛰어들어 하하 웃으며 모내고 김멜 생각이 하루 열두번 나군한다는걸 알지도 못할테니까. 그런데 비서는 송이와 다름없이 바느질감 부탁하러 왔다.

《저 귀남이 어머니, 살바를 하나 부탁하자요.》

옥녀는 비서가 사정하는듯한 표정을 짓고 말하는 데 다소 놀랐다. 그의 숨벽거리리는 눈을 마주하는 순간 부실한 자식을 둔 자신의 편협한 모성애가 애꿎은 사람 원망하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허지만 마음과는 달리 《오늘은 바쁜데요.》하는 말이 입술끝에 맺혔다 떨어졌다.

《바쁘시다면 할수 없지요.》

오히려 제편에서 미안해하는 비서앞에서 옥녀는 웅색해졌다.

《저 잘 못만들었다고 탓하지시지 않겠는지...》

옥녀가 이렇게 말하자 비서는 빙싹 웃으며 방안에 들어왔다.

《됐군요. 래일 씨름이 기본인데 살바가 다 삭았더라말입니다.》

옥녀는 좋아하는 비서를 보고 혀가 풀려서 이러이러하게 만들면 되는가 몇마디 건넸다. 비서는 얼른 일어설 차비가 아니였다.

《참 유치원선생 좋은데 간다지요?》

옥녀는 말끝에 입술을 깨물었다. 떠보는 말같이 서였다.

《그앤 등질 털구 날아야 할 사람입니다. 수재형인데 유치원마당은 너무 좁지요. 두루 알아봤더니 정주 과학원본원에 좋은 총각두 있구 교양원자리두 있어서 나섰는데 시어머니 뉘분이 처녀 인물없다고 머리를 짓는 바람에 팍팍다니까요. 히.》

옥녀는 《오 그래요.》 하며 고개를 연방 주억거리였다.

비서가 그런 생각도 할줄 아는 사람이구나 해서였다. 그러자 이야기는 한결 순조로워졌다. 비서는 자기네 돼지가 날풀을 잘 안먹는다는 소리로 해서 계사니를 새끼때 두마리나 죽였다는 등 짐승기르는 데로 말머리를 돌리였다. 옥녀는 계사니를 너무 어릴 때 물에 놓으면 재미없다는것, 돼지에게 살구나 무있을 주면 날풀 먹는 버릇이 생긴다는것 하며 몇가지 조언까지 주었다.

《듣고보니 정말 짐승과 사료물계에 밝군요. 풀이나 뜯을 사람은 많아두 그렇게 전문지식이 풍부한...》

옥너는 본론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정색했다. 그러나 비서는 다른 말을 하였다.

《7반 비서가 그러는데요 귀남이가 거기 모내기를 도우면서 〈수령논바퀴〉를 성공했다지 않아요. 대학에 가서 배우면 큰 일군이 될겁니다.》

옥너는 그런 일 좀 도와달라고 말하고싶었으나 왜그런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비서는 말을 그치고 옥너를 이윽히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병고에 시달리는 자기를 지켜보던 본가집 어머니의 눈빛을 연상시켜 옥너는 눈시울을 내려깔았다.

《일만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

비서는 문득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옥너는 급히 따라일어서며 점심이나 들고가라고 권하였다. 비서는 자기도 퇴적장을 마저 손질해야겠다고 하면서 총총히 나갔다. 옥너는 긴장감이 풀려 문간에 주저앉았다. 이마 번두가 툭툭 뛰었다. 그는 지난날 자기가 괜히 좋은 사람을 잘못보아왔던 것 같애 가슴이 두근거리었다.

밖에서 무슨 기척이 났다. 남편이겠거니 했으나 대문은 열리지 않고 부스럭대는 소리만 났다. 옥너는 나가서 대문을 열다가 눈이 동그아졌다. 원웅남 비서가 아까 교양원이 가지고왔던 새끼염소의 고삐를 쥐고 서있었다. 비서는 주춤하면서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그 가식없는 표정을 일별한 옥너는 낮갓을 썼다.

《어떻게?》

《종자가 좋아서... 아주머니 손에서야 아무 짐승이고 잘 되지 않나요. 새끼 많이 쳐서... 교양원네 하구두 그렇게 의논이 맞았던겁니다.》

옥너는 발강게 달아오르는 얼굴을 수그리었다. 그런걸 모르고 난 괜히...

《부담될것 같으면 그만두시구요.》

옥너는 불교책으로 목구멍을 쿡 쭈시는것 같아 손을 얹은 목으로 가져다댔다. 이따금 부정맥이 나타날뿐 변함없이 나른하게만 뛰던 심장이 두드득 경련을 일으켰다. 이름할수 없이 야릇한 충동이 뭔가 잔뜩 가라앉았던 가슴 밑굽을 휘젓는다. 그는 어망결에 고삐를 넘겨받았다. 짐승에 대한 본능적인 사랑과 욕망이 저도 모르게 손을 내밀도록 하였던 것이다. 사실 교양원네 염소는 젖을 한번에 반바께 짜나 짜는 진종이여서 옥너도 탐내왔었다. 풀만 잘 골라먹이고 유방관리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더搾수 있을것 같다. 귀남이도 그걸 알고 눈독을 들였었다. 비서가 부탁했다고 해서 물려섰는데 이제보니 자기를 주려고 그런것이였다.

《고마와요.》

비서는 웃음이 얼굴에 가득차서 돌아갔다. 무엇이 고맙단 말인가. 참 가만 돌이켜보면 비서 그르다

할진 아무것도 없는데도 괜히 비서를 그르게 생각지 않았던가. 남편과 자식들에게 까닭없이 성을 내고나서도 이렇게 가슴쥐여뜯군한 옥너다. 얼썩얼썩 걸어나가는 비서의 자대바른 뒤모습을 일없이 지켜보던 옥너의 눈에 물기가 핑 돌았다.

저녁상을 물린 다음 옥너는 비서가 부탁한 살바를 재단하였다. 춘영이는 오빠의 독방인 건넌방에 가서 아버지와 기타2중주 연습을 한다. 오늘저녁은 기타소리가 싫지 않았다. 웬일인지 남의 사람 내 사람 다 정답게만 보이고 위해주고싶은 밤이다. 방금전에 다른 분조 방목공이 왔다갔는데 비서가 사탕발린 말을 한것이 아니였다. 그리고 귀남이가 공부를 어찌나 직심스레 하는지 황소 두마리가 뿔부러지도록 반개질하는것도 모르더라. 인차 교대해줄 소리들을 했다가 밤에는 내려옴죽하다. 옥너는 성수가 났다. 제격 재단을 끝내고 시침을 해나갔다. 들놀이 음식준비도 거의 됐다. 남편이 돼지갈비를 한짝 가져오고 춘영이가 떡가루도 봉아왔으니 다른것도 래일아침에 차려도 된다.

《춘영아!》

느닷없는 옥너의 부름에 기타소리가 툭 끊겼다.

《아버지 간식 갖다드려라.》

《간식이요?》 소리를 앞세우며 춘영이가 토닥토닥 뛰어온다. 건넌방에서는 《쳐너시절 쫓시절...》의 선율이 건드려졌다. 옥너는 딸앞에 닭알부침접시와 앵두같이 생긴 열매가 무드기 담긴 쟁반을 밀어놓았다.

《야 앵두! 웬거야요. 오빠가?》

《앵두가 아니라 이스라치라는거다. 양이 오줌 못눌 때 먹이면 좋은거지. 납청골 가운데산에 가면 한벌 깔렸어. 따발구름, 물괭다리, 벌배...》

《음- 됐어. 왜 거기서 살지 내려와가지군.》

《바늘 가는데 실 안가면 되니. 아버지 일터 멀구너희들 학교 멀어서였더라.》

옥너는 바늘을 머리카락에 문지르며 눈을 간잔조름히 뻗다. 홀러가버린 희망의 쪽빛동산이 거기에 있었다. 그럼고 못내 가고싶은곳이였다.

《음- 엄마 또 꿈꾸시네.》

춘영은 뭔가 말하려다 말고 바르르 뛰어나갔다.

...창가에 새벽빛이 푸르스레 물들 때 옥너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밤새 대문소리가 나지 않나해서 귀를 열어놓고 선잠을 잤던것이다. 건넌방 토방부터 내다보았다. 귀남이의 자전거가 와있지 않는가 해서였다. 하지만 거기서는 검정개가 기지개를 켜고있을뿐이였다. 보이지 않는 쇠집게가 머리를 죄이는듯 쭈시고 온몸이 나른했다. 그러나 들놀이 간다는 날까지 춘영을 부엌에 내려보내고싶지 않아 옷을 입고 나섰다. 남편이 따라나와 계사니도 뒤흔고 떡도 쳐주어서 아침상은 제대로 챙겨졌다. 실컷 자고 기지개를 하며 나오던 춘영은 《어쩔 우리 엄마 숨씨가!》 하며 지은 가살을 부리였다.

《노적 부리지 말고 송이네 집에 삶은 계사니알이니 한바가지 갖다주렴.》

춘영은 《예.》 해놓고도 가지 부시는 어머니를 도우며 귀간지럽게 속살거리었다.

《내가 비밀 하나 말할까?》

《젓비린내나는 계집애가 비밀은 무슨 비밀.》

옥너는 귀찮다는듯 더 말 못하게 하였다. 춘영은 그제서야 어머니의 기색을 눈치채고 수답본 나비처럼 흐르르 날아가버리었다. 아직도 안오는걸보니 귀남이 일은 다 틀렸구나 하는 생각때문에 침울해 있던 옥너는 심부름 갔던 춘영이가 들어서자 이상한 예감에 흠칫했다. 춘영이가 여느때 없이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얼른 말을 안하는것이였다. 따져물으니 진짜 기분나쁜 소식을 날라왔다. 어제 분조에서 귀남이 교대자를 택했는데 비서가 나타나서 자전거경기에 출전할 선수가 가면 되겠는가 하며 막아버렸다 한다.

옥너는 눈앞이 어질어질하고 아래도리가 매시시 해와 부엌바닥에 주저앉았다.

납창강 푸른 물이 굽이돌아 흐르는 앞남산 삼경골 바닥에서 들놀이가 시작되었는지 옥작복작 들끓는다. 팽창팽창 뽕리리- 농악소리 취주악소리 요란한데 갖가지 옷차림을 한 사람들과 기발들이 울긋불긋 엉켜돌아간다. 모내기전투의 피로를 풀고 새로운 전투에 진입할 농장원들의 사기를 돋구느라고 조직한 들놀이였다. 술한 사람들이 밀려간 행길은 이제 좀 한적해졌다. 몸집 좋은 색시 하나가 세발자전거를 탄 아이와 보조를 맞추면서 나타났다. 그네더에 초조한 눈길을 보내던 색시는 아이가 뒤떨어지는줄도 모르고 씨엉씨엉 걷는다.

《엄마, 같이 가자아.》

《응? 음, 건 뭘 타고오면서. 인다우.》 짧은 색시는 한팔로 아이를 걸어안고 다른 손으로 자전거를 건뚝 들더니 반달음을 놓았다. 꼬마의 등에 매달린 죄꼬만 배낭이 어떻게 되었는지 삶은 닭알이며 떡이며 엽가락들이 와라락 쏟아졌다. 옥너곁에 섰던 검정개가 쭈르르 달려가서 늘씬한 차떡을 년쩍물었다.

《엄마야, 저거-》

꼬마가 울상이 되어 소리쳤다.

《애개개, 이걸 어찌니... 지개.》

하며 개를 쫓던 색시는 발머리에 선 옥너를 띄여 보고 별썬 웃었다. 그리고는 주섬주섬 걸어서 배낭에 열추 집어넣고는 또다시 애를 재촉한다. 《까짓거 엄마 그네라고 하늘나라 갔다오면 별게 다 생긴단다.》

색시는 복상스레 웃으며 똥기적똥기적 달려갔다. 옥너는 그의 구김살 없는 웃음이 부러웠다. 식은 머리가 또 아파났다. 아침에 옥너는 남편의 체면을 봐서 부엌에 서있었다. 들놀이에 다들 떠나가자 잠깐 들어가누웠던 옥너는 돼지가 짹짹거리는 바람에

할수없이 다시 일어나 나왔었다. 마당에 있던 계사니, 오리, 닭, 수십마리가 덩달아 고아대며 발끝에 묻어 돌아간다. 때가 지나도록 먹을걸 안주는데 대한 항의시위인지. 옥너에게는 오늘처럼 프락이 좁고 답답해보인적이 없었다. 그래서 돼지고 닭이고 다 팽개치고 바자길에 나와섰었다. 머리는 그냥 무시고 맥박이 떠졌다. 감자포기 사이에 자란 능쟁이를 뽑아줄까 하고 앉았으나 감자댄지 풀댄지 분간이 안갔다. 옥너는 《에라 모르겠다.》 하며 일어서고말았다. 눈결에 보니 개바자를 휘감은 완두콩줄기에 손가락마디처럼 탱탱 붙어난 꼬투리들이 주렁주렁했다. 하나 따서 발가보았다. 비릿하면서도 향긋한 햇곡냄새가 코살을 간지럽히며 《어름이 왔소.》 아뢰는것 같다. 옥너는 서슴없이 완두콩줄기를 와락와락 걷어안았다. 내가 왜 이러니 하고 제정신으로 돌아와보니 귀남이가 완두콩밥을 좋아한다는 그럴듯한 구실이 생겼다. 저녁에라도 내려와주렴.

《짜르릉-》

등뒤에서 나는 자전거종소리에 옥너는 와뜰 놀랐다. 귀남이가 별썬 웃으며 자전거에서 내린다. 옥너는 이게 꿈이 아닌가싶어 눈을 비비었다. 틀림없는 귀남이였다. 며칠사이에 키도 더 크고 신수가 멀끔해진것 같다.

《어머니, 몸이 어때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나. 못온다더니.》

《비서가 교대 해줬어요.》

옥너는 무슨 소린지 얼른 리해되지 않았다. 교대자를 비서가 거절했다지 않았던가. 그런데 아들의 옷차림이 눈에 설다. 최신 유행을 따른 비서의 옷이였다. 그럼 비서가 거기에?!

《춘영이네 오빠!》

행길가 강냉이잎들사이로 빨간 띠를 맨 송이의 뒤꽂지가 휙 스치더니 저의집 앞으로 해서 바자길을 꺾어 들어온다. 빨강계 익은 얼굴에 땀이 송골송골 돌아다. 처녀는 자전거를 팔까닥 세우고 짐틀에서 책을 끄르며 말하였다.

《오산 단과대학엘 갔댜어.》

《응, 나때문에 수고했구나.》

귀남이는 알고있다는듯 놀이러쭈깐 바라본다.

《비서동무가 주는 편질 가지구가서 참고도설 빌려왔어. 공불 잘하라고.》

《너무 쑤서넣어서 골이 빠개지겠는데뉘. 오늘 자전거 좀 바꿔타자우.》

귀남이는 송이의 《갈매기》를 나꾸렸다.

《안돼. 오빠가 오후에...》

조금후에 따르고 쫓기우는 두 청춘의 모습이 납창강 다리우에 나타났다. 구름뒤에 숨었던 밝은해가 옥너의 얼굴에 눈부신 빛을 담뿍 뿌려주었다. (대학생만 되려마. 《갈매기》를 열두대라도 사줄게.)

이제 옥너는 주름살 하나 없이 웃을것 같았다. 사람들앞에 나서고싶고 아들의 사연을 자랑하고싶었다. 그가 삼경골에 갔을 때에는 작업반별 씨쿨경연이 끝나가고있었다. 트랙토르 적재함 네개를 무운 가설무대의 배경에는 김매기구호가 뚜글뚜글 씌여있었다. 취주악이 귀가 멍멍하도록 기세를 돋우고 방송차가 들썩한 소리로 여러가지 종목의 체육경기와 예술소조경연을 지휘하고있었다. 좀전에 남편과 춘영이의 기타2중주도 나왔었다고들 한다. 옥너는 남편 씨름하는걸 보고싶어 그쪽으로 갔는데 결승경기는 오후에 있다고 하여 그네터로 갔다. 그네에 몇명 올랐했으나 방울 차는 선수는 아직 없다고들 한다. 몸집좋은 아까 그 젊은 색시가 자신만만해서 그네에 올랐다.

《잠깐만?》

구경꾼들속에서 줄무늬 남방샤쓰를 입은 청년이 뛰어나와 그네대로 올라갔다. 심판을 서던 녀자가 소리치자 청년이 내려다보며 대꾸하였다.

《우리 색시 체중이 한톤이야요. 줄 끊어지면...》

와- 웃음이 폭발하는 소리에 구름장이 다 흠칫하는것 같았다. 옥너도 웃었다. 하지만 남들처럼 허리가 아프고 눈물이 어리도록 웃어지지는 않았다. 만단시름 다 풀렸는데 웬일일까?

수도가에 앉아 완두콩을 까던 옥너는 《매애애》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송아지만한 양이 채수염을 흔들며 마당에 들어섰다 목에 《3등》이라는 패쪽이 걸려있었다. 그제서야 옥너는 염소를 양으로 잘못보았음을 깨달았다. 뒤로 남편 동년배되는 남정네 한패가 우르르 들어온다. 거기 섞인 남편이 빙긋 웃으며 한눈을 찌뚱해보이였다. 옥너도 마주 웃어주었다. 저이가 아직 늙지 않았구나 해지는게 기분 좋았다.

《어머니, 우리 반이 1등이야요. 종합 1등!》

춘영이가 《종합 1등》이라고 쓴 쌍나팔록음기를 안고 들어오며 소리쳤다. 집안에 들어가앉은 남정네들은 체육두 춤노래두 다 1등인데 농사라고 3반한테 깔리우겠느냐고 사기가 나서 파따쳤다. 흰 고개에 오른 이들이 아이들처럼 장판에 엎드려 팔씨름이랑 하면서 승벽을 다투는것이 웃음을 자아낸다. 말끝마다 분조농사에서 한몫씩 한다고 옥옥하는것이 저절로 풍년질것같다. 옥너에게는 원웅남비서가 그래서 극성스럽게 뛰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결 더 높이 올라다보이였다. 그가 이판에 함께 와서 즐기지 못하는것이 서운했다. 집안에서도 가끔 《우리 비서》소리가 울려나온다.

《매애애-》

토끼우리 살창에 매놓은 염소가 운명을 예감했는지 애처롭게 울었다. 순간 옥너는 몸에 뻗던 노릿한 짐승내가 폐장으로 스며들며 피가 거슬러 흐르는듯해졌다. 남편이 숫돌물 푹푹 흐르는 식칼을 들고 부엌을 나서고있었다. 옥너는 치마폭에 찼던 완두

콩알이 흩어지는줄도 모르고 달려가 고삐를 잡았다.

《어쩌자고 그래요!》

마가울 땅고추처럼 뻗잔 소리였다.

《보면 모르겠소.》

장룡운은 퍼런 칼날을 머리카락에 쓱쓱 대보며 범상히 대꾸하였다. 허지만 속으로는 이거 일났구나 하는 자세였다. 안해가 저쯤 피역을 부리게 되면 세상없어도 돌려세우지 못한다. 성급하게 자기 의사를 강요했다간 귀중한 친선관계가 끝장난다. 언젠가 기분이 좋았을 때 《당신같은 응석반이가 날 만났으니 다행이지.》 했다가 《그럼 절 사랑해서가 아니라 동정해서 결혼했었군요.》 하고 서리기운을 풍기는 바람에 열흘나마 학질을 똥다. 그러니 친구들앞에서 어쩌면 좋담. 룬운은 상탄거라고 한마디 더 해보았으나 김빠진 사이다였다. 그제서야 옥너는 못사람들앞이라는 정황을 깨달았는지 말슴드릴게 있다고 하면서 굴뚝모퉁이로 잡아끌었다.

《미안해요. 허지만 울사람두 다 안왔는데. 우리 귀남이때문에... 양은 좀 있다 보지요.》

《오, 비서동무 뭇이야 한쟁기 내놓지 않으리. 그리구 이게 어디 양이요 염소지. 하하!》

룡운은 안해가 착각해서 그러는줄 알고 꺾꺾거리며 고삐에 손을 내밀었다. 옥너는 맑은 눈에 물기가 가랑가랑해서 애원하듯 말하였다.

《양이나 염소나 갈구 같은거지요. 우리 마당에선 그러지 마세요.》

《그럼 어쩌라오.》

그 말과 표정에서 옥너는 남편의 난감한 표정을 헤아릴수 있었으나 고삐만은 놓지 않았다. 한해 또 한해 지나면서 먼 뒤쪽으로만 물리가는 옛시절의 소중한 꿈이 고삐에 달려있는듯하였다. 남편의 극진한 사랑을 고맙게 여기다가도 그 꿈을 허술히 대하는 기색이 보이면 골목에 든 강아지처럼 사나와지는 옥너였다. 그걸 되찾을순 없다 해도 욕되게 할수는 더욱 없지 않는가. 한편 생각하면 염소 한마리쯤 죽이고 살리는데 그렇게까지 심각해질진 없을것 같지만 저렇듯 풍채좋은 숫염소를 불고기 해치우는 정녕 아까웠다.

《꼭 이걸 잡아야 할가요? 대신 오리와 닭을 잡아요. 한사람앞에 한마리씩.》

《야, 귀남이 어머니, 대략을 하는데!》

퇴창에 귀를 대고있던 집안사람들속에서 환성이 터졌다. 비가 오기 시작하였다. 비료독이 오른 곡식의 배속에 방치같은 이삭을 배게 하고 씨름군의 잔등에서 모래를 씻어주는 비라고 떠들며 사람들은 오리튀기와 닭고기회 추렴들을 하였다.

《어머니, 나 유치원에 나가래. 차차 대학갈 준비두 하구.》

그것은 춘영이가 자기의 작은 가슴속에만 묻어둘수 없어 안달아하던 《비밀》이었다. 귀남이의 새 옷에 단추를 달던 옥너는 《뭘?!》 하며 바느질손

을 멈추었다. 이게 무슨 행운인가. 너자는 시집가면 단데 음악이고 뭐고 걷어치우라고 찬물만 끼여어 온 옥녀에게 뜻밖의 《사변》이었다.

춘영이 재간있다고 얼마나들 부러워했으며 옥녀인들 딸의 그 재간을 뽐내 써주면 하는 마음이 왜 없었으랴.

텔레비죤방송도 끝나고 춘영이마져 잠들자 집안은 고즈넉해졌다. 남편은 낮에 운동이 과했던지 네 활개를 편채 코로 발을 갈았다. 옥녀는 귀남이의 옷을 다리고 또 다리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복이 쌍으로 굴러든 기쁨이 가슴을 짝 메워서였다. 이상하게도 그 기쁨에 아지 못할 애수가 샘솟아 혼탁되며 부그그 엉켜 끓는다. 그 애수는 가문날의 갈증과도 같은 그 어떤 욕망의 분출로부터 오는 감정이였다. 따발구름, 물꺽다리, 이스라치주렁지던 납청풀이 그립다. 이윽고 옥녀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아서라. 때늦은 후회는 약자의 한숨, 꿈 많던 청춘시절은 선풍같이 지나가버렸나.)

문밖에서 한줄금 바람이 지나갔다. 굵은 비방울들이 강녕이일사귀 두드리는 소리가 소연하다. 그게 마지막 구름장이였는지 창문에 둥근달이 비끼였다. 삐적삐적 뼈다귀추렴을 하던 검정개가 으르렁거리었다. 이어 대문이 열리는 소리와 저벅저벅 발자국소리가 났다.

《귀남이!》

이웃집동무를 부르듯 억양 없는 목소리.

《비서가 어떻게?》

옥녀는 반사적으로 문을 열어젖히며 소리쳤다. 달빛이 넘쳐나는 마당 가운데 원웅남비서가 우뚝 서서 웃고있었다. 부피 큰 짐을 진채였다.

《이제 귀남이 효성이 깃든 약쵸니다. 자전거엔 책만도 과하길래 뒤두구 가라 했지요.》

비서의 옷에서도, 생약냄새가 물씬 풍기는 마대에서도 물이 줄줄 흘렀다. 어인 영문인지 물어볼 경향이 없었다. 옥녀는 남편의 옷을 꺼내다주며 갈아입기를 권하였다. 그리고는 건넌방으로 갔다. 공부에 움뻘을줄 알았던 귀남이는 책에 코를 박은채 자고있었다. 해종일 바라다니는걸 미타하게 여겼더니 패썹한 녀석.

《아, 비서동지가 오셨다.》

옥녀는 아들의 목덜미살을 꼬집어 일으켰다.

《헹, 이십리 산길을 어떻게 비맞으며 와요.》

귀남이의 잠기 가지지 않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게 뭐 힘들다구. 공부하기보다야 낫겠지.》

홀렁한 옷을 입고 문턱을 넘어서는 비서를 보자 귀남은 튕기듯 일어났다.

《비서동지가 어떻게 된 일이야요?!》

귀남이는 제 동무에게나 하듯 비서의 팔소매를 끄당겨 앉히었다. 옥녀는 먼구스러워 비서를 바라보았다.비오는 산길을 밤에 왔을적에야 사연이 있을것 아닌가.

《반에서 사람을 올려보냈더군요. 귀남이 어머니가 오늘 대락을 했대지요. 하하!》

비서는 유쾌하게 웃으며 오늘 있는 체육경기며 예술소조경연 소리를 귀남이와 주고받았다. 그러다가 정색하며 물었다.

《내가 말하던 참고문제답안 다 했겠지?》

옥녀는 비서를 다시 보았다. 친아버지도 세상모르고 잠든 밤에 그 일로 왔단 말인가. 귀남이는 그런것을 못느꼈는지 히죽히죽 웃고있었다.

《어디 보자구.》

비서는 귀남이옆에 바짝 다가왔으며 손을 내밀었다. 옥녀는 가슴이 죄어드는것 같았다.

《글쎄 자신있다니까요. 50등안엔 들어요.》

귀남이의 멧적은 대답에 옥녀는 낮이 화끈거려 부엌으로 나갔다. 찬비를 맞은 비서의 속이라도 덥혀주는것이 주인의 도리이기도 하였다.

《50등!》

원웅남비서의 전에 없이 맵짠 소리가 사이문을 저르릉 울렸다. 눈살이 꼳꼳해서 귀남이를 쏘아보는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듯하였다. 귀남이의 응석부리던 목소리는 쑥 기여들었다. 옥녀는 그러는 비서가 새삼스러웠다. 어딘가 탐탁치 않아보이던 사람이 반석처럼 굳건하고 친근하게 느껴졌다. 비서는 거꾸로 세운 병모가지에서 물이 미처 쏟아지지 못하듯이 격한 어조로 말하였다.

《난 네가, 네가 배짱두 있구 사내답다 했지. 무지렁이같은 녀석. 고작해서 50등무지렁이같은 녀석. 왜 1등소릴 못해! 어머니가 너에게서 바라는 건 약쵸네 아니라 세상을 놀래우는 학자가 되구 영웅이 되는거야.》

비서의 노기가 등등해질수록 옥녀의 눈굽은 달아올랐다. 어쩌면 젊은 사람이 어머니들의 심정을 그리도 잘 알고있는가.

《불효자식같은 녀석.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알구 속을 썩여드려. 네 조건이었다면 열번두 영웅이 되었을 어머니야. 넌 오늘 염소불고기가 오리튀기로 바뀐것을 그렇거니 하지. 어머니 가슴속에 간직된 뜻을 그리도 몰라! 공불 더 많이 해서 실속있게 도와드릴 생각은 왜 못하구.》

옥녀는 추상같은 욕설이 흘러나오는 사이문을 일없이 바라보았다. 그것은 자식이 잘되기를 바라는 보통 어머니들에 대한 말이 아니였다. 그 말뜻을 음미해보던 옥녀는 와락 얼굴을 싸쥐었다. 손가락짚으로 맑은것이 새어나와 셋또한 부엌바닥에 점점이 떨어졌다. 누구도 들여다볼수 없었고 남편이나 자신조차도 피땀으로밖에 여기지 않았던 마음속 소용돌이를 젊은 비서가 헤아려주고있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예있구나 하는 격정이 불덩이같이 목구멍을 지졌다. 저런 사람과 함께 라면 남편과 아들딸들이 대를 두고 작업반에 남아 일한다 해도 좋은 일만 생길것 같다.

《무슨 일이요?》

남편이 깨어나서 문을 열고 물었다.

《비서가 오셨어요. 열른 방을 줘.》

조금후에 원웅남비서가 남편에게 떠밀리우다싶이 큰방으로 건너왔다. 남편은 그에게 술을 권하였다. 비서는 다른 잔을 달래서 주인에게 부어주고야 잔을 비웠다.

《이 속이 혼 혼해지누만요.》

주인 량주는 덤덤해있었다. 고맙다거나 감사하다는 말도 이럴 때에는 부족해보여서였다. 비서는 말을 이었다.

《제 오늘 입빠른 소릴 한마디 할가요. 술럽비서가 사업을 인계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뜻대로 못한게 한두가지가 아닐세. 제일 걸리는건 옥녀를 끝까지 책임져주지 못한거요. 아까운 사람인데 잘 도와줘서 본래의 옥녀로 되게 하여주.> 라고 했답니다.

이번 세포비서대회에 참가해서 축하문이란 받아 안고보니 구실 못한 저자신을 두고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아주머니, 처녀시절의 그 리상을 실천에 옮겨보지요. 축산으로 농촌테제를 꽃피우면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 큰 기쁨을 드릴수 있을겁니다. 안그렇가요?》

비서의 말끝에 장룡운이 후유-하며 말하였다.

《듣구보니 내 나이를 헛먹었소. 저 사람 속병에 빨간약을 발라주곤했으니.》

《원 별말씀을. 참 아주머니, 납청골로 이사하실 의향은 없어요?》

너무나도 뜻밖의 말을 비서가 하는바람에 옥녀는 멍해졌다. 귀안에서 웅- 소리가 났다. 비서는 급히 뒤를 달았다.

《거리가 먼 7반과 과수반하구 새로 생기는 염소목장의 기계화수단을 맡아볼 기술자를 리에서 물색하더군요. 아주머니가 염소목장에 들어가시겠다면 룡운형님이 적임자이지요. 오늘 7반비서하구 돌아왔는데 물가에 기막힌 집자리두 있습니다. 아주머니 거기 가시면 물에 든 고기갈을거예요. <풀박사> 솜씨를 마음껏 보일겁니다.》

옥녀는 귀에서 나던 웅-소리가 멎고 《매애애》하는 점백이의 정다운 영각이 들리는듯하였다.

따발구름의 달작지근한 즙액이 혀끝에 닿는듯도 하였다. 방안엔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났다. 갑자기 억제할수 없는 오열이 온몸에 엄습하였다. 쫘윽

을적의 꿈을 이루지 못하여 골수에까지 뿌리박혔던 종처가 툭 터지고 새살이 돋아나는 진통때문인가. 옥녀는 떨리는 손을 가까스로 가누며 술병을 기울여 비서의 잔을 채웠다. 멀리 납청강물에 흘러가버리었던 자신의 귀중한 보물을 찾아다준 은혜를 술 한잔으로 갚을수 없는것을 모르는바 아니었으나 진정을 담았다.

이사를 간다! 남편을 작업반에 붙들어두고 일만 시키려 한다고 생각했던 원웅남비서가 나의 후반생을 위하여 이사까지 가라고 권하는것이다. 지금껏 체험해보지 못했던 숭엄한 감정이 흥벽을 광광 짓쫓으며 격류처럼 흘러들었다. 이십년을 함께 산 남편도 보지 못했던 마음의 상처를 헤아리고 고쳐주는 원웅남비서, 그뒤에 선 엄술럽아바이.

그들은 찬란한 태양의 빛을 날라오는 빛발들이었다. 누구도 세상에 나면 꿈을 키우리라. 귀남이도 춘영이도 그리고 송이며 유치원교양원도...

그 꿈은 고마운 당의 뜻 받들어가는 엄술럽아바이나 원웅남비서들의 보살핌속에서 꽃피고 열매맺으리라!

옥녀는 딱히 뭘지는 몰라도 천하를 다 준대도 만족을 모를듯하던 이지러진 마음이 오늘에야 쭉 펴이는것 같았다. 그는 북받치는 걱정을 주체할길 없어 부엌으로 나갔다. 얼굴이 비치도록 대우를 낸 밥가마는 쉽없이 조잘대며 눈물을 흘리고있었다. 어언 사연이 저리도 많아 흐느끼며 사설질인가. 식을 세라 꺼질세라 쉽없이 열을 주는 불의 은혜로움에 목이 메는가보다.

진지 뿔네 반지 뿔네

검정술에 진지 뿔네

노구술에 반지 뿔네

인생의 첫걸음마를 떼던 시절에 부르던 동요의 선율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것이 오늘에로 이어지며 숭엄한 감정이 온몸을 휩싼다. 심장의 박동이 고르와지고 힘살들이 뽕뽕해움을 느끼였다.

《매애애》 하는 짐승의 영각소리가 불현듯 고향을 깨뜨리였다. 뼈다귀냄새를 맡고 모여온 고양이들을 경계하는 소리다. 옥녀는 그 소리가 자신을 위하여 울리는 경종으로 들리였다.

(더 지체하면 평생의 한이 되리라. 나가자, 푸른 들로!)

첫 물음

리일섭

해빛도 화창한 4월의 그 아침
부하시험 한창인 우리 기업소
뜻밖에도 찾아오신 수령님
구내에 들어서시며 하신 첫 물음
세멘트가 잘 나오는가

나라의 중대사를 의논하며
크나큰 믿음을 주시던
그 생의 마지막유혼에도
못잊어 상원을 불러 하신 그 말씀
세멘트가 잘 나오는가

아, 잠들 때도 잠깔 때도
애절한 마음속에 우리러뵈는 그 영상
날마다 우리모두를 불러
그 엄숙한 물음앞에 세워주나니

한톤의 크링카라도 더 얻기 위해
낮에 밤을 이어 조종반을 못뜨는
저 조종사의 불타는 눈빛에도
그이의 물으심은 새겨져있고

해종일 열풍이는 소성로를 지켜가던
그 순회길에 이어 달려온 현지교시관
저 소성공이 안고온 소박한 꽃송이에도
그이의 물으심은 앓혀져있나니

그리워 다시 뵈고싶고
간절해 다시 모시고싶은 마음들이
하루를 백날천날로 살며
삶의 순간순간을 언제나
그 물음앞에 세워놓고 총화짓나니

세멘트만 더 많이 생산하면
금시라도 환한 미소 지으시고
그이 우리곁에 다시 오실듯
그래서 그 물으심앞에 저마다 가슴치며
산악같이 억세게 일어선것 아니던가

아, 어버이수령님 그 물으심은
우리 심장으로 받아안은 유혼
세월의 끝까지 안고가야 할
우리 삶의 좌우명

세상천지가 열백번 뒤집힌다 잊으랴
우리 경애하는 그이의 음성에서
어버이수령님 그 물으심
오늘도 뜨겁게 새겨듣고있거니

상원은 소리높이 웨친다
거룩하신 그 령전에 울리는
영원한 충효일심의 대답
어버이수령님
세멘트가 잘 나옵니다!

뵈고싶은 마음

진철현

밤이면
은하수 소리없이 내리고
낮이면
산새의 울음소리 유정 한
내 사는 초소

못잊을 사랑의 자욱이 어린
초소의 전호가
장군님 옷자락 스쳐지나간
푸른 다박술 그리안으니
그 영상 또다시 뵈고싶구나

아, 초소의 언덕에 진달래 망울 터치면
그날처럼 그이 우리 초소에 찾아오실듯
그리움도 함께 피어나고
숲속에 솟는 샘물을 보아도
환하신 그 영상 그속에 어려오는듯
그래서 샘처럼 맑아지는 마음

그날도
눈꽃 핀 전호가에서
고향의 편지도 함께 읽어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도 함께 찍어주시며

병사의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최고사령관동지

별빛 미끄러지는 총창너머
나의 언손을 따스히 녹여주며
온몸을 포근히 감싸안아주신 그 품
날마다 그날에 살며
뵈고만싶어지는 전사의 마음이어

아, 군인선서의 성스런 구절구절
군기앞에서 엄숙히 외운 그날부터
헐치 않은 병사시절의 나날에
강철같은 의지를 키워주시고
용맹의 나래를 달아주신 그 손길

원췌의 총구앞에서
비겁을 모르는 내 심장도
명령엔 집행밖에 모르는 내 성미도
그이께서 주시였기에
따르는 이 마음 이리도 불타는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그이 또다시 초소에 찾아오시면
내 가슴에 시들줄 모르는
명사수의 꽃송이 보여드리고싶고

훈련길에서 넓어진 어깨
일당백 무쇠주먹 보여드리고싶구나

보여드리고싶구나
군모우에는 효성으로 빛나는 오각별
가슴에는 위훈 빛나는 충성의 훈장
최고사령관동지를 받들어 드놀줄 모르는
병사의 신념을 아뢰이고싶구나

모시리라
모시리라
흘러가는 오늘의 하루하루가
그이께 기쁨드릴 백년이 되게
흘러가는 세월의 해와 달이
그이 젊어계시는 천년이 되게

어제도 그 생각
오늘도 그 생각
몸은 여기 외진초소에 있어도
마음은 늘 그이곁에 있어라

그 한마음으로
내 이 초소를 지켜
한생을 바치고싶은
아, 병사의 이 마음이어

송시족자

박세일

우리 집에도 옆집 옷집에도
경애하는 두분의 초상화옆에
대를 물려줄 귀중한 가보처럼
정중히 걸어놓은 송시족자

나의 일터에도
안해의 작업반 사무실에도
영원한 국보처럼
공장과 농촌 실험실과 강의실...
내 나라 어디서나 보게 되는 송시족자

아 송시
경애하는 그이를 찬양하여
아버이수령님 몸소 붓을 달려 쓰신
불멸의 친필송시

다시 보라, 뜻을 품은 글발들을
장쾌하게 흐르는 글줄마다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긍지가 굽이치지 않느냐

오, 그때문에 우리
핵전쟁의 불구름 밀려들 때도
이 족자의 글발을 우러러
든든한 배심을 가다듬었고
사회주의봉쇄의 담벽이 높아져도
우리가 이김을 의심치 않았나니

남들은 걸로나 번쩍거리는
풍경화나 걸어놓고 살라고 하라
돈벌레나 유혹될 꿀동품들로
집안을 빙 둘러 장식했다 하라

우린 그저 송시족자
이 하나면 만족해-
신념과 자력으로 구축한
사회주의보루의 붉은 성벽에
소박하나 위대한 송시족자
불멸의 기폭처럼 계양하고 살리라

친근한 그이의 정든 품을 구가한 열정의 송가

-가사 《나의 하늘 나의 바다 나의 대지여》에 대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사에는 독창적으로 찾아진 종자가 있어야 하고 시인이 노리는 뚜렷한 주장과 개성적얼굴이 있어야 하며 발견이 깃든 새롭고 풍부한 서정이 있어야 한다.》

가사는 한편의 정교한 시로서 독창적인 종자가 심어지고 그것이 풍부한 정서를 통하여 품위있게 형상될 때 사람들에게 생활의 깊은 뜻을 새겨주면서 오래도록 여운을 남기게 된다.

우리는 부럽지 않아

가사 《나의 하늘 나의 바다 나의 대지여》(전동우)는 심오하고 독창적인 종자를 생활정서적으로 밝혀내고있다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가요 《나의 하늘 나의 바다 나의 대지여》는 가사도 좋고 곡도 좋은 훌륭한 노래라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가요가 이렇듯 높이 평가되게 된것은 무엇보다 먼저 가사에 담겨진 종자가 새롭고 독창적이며 거기에 시인이 노리는 뚜렷한 주장과 개성적얼굴이 비껴있기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깊은 감동은 기성의것에서가 아니라 새것에 대한 느낌에서 온다.

가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한없이 크고 파사로운 품에 대하여 노래하면서 그것을 하늘의 높이나 바다의 깊이에 비교하던 종래의 기성의 틀에서 벗어나 새롭고 발견적인 비유의 세계를 개척하여 풍부한 정서로 노래하였다. 하여 가사에서는 이 세상 끝까지 돌아보아도 찾아볼수 없는 장군님의 한없이 크고 넓은 품, 한없이 인자하고 파사로운 품에 대하여 새롭게 음미하게 한다.

그리하여 하늘의 수리개도 바다의 갈매기도 들판의 종다리도 부럽지 않다는 생활적으로 채색된 새로운 종자를 발견해낼수 있었던것이다.

하늘의 수리개 부럽지 않아

나에겐 더 넓은 하늘이 있네

친근한 그이의 정든 품은

내 날개 펼치는 하늘

라- 라-

친근한 그이의 정든 품은 나의 희망의 하늘

나에겐 더 넓은 바다가 있네

친근한 그이의 정든 품은

내 담을 키우는 바다

라- 라-

친근한 그이의 정든 품은 나의 희망의 바다

들판의 종다리 부럽지 않아

나에겐 더 넓은 대지가 있네

친근한 그이의 정든 품은

내 넓이 자라는 대지

라- 라-

친근한 그이의 정든 품은 나의 희망의 대지

이 세상 끝까지 돌아봐도

그대와 같은 품은 하나도 없어

장군님 그 품을 무엇이라

내 노래 부르랴

라- 라-

나의 하늘 나의 바다 나의 희망의 대지

하늘과 바다와 땅은 우리 생활에서 흔히 가장 크고 무한대한 개념으로 비유되고있다.

가사에서는 경애하는 그이의 한없이 넓고 깊은 사랑의 품, 이 세상 끝까지 돌아보아도 찾아볼수 없는 크나큰 품이 나에게 있다는 무상의 공지와 기쁨과 자랑을 형상적으로 감동깊게 표현하기 위하여 나에겐 수리개 나는 하늘보다 《더 넓은 하늘》, 갈매기 나는 바다보다 《더 넓은 바다》, 종다리 나는 들판보다 《더 넓은 대지》가 있다고 자랑차게 노래하고있다.

또한 이 공지와 자랑을 하늘과 바다와 대지를 지상의 보금자리로 활무대로 마음껏 즐기는 수리개와 갈매기, 종다리와 결부시켜 생활적으로 인상깊게 보여줌으로써 발견적인 새로운 시세계를 펼칠수 있었으며 시인의 형상적의도를 선명하게 부각시킬수 있었다.

그리하여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우리의 끝없는 자랑과 행복이 하늘보다 넓고 바다보다 넓고 대지보다도 더 넓은 경애하는 그이의 《정든 품》이 있기때문이라는 심오한 주제사상을 밝혀낼수 있었다.

시적비유와 상징의 힘

바다의 갈매기 부럽지 않아

함축된 표현과 짧은 시줄에 거대한 사상을 축도

하여 보여주는 가사작품에서 시적비유와 상징적수법을 효과있게 잘 리용하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시적인 비유와 상징은 간단한 표현속에 깊은 뜻을 담아 보여주는 정서적수단으로 될뿐아니라 시어를 생동하고 참신하게 둔구어주는 힘있는 형상수법으로 된다.

가사 《나의 하늘 나의 바다 나의 대지여》는 제목으로부터 시형상전반이 모두 적중하면서도 새 뜻이 나는 형상적인 비유와 상징으로 되고있다.

《하늘》과 《바다》와 《대지》를 여러 각도에서 교차적인 방법과 비교대비의 방법으로 굴절시키면서 시적의미를 심화시켜나가고있기때문에 가사의 표현성과 형상적품위를 높은 경지로 끌어올리고있다.

수리개 나는 하늘, 갈매기 우는 바다, 종다리우짖는 들판은 서로의 생존을 담보하는 삶의 보금자리로 땀해야 땀수 없는 밀착관계로 운명적으로 이어져있다. 그러나 서정적주인공에겐 그와는 비교도 할수 없이 넓고 따사로운 품-《더 넓은 하늘》, 《더 넓은 바다》, 《더 넓은 대지》가 있다. 그 품은 모든 기대와 행복, 사랑과 믿음, 모두가 운명을 다 맡기고 사는 위대한 품이다.

바로 그 품은 《내 날개 펼치는 하늘》, 《내 담을 키우는 바다》, 《내 넋이 자라는 대지》로 상징되면서 더욱 높이 승화되고있다. 희망과 열정, 의지와 담력, 각오와 신념을 키워주는 그 품을 어찌 못새들이 나는 단순한 삶의 보금자리에 비교할수 있겠는가!

가사는 이렇듯 새길수록 새로운 의미를 둔구어주는 심오한 뜻을 부드럽고 생활적인 표현으로 조명시켜주고있기때문에 새롭고 풍부한 서정을 뜨겁게 환기시킨다.

대조와 반복이 교차된 서정구조

가사가 인상깊게 안겨오는 비결은 또한 강한 대조와 반복이 교차된 서정구조로 가사를 엮어나간것과 관련되고있다. 이것이 또한 새롭고 풍부한 서정성을 넘치게 한 요인의 하나로 된다.

1~3절은 매개 시행들이 각각 대조와 반복 대칭적인 관계로 대응되면서 규칙적으로 조직되고있다.

하늘의 수리개 부럽지 않아

나에겐 더 넓은 하늘이 있네

친근한 그이의 정든 품은

내 날개 펼치는 하늘

라- 라-

친근한 그이의 정든 품은

나의 희망의 하늘

(※ 《밀접》은 대조.

《긴줄》은 반복.)

우에서 보는바와 같이 1~3절은 대조와 반복의 교차관계속에서 서로 대칭적으로 조직되고있기때문에 가사내용이 선명하게 부각되면서도 음률적각각을 불러일으키면서 정서적으로 풍만하게 안겨온다. 그러면서도 매개 절이 동일한 내용의 단순한 반복체시로 구성되고있는것이 아니라 각기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어지면서 절을 따라가며 점차 사상이 심화되어나가고있다.

이렇게 3절까지는 감정축적과정으로 조직되어있고 4절은 제시된 사상을 결속짓는 부분으로서 이 세상 끝까지 돌아보아도 하늘과 바다, 대지보다 더 넓은 품은 우리의 김정일장군님 품밖에 없다는 심오한 사상으로 축적된 감정이 폭발되는 부분으로 되고있다.

이밖에도 가사는 종자의 요구를 구현하여 궁지와 희열과 자부심에 넘치는 량만적색조와 밝은 양상으로 채색되고있는것으로 하여 독특한 맛을 준다.

희망에 넘치는 맑고 명량한 양상적색조는 서정적주인공의 정서적체험에서 핵을 이루는 궁지롭고 환희로운 감정정서적색갈에서 연원되고있다.

가사에서 노래되고있는 하늘과 바다와 들은 끝없는 희망과 밝은 미래를 펼쳐보여주면서 가사전편에 약동적이며 명량한 정서를 넘치게 한다. 또한 친근한 그이의 정든 품이 있어 무한한 궁지와 사랑, 행복과 기쁨에 겨워 《희망의 하늘》, 《희망의 바다》, 《희망의 대지》로 줄달음치는 서정적주인공의 량만에 겨운 모습에서 밝고 환희로운 양상을 더욱 뚜렷이 새겨안게 된다.

가요 《나의 하늘 나의 바다 나의 대지여》는 가사가 좋아야 곡이 잘된다는 경애하는 그이의 가르치심을 웅변적으로 확증하고있다.

이 노래의 곡조는 한없이 따사롭고 정든 품, 위대한 품에 안겨사는 서정적주인공의 궁지와 보람과 행복, 뿜어넘치는 환희의 격정을 발랄하고 약동적인 선율에 담아 정서있게 표현하고있다.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벅차고 궁지롭고 밝고 유쾌한 감정으로 충만되는것은 특색있는 이 노래의 선율이 불러일으키는 특이한 정서때문이다.

우리는 가사 《나의 하늘 나의 바다 나의 대지여》를 다시한번 새기면서 명가사에서만 명곡이 나온다는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가르치심을 명심하고 사람들에게 풍만한 정서를 통하여 감동을 주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게 하고 여운을 주는 새롭고 특색있는 가사를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하여 분발해야 한다.

명제해설

《소설의 이야기는 빈틈없는 감정조직을 타고 흘러야 한다. 감정조직은 작품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엮어 독자를 형상세계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김정일

이 고전적명제는 소설문학의 형태적특성을 옹계 살려 작품의 사상미학적감화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를 밝혀주고있다.

소설은 생활을 이야기식으로 펼쳐나가는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소설을 묘사문학인 동시에 이야기문학이라고 하는것이다. 소설이 발전하는 과정에 점차 묘사의 비중이 커지고 성격형상을 위주로 하면서 이야기체가 묘사체로 바뀌어지고 내용도 성격형상을 축으로 하는 문학적인 이야기로 발전되었다. 그러면서도 일정한 이야기를 통하여 성격형상을 보여주고 생활을 펼쳐나가는것은 필수적인것으로 되어왔다.

소설의 이야기는 인간문제를 안고있는 문학적인 이야기로 되어야 하며 흥미가 있어야 한다. 다시말하여 인민대중이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는 문제를 민감하게 반영하고 그것을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게 풀어나가야 할뿐아니라 그 이야기흐름이 사람들의 마음을 조였다풀었다 하면서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엮여져야 한다.

소설의 이야기를 재미있고 감동깊게 펴나갈수 있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가 감정조직을 잘하는것이다. 감정조직은 작품에 나오는 인물들사이, 작품과 독자사이의 감정의 련계를 짜나가는 형상작업이다.

감정조직을 잘하려면 무엇보다도 작품에 나오는 인물들사이의 감정적련계를 잘 맞물려놓아야 한다. 사람의 감정은 사상이나 의지와 달리 매우 가변적이고 류동적이다. 작품에 나오는 인물의 감정은 교체되고 변화되면서 일정한 흐름선을 이룬다. 인물의 감정선은 총체적으로 축적과 폭발이 이어지면서 승화되는 과정으로 엮여지면서 하나의 흐름선을 이룬다. 이러한 인물들의 감정선은 밀접히 련쇄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다. 작가가 그 영향관계를 생활론리에 맞게 파고들 때에만 인물들사이의 감정조직을 잘할수 있다.

소설창작에서 감정조직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작품의 형상세계와 독자사이의 감정적련계도 잘 맺어주는것이 필요하다. 사실상 작품에서 감정조직을 빈틈없이 짜고들기 위하여 애쓰는 목적도 독자의 정서적감응을 적극 불러일으켜 작품세계로 심취시키기 위한데 있다. 작품에 나오는 인물은 웃고 울며 흥분하여도 독자에게 그것이 납득되지 않

거나 공감을 주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의도 없다. 작품은 작가자신만을 위한것이 아니라 독자대중을 위한 사회적소유물이다. 그러므로 작가는 언제나 독자의 심리에 정통하고있어야 하며 그의 감정상태를 깊이 파악하고 독자와 인물들사이의 감정적련계를 잘 맞물려주기 위하여 생활의 논리대로 형상을 펼쳐나가야 한다. 만일 작가가 주관에 사로잡혀 독자의 감정상태를 무시하면 독자와 인물의 감정선에서 불일치를 조성하여 작품의 감화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이야기문학으로서의 소설의 감정조직은 작품의 서정성, 극성과도 련결되어있다. 소설의 서정성은 짙은 묘사나 주정도로를 통해서도 보장되지만 그보다도 이야기자체가 깊은 정서를 가지고있어야 한다. 또한 극성을 띤 이야기를 통해서도 감정조직이 담보되어야 한다.

작품이 풍부한 서정으로 차넘치고 극적인 이야기로 되어야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며 탄력과 견인력을 가질수 있고 독자들을 형상세계에 끌어들이일수 있다.

장편소설 《빈터우에서》는 주인공 주용녀를 축으로 하여 그와 련결되어있는 등장인물들 호상간의 관계도 감정선의 견지에서 잘 맞물려있을뿐아니라 매 인물의 감정선과 그 사이의 련쇄관계를 성격과 생활의 논리에 맞게 흥미있게 엮어나가고있다. 또한 주인공이 반당종파분자들과 적간첩파괴암해분자들의 책동과 보수주의, 소극분자들의 방해를 짓부시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대형양수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침예한 대립과 갈등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조였다풀었다하면서 작품세계로 끌어들이고있다. 다시말하여 등장인물들 호상관계는 물론 독자와의 감정적련계도 잘되고 이야기자체도 깊은 정서를 담고 극적인 이야기로 엮여졌다. 이러한것으로 하여 이 장편소설은 독자들을 깊이 감동시키고있으며 작품에 펼쳐진 생활에 공감하게 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묘사문학이면서도 이야기문학으로 되고있는 소설의 형태적특성에 맞게 이야기를 빈틈없는 감정조직으로 짜나감으로써 우리 식 소설의 형상수준을 더욱 높이고 그 사상미학적감화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야 할것이다.

한달 두달 백날이 지나고

조창제

어제는
마주서기만해도 이 가슴에
민족의 긍지 샘솟는
완공된 단군릉에서

오늘은
위대한 아버지의 뜻으로
이끼 푸른 청류벽의 잠을 깨우는
대동강반의 새 다리위에서

만세를 부르며
목메이던 생각
우리의 장군님께서
뜨겁게 잡아주신 병사들의 손과 손을
소중히 잡아보며 느끼던
그 따스한 체온속에 가슴 젖던 생각

수령님과 영결하던 그 아픈 순간부터
한달 두달 백날이 지나고
새해가 밝아왔건만
예대로 신심높이 흘러가는 이 땅의 세월속에
그이가 계신다는 한 생각으로
비통함을 이기고 일떠선 인민들속으로
수령님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우리의 **김정일**동지

산골군에 일떠선
새집 창가마다 눈송이 내려쌓일 때
새집들이 그날에 오시겠다던
수령님 생각에 차마 불을 끄지 못하는
그 마음속으로

자체로 꾸린 새 원료기지에

꼭 찾아오시겠다시던 수령님 못잊어
한자두자
아버이수령님 하신 약속
오직 그이만이 지켜주시리라
소박한 청을 담아 편지도 올린
효성스런 인민의 그 마음속으로

그이께서는 오늘도 찾아오신다
아버이수령님 만나주시고 다녀가신
잊지 못할 고장들과 사람들을 찾아
수령님 뜻을 꽃피웠다고
기특하다고
손수 친필로 감사도 보내시며

당과 정부의 간부들을
모두 떠나보내시며
수령님 사랑
수령님 믿음으로
이 땅에 흐르는 낮과 밤을 채워주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그렇다
그이는 오늘도 찾아가신다
숭고한 의리의 상상봉에서
아버이 수령님을 영원히 모셔가는
이 땅의 세월과 력사우에
태양의 모습으로 빛나신다

아 한달 두달 백날이 가고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그이는 인민의 마음속에
아버이수령님 모습으로 영원하리라

가 사

귀여운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

김선지

귀여운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
가정의 꽃이며 향기이라네
언제나 명량한 우리의 생활
아이들의 웃음에 비끼여있네

귀여운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
조국의 꽃이며 미래이라네
날마다 커가는 생활의 기쁨

아이들의 얼굴에 꽃피어나네

귀여운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
우리 당 품에서 끝없이 피네
오늘도 래일도 피는 그 웃음
살기 좋은 내 나라의 자랑이라네

아, 귀여운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
우리 당 품속에서 끝없이 꽃피나네

세계지도를 보며

박창민

외교일꾼인 동창생 최동무는 세계지도앞에 서있었다. 요즘 자주 보게 되는 모습이다.

외국방문을 며칠 앞둔 그로서는 그럴수 있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아마도 조국을 떠나 넘고넘어야 할 국경들을 그려보고있으리라.

나는 룡조로 물었다.

《자네 발칸반도 상공을 날고있나?》

《아니, 난 지금 조선을 바라보고있네. 동방일각의 조선을 말일세.》

최동무의 목소리가 저력있게 울렸다.

그러고보면 그의 눈길은 유럽대륙이 아니라 동방의 조선에 던져져있었다.

《보게. 붉은 색깔로 표시된 조선이 마치 진리의 불꽃처럼, 태양처럼 보인단 말일세.》

《시적이군.》

《시적이라. 가만 거 뭐라든가, 그렇지. 그 등불 다시한번 켜지는 날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고 한 외국인의 시가 생각나누만.》

동방의 문호 타고르의 시를 두고 하는 소리였다. 내가 조용히 시를 읊었다.

일찌기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조선
그 등불 다시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내 가슴속에도 격동의 파도가 일렁이였다.

최동무는 저으기 흥분하여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라는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의 로작을 학습할수록 난 더 자주 세계지도앞에 서게 되네. 조선을 새로운 눈길로 바라보게 되고.

지난날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조선이 얼마나 궁지높이 빛나고있나. 이걸 가지고 시를 쓰게, 시를.》

빛나는 조선!

억제하기 어려운 충동의 날개가 세차게 퍼덕거렸다. 그것은 조용하던 이내 마음을 휘저어 감정의 절정으로 맹렬하게 돌진해갔다.

지구의 정점에 올라 《사회주의》라는 과학의 해불을 높이 추켜들고 세계를 향하여 이렇게 소리치고싶었다.

《세계여! 인류여!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사회주의는 진리다. 그대들 갈길을 찾으려거든 조선에서 빛나는 등대를 바라보라!》

나는 세계지도에 표시된 나라들을 쭉 둘러보았다.

광활한 대륙이 펼쳐진 큰 나라, 거드름을 피우며 드러누운 각양각색의 대국들, 작은 점으로 찍혀진 소국들...

백수십개의 나라가 내앞에 제 모습을 드러내놓고 있다.

사회주의를 지키지 못하여 수십년간 휘날렸던 존엄있는 붉은 기발이 하루아침에 흙탕물에 치박힌 큰 나라, 혁명의 배신자, 변절자들에 의하여 사회주의가 좌절당한 나라들, 사회주의를 버린 대가로 음산한 이국의 처마밑에서 찬비를 맞으며 행복스러웠던 지난날이 그리워 울고있는 사람들...

그러나 조선은 사회주의보루로 역세계 솟아있다.

제국주의 칼바람이 지구를 오염시키는 황색바람이 어지럽게 몰아쳐도 조선의 창공에 휘날리는 혁명의 기발은 조금도 변색을 모르고 더욱 세차게 휘날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가 내리시는 하나의 구령에 마음도 발걸음도 맞추며 일심의 대오. 혼연일체의 대오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한길로 힘차게 나간다.

그 기발을 내리우려고 제국주의자들 봉쇄의 바리게트를 쌓고 질식의 최루탄가스를 뿜어도 조선은 자기가 택한 길을 곳곳이 걸어가고있다.

걸음걸음 승리하며, 걸음걸음 사회주의불패성을 보여주며.

그것은 사회주의는 과학이기때문이다.

자연과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에 관한 지식인 과학은 진리이다.

사물현상과 그 발전의 객관적합법칙성을 반영한 참된 리치인 진리는 빛과도 같이 영원불변하다.

인민의 원쑤, 혁명의 배신자들에 의해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당하였다.

그러나 과학으로서의 사회주의는 여전히 인민의 가슴속에 살아있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의 종말》을 떠들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황당한 꾀변이며 어리석은 수작이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며 진리일진대 그 무엇으로써도 가리울수 없는것이 진리이다.

진리를 말살할 힘은 세상에 없다. 비록 사회주의가 일시 가슴아픈 곡절을 겪고있지만 그 과학성, 진리성으로 하여 반드시 재생될것이다.

사회주의배신자들이 내리운 사회주의기발은 미구에 세계의 창공에 또다시 세차게 휘날릴것이다.

세계지도앞에 선 우리 민족의 감정도 시대와 더불어 달라졌다.

지난날엔 대국들에 놀리우고 찢기우고 뜯기우고 멸시당하는 약소민족의 설음안고 《조선아!》 《조선아!》 목놓아 부르며 세계지도에서 찾아보던 조선이었다.

그때의 조선은 너무도 가난하고 힘없는 처량한 모습이었다.

세계에 그런 나라도 있는가고 하던 나라가 바로 우리 조선이었다.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찾을길 없는 울분을 터뜨려 애국지사 리준은 배를 갈라 헤고에 붉은피를 뿌리기도 하였다.

애국렬사 안중근은 침략의 원흉 이등박문의 가슴에 총탄을 퍼붓고 《조선만세!》를 소리높이 불렀다.

그러나 빼앗긴 조선을 찾을길 없었다.

그렇게도 목청껏 《조선독립 만세!》를 불렀건만 조선은 빛나지 않았다. 것처럼 빛이 없던 조선은 해방의 봄을 안고오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온 세상에 조선의 탄생을 선포하시던 력사의 그날로부터 희망과 기쁨을 안고 세계지도에서 찾아보게 되었다.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때려부신 전승의 그날에는 세계지도에서 조선을 찾으며 감격에 목메여 온 우리 인민이었다.

오늘은 위대한 **김일성**민족으로 희세의 위인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따라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해가는 조선을 세계지도에서 궁지높이 바라보고있다.

식민지약소국가로부터 세계의 하늘높이 사회주의의 붉은기를 휘날리는 영웅의 나라, 사회주의보루로 빛나는 조선!

비록 령도는 크지 않아도 사회주의를 끝까지 고수하며, 사회주의의 불패성을 온 세상에 보여주며 전진해가는 조선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나라인가.

그 옛날 등잔불 가물거리던 여기서 오늘은 지구 한끝까지 향도의 해발 빛발쳐가고 사회주의기치가 휘날리고있거니.

아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조선이여!

너는 바라만 봐도 가슴속에 신념의 기둥 억세게 세워주는 정의의 요새,

너는 작아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 《가장 큰 나라》!

여기서 떠오르는 주체의 해발아래, 여기서 빛나는 진리의 빛발아래 혁명의 길에서 넘어졌던 사회주의나라들은 일어서리라.

재생된 사회주의는 력사의 궤도를 따라 다시 전진을 시작하리라.

세계지도앞에 서있는 나의 눈앞으로 마치도 진리의 불덩어리처럼 보이는 조선이 힘있게 안겨왔다. 그 진리의 불덩어리에서 울리는 웨침이 힘차게 메아리쳐갔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항만의 숲이여

박 영

푸른 파도 칠썩이는

남포항 기슭에

정박의 닻을 내린 무역선들

《모란봉》호 《판모봉》호

《장자산청년》호...

아름다운 명산의 그 이름들을

지녀신가

산악같이 웅장한 선체우에

무성한 숲처럼 안겨오는

마스트들

항의 기슭에

무역선의 숲이 펼쳐졌구나

아름답구나

산악같은 무역선들

서해의 찬연한 해돋이에

바다안개에 정히 씻은 그 자태

서서히 드러낼 때면

황홀하구나

어둠의 장막이

사위를 감쌌어도

별빛 명멸하는 은하의 세계런가

밤의 무역선들의 그 숲은

이름도 아름다운

《장자산청년》호 《모란봉》

호...

명산의 솔바람소리도 예서

들리는듯

산새로 되였는가

마스트숲을 끝없이 날아에는

갈매기들은

만경창파를 헤가르고

끝없이 찾아오고 찾아오는

아시아, 아프리카의 무역선들

항만의 이 명산들에 이웃하자고

찾아왔는가!

아름다움에 황홀함에 내

바라보니

이 가슴에 안겨오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이끄시는

강대하고 부유한 내 조국의

위용이여

명산의 명산 항의 장엄한

무역선의 숲이며

나날이 무성하는 내 조국

바다기슭이 숲이며

인권찬가

리영백

우리는 인권을 두고
언제한번 따로 생각해본적 없다
우리의 평범한 생활
우리의 행복한 그 모든 나날들이
그대로 참다운 삶의 권리이기에

아침마다
로동의 희열을 안고나서는
정다운 출근길도 무심히 걸을수 없다
저녁이면 늘쌍 마주하는
아이들의 숙제검열도 무심히 대할수 없다

한점의 마음속 그늘도 없이
단란한 가정에 넘치는 웃음소리도
의사당 높은 연단에서
떳떳이 울리는 광부의 목소리도
우리가 향유하는 값높은 인권의 노래

먹을 권리 입을 권리 배울 권리...
생활의 모든 권리가
사랑으로 꽃피고 법으로 담보되는 내 나라
한생토록 누려갈 보람찬 삶이
오로지 행복의 날과 날로 이어지고있나니

인권을 성경처럼 외우는
팔라의 사환군들아, 물어보자
일자리 찾아해매는 흐린 눈동자에서

주린 배를 안고 구걸의 쪽박을 내든
눈물젖은 그 어린 얼굴들에서
과연 인권을 찾아볼수 있느냐

인권은 살찐 배를 두드리며
유혹장에 돈을 뿌리는 특권이 아니다
인권은 피물은 총칼을 휘두르며
인민의 자주권을 교살하는 권력이 아니다

그렇다
인권은 자본주의 너의것이 아니다
인권은 나의것
우리의것
사회주의것

자주의 삶을 누구나 노래하며
푸른 하늘에 머리를 높이 든 인민의 존엄
창조의 탑을 마음껏 쌓아가며
가슴 쪽 펴고 밝게 웃는 인민의 모습
이것이 그대로 우리의 인권찬가

아, 우리의 아버지 **김정일**동지
인덕정치로 빛내주시는
이 참다운 인권우에
가장 값높은 우리 인민의 이름이 있다
필승불패인 사회주의의 위력이 있다

우리는 먼저 보고있습니다

류동호

들었습니다
우리 사는 땅우에서 지심깊이 울려오는
위대한 령도자의 목소리를
우리 탄부들은 막장에서 들었습니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아 심장을 울리는 위대한 사랑의 선언
천길막장에 해빛처럼 홀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운명에
그 얼마나 창창한 앞길이 열린것입니까

저주롭던 지난 세월
막돌처럼 버림받던 탄부들을
노예처럼 시달리던 탄부들을

우리의 사회주의는
정녕 그 얼마나 높은
삶의 령마루에 세워주었습니까

우리의 사회주의
그것이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 당의 은덕임을
경애하는 그이께선 천금같은 굴발로
다시금 뜨겁게 깨우쳐주셨나니

알았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우리 삶의 따뜻한 품
사회주의 이 체도를 위하여

우리 탄부들이 서야 할 자리
로동계급이 차지할 위치를
우리들은 더욱 똑똑히 알았습니다

높뛰는 심장의 맥박을 안은
거센 착암기소리
땅을 흔드는 발파소리
이것은 위대한 령도자의 뜻을 받드는
탄부들의 불타는 맹세의 숨결입니다

사회주의를 떠나서는
순간도 살수 없는 우리
우리 생활이고 생명인 사회주의를 지키는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어
희망찬 미래를 마중해가는
사회주의진군의 전초병이 되겠습니다

온몸에 활력을 주신
위대한 그 심장의 뜨거움을 받아안고
우리 탄부들은 땅속 깊은곳에서

조국에 열과 빛을 더해주며
사회주의를 받드는 심장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는 **김정일**동지
어제도 오늘도 그 품에 안겨살고
래일도 영원히 그 품에 안겨살려니
이것이 우리 탄부들이 가슴에 새겨안은
억년 드물지 않을 신념입니다

삶의 가장 높은 령마루에 서있는
우리 탄부들은 보고있습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에
아름답게 비껴올
사회주의완전승리의 새벽노을을

아, 사회주의태양
우리의 **김정일**동지를 따라
누리를 비치는 사회주의해돋이
자주시대의 영원한 새 아침을
우리 로동계급이 먼저 보고있습니다

밀영의 봄빛

밀영의 봄날
백두밀영의 봄빛이여

둘러보면
서리꽃 하얀 눈바탕우에
금매화 참나리 만병초가
한껏 망울을 터치며
류다른 봄빛에 싸였고나

손을 대면
금방 풀물이 젖어오를듯
그래서 옥같은 소백수도
맑다 못해
파아란 한색으로 물들었네

여기서 탄생하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그이께서 불러오신 새 봄빛이여
음지를 모르는 이 봄빛은
가닥가닥 해살을 물고
생각도 천리 만리를 날게 하네

한번 앗기면
피의 언덕을 넘는 값비싼 대가가 있어

푸른 숲과 꽃에 어울려
백두광명성탄생을 알리던
투사들의 그 환희 그날의 웃음소리
다 실어다주나니

아 밀영의 봄날
백두밀영의 봄빛이여

음지와 양지는
자연이 주는 철리라지만
여기서 꽃피난
조선의 봄빛은 찬란하여
밝고밝은 영원한 양지에서
우리 인민은 만복을 누리나니

그래서 밀영의 봄빛은
시련 많던 찬바람시절을 잊지 말라고
세월이 가도 길이길이 꽃피우라고
백두의 정신으로만 살라고

이러히도 봄동산을 펼치며
흰 눈바탕우에서
뜨겁게 웃는것이여라

리찬영

접중화

1

그의 집은 옥계원에서 서쪽으로 십리쯤 떨어진 교외에 있었다.

서리꽃이 하얗게 핀 살구나무아지에 무리져앉아 조잘대던 참새들이 인기척에 놀라 푸르르 날아오르는 뜰안으로 나는 조심히 들어섰다. 참새들은 눈가루를 뽀얗게 날리며 지붕에 가 앉아서는 작은 눈을 되뜩되뜩 굴리며 고개 갸웃이 내려다본다.

(아이참 고것들이… 가만 어떻게 무엇부터 해야 할가… 들어가면서 수인사를 나누고 리발도구를 펼쳐야겠지. 그다음은…)

나는 차후에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보며 흥 뜬소리로 《주인님 계십니까?》 하고 찾았다.

거듭해 찾았으나 문이 걸리지 않은 방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다.

(소환을 앞둔 땀뻘 날에 어디엘 갔을가. 불편한 몸으로 그럴수 없겠는데…)

나는 재차 다시 찾았다.

《주인 계세요?!》

《…》

(혹시 잠들지 않았을가?)

토방에 올라서서 유리창으로 방안을 살피던 나는 그만에야 두눈을 꼭 감았다. 최문철은 창문과 마주 앉아있었기때문이었다.

(어마나 어쩔…)

손땀이 탁 풀렸다. 했지만 문을 열고 들어갔다. 찬바람이 훅 스며드는바람에 뒤를 돌아보던 그가 손을 들어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슨 사람이 저렇게 인사불성이야.)

나는 내심 그가 야속했지만 문을 꼭 닫고는 한쪽 구석의 방바닥에 조심히 앉았다. 한참 쯤그리고 앉아있노라니 발가락이 재릿재릿해진다. 그때야 나는 그의 앞쪽에 놓인 화분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양지쪽 창문가에 놓인 화분들은 모두 하나같이 파릇하게 돌아올랐는데 화분별로 크기도 서로 다르다.

나는 야속한 눈매로 그가 눈길을 떼지 않고있는 화분을 어깨너머로 넘겨다보았다. 그의 앞에는 작은키보다 약간 더 높게 곳곳이 자란 접중화화분이 놓였는데 접시같은 푸른 잎으로 몸을 단장하고 기다란 꽃대가 쭉 뻗어오른 줄기에는 꽃망울들이 다닥다닥 맺혀있었다. 그런데 어떤 화분은 생기가 없이 시들은것들도 있었다.

여름한철에만 볼수 있는 접중화를 가장 추운 1월달에 방안에서 보니 희한했으나 주인의 말없는 랑

대로 하여 가슴은 싸늘해졌다.

나의 뇌리에는 며칠전에 있었던 일들이 삼삼히 떠올랐다.

어느때와 같이 3번좌석에서 영예군인들의 머리를 손질해주던 나는 삼륜차를 타고 이쪽을 올려다보는 한 청년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내 눈길은 굳어졌다.

(혼자서 여기로 올라올수 없으니 저러는게로구나. 얼마나 부러우면 저렇게…)

나는 손님에게 사연을 여쭙고 문밖으로 달려나갔다. 그는 내가 나오기를 기다렸던듯 반기며 두손을 내밀었다. 나의 작고 알팍한 손은 그의 줌안에 들어가 오래동안 흔들렸다.

《어마나…》

나는 그의 열정적인 태도앞에 당황하여 얼굴을 붉히며 손을 뺐었다.

그는 기름한 얼굴에 서글서글한 웃음을 담았다.

《달리 생각지 마오. 난 우리 영예군인들의 머리를 늘 쓰다듬는 동무의 손이 얼마나 부드러운가 한번 쥐어본거요.》

나는 순간 모닥불앞에라도 선듯 온몸이 달아오르며 영예군인의 따뜻한 마음을 모독했다는 죄의식감에 사로잡히어 어쩔바를 몰라했다.

그는 아무 말도 없는 나를 이윽도록 바라보더니 《자, 그럼 잘 있소…》 하고 삼륜차를 물며 자리를 뜨는것이였다.

《아니 저?... 머리를 안깎으시는가요?》

나는 당황하여 몇걸음 그를 따라가며 물었다.

《아직은 일없소. 난 늘 이 옥계원앞을 지날 때면 3번좌석에서 영예군인들의 머리를 쓰다듬는 동무의 얼굴을 바라보며 당의 배려에 대해 생각해보건하오. 어딜 가나 영예군인좌석을 정해놓고 특별히 봉사하게 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우리 나라밖에 없을거요. 자 동무, 잘 있소.》

그는 내 팔을 부어잡고 흔들더니 뭐라고 할새없이 삼륜차를 썩 몰아갔다. 나는 또다시 몇걸음 따라서며 말했다.

《저 그래도 오셨던김에 머리를 깎고 가세요.》

《점심때가 다 되었는데 후에 오지요. 식사시간이야 지켜주어야지요.》

그는 삼륜차손잡이를 잡으려는 나의 손을 가볍게 밀어놓으며 입을 열었다.

《동정을 무턱 받든것은 이 량심이 허락치 않지요. 하하하… 내 방금 한 말은 통말이고 나를 애처롭게 기다리는 귀여운것들이 내가 여기서 지체하는것

을 허용하지 않는단 말이요.》

그는 정말 며칠후에 꼭 오겠다고 하며 삼륜차를 썩 몰아갔다.

그날부터 이제나저제나 기다렸으나 그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어쩐지 그한테 죄를 지은것만 같아 마음을 바재이며 기다리다가 더는 그냥 앉아있을수 없어 집어방만 알고 헤매이며 다니다가 금방 산기슭에 영예군인인 최문철이 흠어머니와 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저 동문 내가 동정심을 안고 온것 같애 저렇게 평담할가?)

《문철동무!》

《예?! 아 이거 리발사동무가 어떻게...》

급기야 머리를 돌린 최문철은 나를 놀란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확에는 반가움과 함께 의혹이 짙게 어려있었다.

《그동안 잘 있었어요? 약속을 잘도 지키는군요.》

《아 정말 안됐소. 요즈음 좀 바빠서... 난 내 일에만 옴하다보니 동무를 옆집아주머니로 생각했댔소. 참 미안하오.》

나는 진심으로 되는 소박한 말에서 따뜻한 그의 진정을 읽으며 앙금히 솟았던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는감을 느꼈다.

그러면서도 그가 귀여운것들이라고 부르던것들이 이게 아닐가 하는 생각이 들어 입을 열었다.

《귀여운것들이라고 하던건 그 화분을 녀두에?...》

최문철은 눈웃음을 지으며 머리를 끄덕인다. 나는 어이없어 소리내어 웃었다.

얼마후에 리발보를 그의 목에 두르고 가위질을 시작했으나 왜서인지 그는 말이 없었다. 나는 그의 울적한 기분을 가해주려고 일부러 말을 꺼냈다.

《우리 집에 새로 나온 노래 몇곡을 록음한 록음테프가 있는데 그걸 가져다드릴까요? 갑갑할 때엔 노래이상 없는데...》

그런데 그는 나의 성의를 무시하듯 통명스레 대답하는것이였다.

《공연한 근심을 합니다. 노래도 좋지만 보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줄달음치는것이 우리 생활이 아닙니까.》

(피짜는 피짜야. 동정을 전혀 받으려 하지 않으니...)

나는 붉게 상혈된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때 밖에서 인기척을 내며 웬 중년사나이가 들어섰다. 나는 어색한 분위기가 가셔지는것이 좋아 영문모를 손님이었지만 반겨맞았다.

그는 방바닥에 손가방을 내려놓으며 식물원에서 왔다고 하였다.

문철은 반색하며 그의 손을 잡아앉혔다.

《원예기사선생인가요?》

《예.》

그는 짧게 대꾸하며 문철이가 이끄는대로 앉았다. 《참 수고가 많았겠습니다. 제가 편지한것때문에...》

《예.》

그는 여전히 외마디대답을 하였다. 표표한 인상, 단도직입적인 대답은 어쩐지 나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손잔등을 맞대고 썩썩 비비며 덩덤한 눈길로 화분들을 쭉 훑어보고나서 가방에서 편지봉투를 꺼내들었다.

《우린 동무의 편지를 모두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감동두 되구요. 그런데 하필 왜 접중화를 선정했소?》

《그건 저... 제가 접중화를 제일 좋아하기때문이지요.》

《허허허, 그럴수 있지요. 그러나 화려하구 의미있는 꽃들이 하두 많은데...》

《그런 의미있는 꽃들이 많겠지요.》

최문철은 그의 말을 자르며 대꾸했다.

그는 말허리를 잘리운것을 모욕으로 느꼈던지 눈을 반쯤 내리깔았다.

나는 리발을 다 끝내고 방바닥에 놓여있는 편지를 들고 침대한쪽끝에 앉았다. 편지를 펼치니 활짝 핀 접중화 한송이가 그려져있고 그밑에 활달한 필체로 편지내용이 또박또박 씌여져있었다.

《...저는 2월의 명절아침 접중화꽃을 활짝 피워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에 드리고싶습니다. 그런데 원예상식이 빈약한것이 한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명절날아침에 꽃이 활짝 피게 할수 있을까요. 좀 방조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동문 정말 좋은 생각을 하고있구나. 아마 접중화와 깊은 인연이 있는게지...)

《이제라도 다른 꽃을 신청한다면 몰라도...》

원예기사가 어줍게 미소하며 뜨직뜨직 말했다. 최문철은 대답대신 도리머리를 저었다. 나는 내가 모욕을 당한것처럼 속이 바그그 끓어올랐다.

《저 원예기사동무, 어떻게 해서라도 이 동무가 원하는대로 좀 도와...》

그는 흘금 나를 쳐다보는데 그 표정에는 동무가 무슨 상관이나고 묻는듯싶었다.

나는 줄지에 흥당무가 되어버린 얼굴을 슬그머니 외면했다.

《원예기사동무, 이걸 좀 보십시오. 이걸 왜 이렇게 되는것 같습니까?》

문철은 누런 반점이 다문다문한 이상하게 생긴 꽃나무잎을 가리켰다. 나를 살려주느라 일부러 너스레를 피우는상싶었다. 그는 그쪽으로 몸을 돌

렸다. 그는 자못 놀란 눈매로 화분들을 주의깊게 살펴보았다.

《아니 이건 꽃나무가 아니라?...》

《예. 이건 강냉이모구, 이건 수수, 그다음것은 버모입니다.》

그는 의아한 눈길로 문철을 잠시 응시하더니 입을 열었다.

《일조틀이 부족한탓이지요. 그런데 이것들은...》

《허허허... 의문이 될수 있습니다. 이젠 그저 제가 장난삼아 씨를 심어본건데 이렇게...》

그저 화초겠거니 하고 무심코 보아왔던 나에게도 의문부호가 생기었다.

원예기사는 더 묻지 않고 해비침시간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 흙갈이할 때의 주의점을 설명해주시작했다. 의혹을 풀지 못하고 앉아있자니 몸살이 날 지경으로 시간이 지루했다.

2

최문철은 원예기사를 바래우고나서 나에게로 돌아앉았다.

《걱정마십시오. 모든 일은 다 뜻대로 되는 법이니까요. 뜻을 이루자니 고충은 있겠지요.》

최문철은 씩웃으며 배로유하게 말했다. 꽃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온도와 습도를 보장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했으나 왜 그런지 그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다만 그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기원할뿐이었다.

《난 동무가 꼭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래요.》

《걱정마오. 강의한 사람에겐 실패란 있을수 없소.》

그의 자신만만한 태도는 나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주었다. 한다하는 원예기사가 확실성이 없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해내겠다고 할 때 일종의 불안감을 느끼지 않은것은 아니었지만 신심에 넘쳐있는 최문철의 사내다운 행동에 완전히 현혹되어버린것이다. 흥분에 들떠 잠시 화분들을 훑어보던 나는 뽀족뽀족 씩이 튼 곡식포기에 눈길을 주었다.

최문철은 이윽도록 나의 얼굴을 지켜보다가 혼연히 입을 열었다.

《동무는 지금 저것들을 꽤 화분에서 키워내겠는가 하고 의혹을 가지는것 같은데 나에게서는 저것이 생명이지요. 나는 원래 군사복무를 끝내고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농민이 되어 억척같이 농사를 지어보려 했소. 그런데 하반신을 다쳐 일어날수 없는 몸이 되었던 말이지요. 침상에 누워있으면서도 그 소원을 풀수 없는것이 제일 원망스러웠소. 마음의 위안

이라도 해야했기에 화분에 심어보았소. 눈내리는 겨울날에 씨를 뿌리고 화창한 봄날에 가서 열매를 거두고 또다시 씨를 뿌려 가을에 수확하는것이 나의 소원이요. 당면하게는 2월의 명절까지 이 점종화를 활짝 피우는것이요.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더 바랄것이 없을것 같소.》

(아 참된 사람!!...)

거듭 이렇게 속으로 되뇌이고있는데 최문철은 소리내어 웃으며 말을 계속했다.

《그리구 인사불성인 나를 용서해주기 바라오. 동무가 들어오는 그 시각에 꽃망울이 살짝 삐어져나오는 감촉을 느꼈길래 자세히 관찰하던중이어서 인사도 못했소. 그것을 상세히 기록해야 얼마만한 시간이 흘러 피겠는가도 확정지을수 있으니까말이지요.》

나는 그의 말을 들을수록 이런 뜨거운 사람을 잘 도와야 하겠다는 생각이 불같이 일어나는것이였다.

(이 동무에겐 아름다운 노래보다 창조의 나래를 활짝 퍼도록 안반침해주는것이 곧 힘으로 될게야. 그의 소원을 성취시키는데 나의 성의를 아끼지 말자. 영예군인들을 내세워주고 아껴주는것이 우리당의 의도인데 내가 그를 안이상 어떻게 외면할수 있겠는가.)

시간이 갈수록 나의 생각도 깊어만갔다.

《참 많은것을 알았어요. 앞으로는 자주 찾아오겠어요.》

나는 심중에 있는 말들을 물어두고 짧은 말로 인사말을 나누고 자리를 일었다.

(사람이 한생에 이처럼 목표를 뚜렷이 내세우고 산다는것은 쉽지 않은 일이야. 내판에는 영예군인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한다고 큰 자부를 가지고 살아왔었지. 내가 어리석었어. 나도 오늘부터 그 동무처럼 삶의 목표를 새롭게 세우고 살아야겠어...)

그날저녁 나는 온 식구앞에서 최문철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는 묵묵히 담배를 피우며 앉아있었고 어머니는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다가 눈시울을 적셨다. 밤이 깊어서야 잠자리에 누웠건만 잡다한 생각이 자꾸만 갈마들어 좀처럼 잠들수 없었다. 동생들은 어느새 꿈세계에 파묻혔는지 새물새물 웃기도 하고 헛소리도 친다. 비뿔어진 베개도 바로잡아주고 차던진 모포도 덮어주고나서 잠자리에 누웠으나 눈은 점점 초롱초롱 해진다. 왜그런지 최문철의 모습과 함께 식물원의 기사의 모습이 떠올랐다. 좀처럼 웃지 않고 표표한 인상으로 시종 문철을 대하던 그의 모습이 눈앞에서 떠날줄 모른다.

(참,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 그렇담. 영예군인이 안타까이 도와달라고 호소하는데도 진심으로 응해나서지 않는것 같애. 혹시 내가 나서서 그 원예기사

에게서 새것을 배워다가 문철동무에게 가르쳐주다면 불편한 몸인 그가 좋아하지 않을까. 내가 기사에게 가면 그가 나를 어떤 눈으로 볼까? 그러면 나는 무슨 말로 어떻게 설명한단 말인가?... 아이참, 내가 별생각을 다 하는구나. 남들이야 나를 어떻게 보든 참된 사람을 돕자고 마음먹었던 내가 아닌가?)

밤이 깊어가는 것과 함께 나의 생각도 깊어갔다. 진심을 바쳐 그를 도우려는 것이 나의 마음속 진정이었다.

나는 그 이튿날 하루일을 끝내고 식물원 온실로 갔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기사는 비군 온실로 갔는데 사흘후에야 온다는 것이었다.

나는 맥이 풀려 온실 앞마당 장의자에 한참이나 앉아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사흘후 저녁무렵에 다시 온실로 찾아가니 기사는 온실마당에서 몇몇 노동자들과 무슨 말인가 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 반색하며 다가왔다.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저 기사선생을 만날 일이 있어서...》

나는 선뜻 말이 나가지 않아 이렇게 주춤거렸다. 기사는 웃는 눈매로 나를 잠시 응시하더니 뜨직뜨직 입을 열었다.

《그럼 동문 그 영예군인때문에 또 왔소?...》

나는 달아오르는 얼굴을 숙이며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는 잠시 말없이 나를 지켜보더니 힘없는 어조로 말하는 것이었다.

《참고가 될만한 책도 주고 설명도 어지간히 해주었는데 나에게서 무엇이 더 필요되겠는지 아직 우리 온실에서도 점종화를 겨울에 피워본적이 없소...》

《그렇지만 기사선생님, 정성이면 둘우에도 꽃이 핀다는데 지성을 기울이면 되지 않을까요?》

나는 그에게로 다가서며 안타까이 물었다.

《물론 되겠지요. 사람이 하자구 마음먹어서 안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지금 최동무의 그 조건에서는 꽃이 피기 힘듭니다. 우선 온도와 해비침시간의 조절이 제일 중요한데...》

그도 안타까운듯 말꼬리를 맺지 못했다.

그리고 마음이 좋지 않은지 손을 맞잡고 천천히 내앞을 거닐었다. 《온도와 해비침시간의 중요성.》 나는 그의 말을 끝맺어보며 이제 무슨 말이 더 나오겠는가 하여 신경을 도사리고 입만 쳐다보았다. 기사는 무엇인가 말할듯하더니 안으로 들어갔다.

《예까지 찾아온 손님에게 시원한 말 한마디 해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소. 별루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이 기록집을 가져다보오. 여기에 겨울에 점종화와 근사한 화초들을 가꾼 경험이 상세히 적혀있

소.》

그의 손에는 두툼한 책이 들려있었다.

《이걸 가져가면 사업에 지장을 받지 않겠어요?》

나는 그 책을 받아들며 조심스레 말했다.

《무슨 지장까지 받을 일이 있겠소. 다만 직접 도와주지 못해 미안할뿐이요. 허지만 이 기록집은 내가 몇년간 온실에서 일하면서 쌓은 경험들을 기록한 것이므로 도움이 될게요.》

그 순간에 나의 마음은 무엇에 비길수 없이 무등기뻘었다. 이것이 최문철의 욕구를 성취시킬만한 자료가 못된다 하더라도 얼마나 큰 힘을 주겠는가.

나는 빠스를 탈 생각도 잊고 산과 들을 꿰질러 걸아닌 길로 줄달음치기 시작했다. 짧은 겨울해는 어느덧 서산너머로 자취를 감추고 어둠이 누리를 폭 감싸안았다. 다암산중턱에 올라갔을 때에야 질러가는 길이 땀뻘다는 날말이 문득 떠올랐다. 북쪽 비탈면이어서 눈이 겹쌓여 발을 옮길수 없는 데다가 오솔길마저 타지 못하고 허망중에 헤매다나니 도무지 길을 축내지 못하였다. 아마 이틀전에 내린 눈만 아니라면 캄캄한 어둠속에서 밤새껏 헤맸을지도 모른다. 흐르는 진땀을 닦으며 눈우에 풀썩 주저앉았던 나는 옆에서 갑자기 아기울음소리와 같은 피이한 소리가 나며 눈가루가 날려오는 바람에 와들놀라 가슴을 부여안았다. 그리고 놀라는 서슬에 벌떡 일어나 내달리다가 산기슭까지 굴러내리었다. 눈속에 파묻히어 산락을 올려다보니 중개만한 노루가 네굽을 안고 달리고있었다.

(어마나, 저것이 나를 이 지경으로... 허참...)

나는 쓴입을 다시며 일어나 눈을 툭툭 털고 걸음을 내짚었다.

3

불빛이 환한 최문철네 뜰안에 들어선 나는 옷매무시를 바로할새도 없이 환희에 차서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있던 최문철이 놀라서 일어나며 쾅한 눈으로 나를 맞아주었다.

그의 얼굴은 백랍처럼 창백했고 불편은 살이 내리여 핏줄했다. 나는 놀라서 다가가며 다우쳐 물었다.

《아니?! 왜 이렇게... 어딜 앓으시는가요?》

최문철은 나를 안심시키려는듯 인상적인 환한 웃음을 지었다.

《일없소. 그런데 이밤중에 동무가 웬일이요?》

나는 말없이 품속에서 책을 꺼내 그앞에 내놓았다. 이때 밖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려오더니 문철이 어머니와 함께 의사, 간호원이 들어서는 것이었다. 의사와 간호원은 들어서자바람으로 문철의

침대로 다가가 혈압을 재고 체온을 재보며 진찰을 하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의사의 동정을 살폈다. 한참후에 허리를 편 의사는 간호원에게 무엇이라고 지시를 주었다. 간호원은 여러대의 암폴로 된 주사를 놓는것이였다. 그제야 나는 병세가 어떤가고 물었다. 의사는 감기가 오는통에 모든 기관들이 약해졌다고 했다. 의사는 어머니에게 약봉지를 주고나서 밤새 있을수 있는 증상을 설명도 하고 어떻게 하라는 지시도 준다. 아마도 이들은 이런 일을 자주 당하는것 같았다. 그렇지 않고야 이렇게도 태연할수 있는가.

측은한 생각이 들어 최문철을 오래동안 지켜보던 나는 그의 이마에 손을 얹어보았다. 이마가 뜨끈뜨끈하고 관자노리는 죽끓듯 풀떡풀떡한다. 그래도 최문철은 흔연히 미소한다. 나는 얼른 일어나 찬물을 떠다가 찬물수건을 그의 이마에 올려놓았다.

최문철은 거뿔거뿔 일없다고 하며 나를 안심시키려고 애썼다. 그럴수록 마음이 더 아팠다. 그는 긴 숨을 몇번 내쉬더니 눈을 스트르 내리감았다. 주사의 약효능이 오는 모양이였다.

어머니는 나에게 젖은 옷을 갈아입으라고 갈음옷을 내놓으며 어서 따스한 아래목에 내려와 식사하라고 손을 잡아끈다. 그러나 나는 문철의 곁을 떠나고싶지 않아 어머니의 성의를 마다하며 앉아있었다. 나는 그가 깊이 잠든 다음에 그의 침대옆에 놓인 경험집을 들어 책상우에 가져다놓으려고 책상앞으로 다가갔다. 책상앞에 선 나는 병사일기라고 쓴 두툼한 책이 눈에 띄우자 들었던 책을 놓고 조심조심 그 책을 펼치였다. 앞부분에는 병사의 격언과 구호들이 가로 혹은 세로 썩여져있었다. 일기는 군복을 입은 첫날부터 시작하여 신병훈련시절과 구분대에 배치될 때의 느낌, 기쁨, 감격, 환희와 병사생활 전반을 꾸밈없이 또박또박 적어넣었는데 어떤 줄은 눈곱이 뜨겁기도 하고 어떤 내용은 해학적이기도 하였다. 나는 일기장을 펼치다가 접중화에 대한 글이 나오자 눈길을 모았다.

...

흐릿했던 하늘은 한낮이 되면서 맑게 개였다. 중대의 교양실앞에 줄지어 심은 접중화는 현란한 햇빛을 받아서인지 더더욱 아름다와보였다. 늘 보는 꽃이었지만 정문보초군무를 서며 그 꽃밭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은 끝없이 즐겁기만 하다. 누가 처음 심고 가꾸기 시작했는지 모르나 중대의 전사들은 누구나 접중화를 사랑한다. 틈만 있으면 꽃밭에 나와 잡초도 뽑아주고 호미로 흙도 복돋아준다. 또 가물을 탈세라 아침저녁으로 물을 주어 언제나 푸르싱싱하다.

나도 꽃밭앞에 서면 절로 마음이 든든해지고 즐거움에 휩싸이군한다. 하여튼 군복을 입은지 몇달

밖에 되지 않지만 접중화는 나와 깊은 인연을 맺은 듯 친숙해진 꽃이다. 명상에 잠겨있던 나는 큰길쪽에서 경쾌한 경적소리가 울리는바람에 얼굴을 돌렸다. 여러대의 승용차들이 우리 초소쪽으로 올라오고있었다.

어느새 중대장은 벌써 군모를 바로 쓰며 앞마당으로 뛰어온다. 중대 차렷 구령을 주고 정보로 몇보 나가는데 어느새 마당으로 들어선 승용차안에서 만면에 햇빛같은 미소를 지으신분이 내리신다. 아! 오매에도 그리던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이시다. 그이께서는 인자하신 음성으로 《쉬엿하시오!》라고 하시며 중대장의 손을 따듯이 잡아내리시였다. 전사들은 쉬엿구령을 하기 바쁘게 와 달려나왔다. 옷동을 벗어던지고 전호작업을 하던 동무들, 근무준비를 하느라고 무기소재를 하던 동무들, 심지어 흰옷 입은 취사병까지 달려나왔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흠과 기쁨이 발린 전사들의 손을 무릅없이 잡아주신다. 오직 나만이 멀리서 차렷자세로 서있다.

(야! 저동무들은 얼마나 좋을가. 나는 왜 하필 이 시간에 보초군무 순번이 뻬담.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단데, 야! !)

경애하는 그이를 가까이에서 뵈고싶은 마음에 나의 눈길은 자꾸 저쪽 중대병실쪽으로 갔다. 그러나 다음순간 나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자각하고는 총부력을 꼭 틀어쥐었다.

일일이 전사들을 다 껴안아보신 그이께서는 동행한 간부들과 중대 군관들과 함께 중대병실이며 식당, 교양실들을 차례로 돌아보시였다. 우리 전사들은 너무도 뜻밖에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에 접해서 운동장에서 헤여질줄을 모른다.

한참후에야 운동장으로 나오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일군들과 함께 접중화꽃이 활짝 핀 꽃밭앞으로 다가가시여 넓은 잎을 쓰다듬어도 보시고 꽃향기도 맡아보기도 하신다.

구분대에 처음 배치되여올 때 구대원들이 나의 가슴에 달아주던 접중화꽃, 사격에서 《우》를 맞았다고 분대원들이 앞가슴에 송이송이 달아주던 접중화를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부드러운 손길로 쓰다듬어보신다. 우리 중대, 우리 초소는 복중에 복을 받았다. 경사라면 이런 경사가 또 어디 있겠는가.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꽃밭을 돌아보시던 그이께서는 전사들을 손저어 부르신다. 전사들은 감격에 목이 메여 《야!》하고 일시에 탄성을 지르며 달려가서는 그이의 옆과 앞에 오봇이 모여섰다. 어느새 사진사가 카메라를 들고 샷타를 누른다.

(야 이거 정말 속상하구나. 두번다시 없을 기회를 놓치고말았구나. 지금 저 사람들은 나같은건 생각

도 안할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속앓이를 하고있을 때 그이께서 나에게로 다가오시었다. 나는 꿈인지 생시인지 가늠이 가지 않았다.

《제일 수고하는 보조병 동무가 빠질번했구만…》

그이께서는 차렷자세로 서있는 나에게로 오시여 나의 팔을 끼며 어서 보조병을 잠간 교대해주라고 말씀하신다. 그러시고 나를 꽃밭앞으로 데리고가시었다. 그이의 손에 이끌려가면서도 나는 이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경애하는 그이를 우러르며 꿈같이 걸음을 옮기는데 《여기가 꽃이 제일 활짝 폈구만.》 하시는 그이의 우렁우렁한 음성이 울렸다. 그이께서는 그 꽃앞에 나를 세우시고 옷맵시도 보아주시고 총부혁도 잡아당겨주시며 보살펴주시고는 나의 팔을 꼭 끼시었다.

사진사는 재빨리 영광의 이 순간을 사진에 담았다. 찰칵 하는 샤타소리와 함께 뜨거운것이 가슴을 적신다.

잠시후 그이께서는 우리들의 앞으로의 사업과 생활에서 지침으로 될 강령적말씀을 주시고 중대를 떠나시었다. 우리들은 목청껏 만세를 부르며 그이께서 가시는 길 멀리까지 따라섰다.

오늘부터 집중화는 나의 꽃이다. 우리 전사들의 마음인양 총대처럼 꽃꽂이 올라간 대, 하나의 결가지도 없이 미출한 대에 화려하게 핀 꽃, 내 너처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따르는 길에서 자그마한 사심도 없이 충성으로 받들어가리라.

…

(…! 집중화와 이런 인연이 있었구나. 그런걸 모르고 뛰어다녔으니 무슨 일을 옮겨 도왔으랴…)

나는 천천히 머리를 돌려 그린듯이 누워있는 최문철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영원히 친위병으로 살리라는 그의 굳은 결심을 꽃피우도록 진심으로 도와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깊이 들었다.

나는 일기장을 다 읽은 다음 밖으로 조심히 나왔다.

4

탁상시계의 자명종소리에 소스라쳐 일어나니 새벽 다섯시였다. 나는 걸옷을 주섬주섬 걸어입고 문철의 집으로 갔다. 그가 밤새 고통속에서 모태기고 있는것만 같아서였다. 내가 그 집에 도착했을 때는 동녘 희끄무레 터울무렵이었다. 방안에 들어서니 마침 최문철은 잠결에 물을 찾고있었다. 나는 재빠르게 보온병을 기울여 한고뿌 채웠다. 그리고 고뿌를 받쳐들고 그앞에 가 섰다. 그는 인기척에 놀라 눈을 슬그니 뜨더니 점차 눈을 크게 뜨며 의욕어린 눈길로 나를 지켜보았다.

《아니 옥희동무가 어떻게?…》

최문철은 꿈 하고 기운을 쓰며 상반신을 일으키려 했다. 나는 급히 그의 잔등을 받쳐 일으켜 앉혀주고 물을 주었다. 고뿌를 받아들고 한모금씩 짧게 마시며 나를 자꾸 올려다보았다. 그는 뚫어지게 나를 바라보더니 정색해서 물었다.

《어떻게 또 왔소. 이 새벽에말이요.》

《어제저녁 동무가 심하게 앓는걸 봤기에…》

나는 그의 딱딱한 물음앞에서 당황하여 말꼬리를 얼버무리고말았다.

《나때문에? 난 열도 내리고 머리가 거뜬해졌는데 이제 다시 이런 길은 오지 마오.》

문철은 두눈을 내리칸채 엄숙하게 그루를 박으며 말했다. 부드럽던 그의 말투가 명령조의 말투로 변하니 온몸이 줄어드는것처럼 부자연스럽기 그지없었다.

(무슨 사람이 이렇게 꽃꽂하담, 방조를 받을줄도 아는 사람이 큰 일도 할수 있다던데…)

우리 둘사이에는 잉-전류가 흐르는 소리가 들릴만큼 침묵이 흘렀다.

문철은 그 침묵이 어색한듯 몸을 궁깃거리다가 옆에 있는 책을 집어들고 한마디 했다.

《참 좋은 책을 가져다주어 감사하오.》

고깝던 감정은 그대로 툭 쓰는데로 나갔다.

《그런 인사는 나한테 할게 아니예요. 기사선생에게나 톡톡히 하세요.》

《기사선생에게 할게 따로 있고 옥희동무에게 할 인사가 따로 있는게지. 정말 고맙소.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것은 온도와 습도로 화초의 성장을 조절하는데 있어서 내가 기록한것과 비슷한 점들이 있다는거요. 그리고 이 책은 해빛조이기와 밀거름주기에서도 많은 지식을 가르쳐주고있소.》

방금전까지도 고자세를 취하던 문철이답지 않게 말투는 다시 부드러워지고 눈빛도 은은한 빛을 뿜는다. 그의 모습을 보니 나의 마음도 자연히 풀어지는것 같았다. 밤새 앓고있으려니 생각했더니 그는 그 고열속에서도 그새 그 두툼한 책을 다 읽은것 같다. 정말 불같은 사람이였다.

문철은 그외도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무슨 까닭인지 귀가 멍멍거리며 잘 들리지 않는다. 나도 영예군인을 위해 할 일을 했구나 하는 생각으로 가슴이 울렁이었던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의 생각은 더더욱 깊어만갔다. 2월 16일까지는 한달 보름가량 남았는데 저 문철동무가 그날까지 불편한 몸으로 꽃을 피워낼가. 어떻게 하나 그 동무가 원하는대로 꽃을 피워야겠는데… 그 집 어머니 아들시중만 하해도 힘에 부치겠는데 꽃시중까지 들려면 얼마나 힘드실가....

내가 문철동무를 도와주면 어떨까? 그러자면 내

가 늘 그결에 붙어있어야했는데 사람들이 날보구 뭐라 하지 않을까?

나는 번거롭게 떠오르는 생각을 건잡지 못하며 토달토달 걸음을 옮겼다.

하루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다. 자연히 문철이 생각이 났고 그를 도와야 할 의무감이 나에게 꼭 있는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다보니 옆동무들은 웃음을 거둔 나에게 무슨 고민을 하는가고, 총각에게서 실련을 당했는가고 자꾸 시카스른다.

저녁에 나는 어머니에게는 비밀을 붙이고 언제나 웅성길게 나를 사랑해주시는 아버지에게만 결심을 이야기했다. 아버지는 말없이 나를 한참이나 지켜보다가 《네 결심대로 하거라!》 하고 한마디했을 뿐이다. 길게 말하기 좋아하지 않는 아버지의 성미를 아는지라 나역시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하여 나는 출근하자바람으로 휴가를 신청했다. 그랬더니 새해 첫달부터 웬일인가고 했다. 나는 얼굴을 붉히며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지배인동지와 당비서어머니는 좋은 일을 생각했다고 지지해주었다. 그날부터 나는 문철의 집으로 출근하였다. 내 이야기를 들은 문철의 어머니는 좋아하는 하면서도 걱정어린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니 걱정마세요. 우리 부모들도 우리 직장에서도 다 나를 지지해주었어요.》

《글쎄 그렇기는 하겠지만 내 마음은 개운치 않구만.》

어머니 역시 아들처럼 남의 동정을 받기는 싫은 모양이었다. 그러거나말거나 나는 이 집에서 내가 할 일을 찾아냈다. 나는 어머니가 하던 일을 도맡아 화분에 물도 주고 해빛을 따라 화분을 옮겨도 놓고 아궁에 불을 때기도 하였다. 그렇게 하루종일 돌아가느라면 팔다리가 빠근하고 머리가 핑 돌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게 무슨 대수랴. 2월의 명절날 아침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울수만 있다면 몇날 몇백밤을 지새운대도 힘들것 같지 않았다.

그럭저럭 날이 흘렀다. 그런데 문제로 되는것은 문철이가 말을 적게 하고 시뭇한 눈길로 나를 대하는것이였다. 처음에는 몸이 불편하니 그러려니 했는데 날이 갈수록 뺨대의 빛은 더해만 갔다.

왜 그럴까. 것처럼 기뻐하던 그가 왜 저런 태도를 보일까. 내가 혹시 문철에게 있어서 불필요하거나 거치장스러운 존재로 되는건 아닐까 하고 생각도 해보았으나 그런것 같지도 않았다. 그는 나에게 시키던 일도 어머니를 찾아서 하게 했고 잔심부름마저도 나를 외면한채 어머니를 불러댔다. 문철이 나를 똑하게 대하자 우리 사이는 자연히 어색해지고 이렇게 뺨대를 받으면서도 계속 그를 도와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며 저지기 위축되였다.

어느날 나는 그의 책상앞에서 한장의 류다른 편지를 보게 되였다. 연한 색깔로 꽃을 그려넣은 봉투에는 《최문철앞》 하고 《정연순올림》이라고 써여있었다. 속지는 결봉투옆에 놓여있었는데 나는 녀자의 이름에 호기심이 동하여 저도 모르게 편지를 집어들었다. 몇줄 읽어보니 한달후에 제대되니 기다려달라는 소식과 함께 영원한 길동무가 되겠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편지를 채 읽지 못하고 책상우에 도루 놓았다.

(문철동무의 애인?! 아, 그래서 나를 멀리하려 했구나. 애인이 오면 나때문에 오해를 받을가봐 걱정되는 모양이지. 이 맹공인 그런 눈치도 모르구... 그럼 이젠 어떻게 해야 할까?)

가슴이 후둑후둑 뛰었다. 영예군인을 돕겠다고 모든걸 제쳐놓고 달려왔던 나였지만 그 순간엔 행동방향이 도무지 서지 않았다. 그리고 마음이 허전해졌다.

(왜 그럴까? 내가 문철동무 도와나선건 사랑을 위해서가 아니였겠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받들려는 영예군인인 그의 열정, 그의 지성, 그의 꿈을 동무로서 도와주려는 목적이었어... 그래 그랬어...)

나는 무엇인가 잃은듯이 허우룩해지는 마음을 달래며 자신을 위안하였다. 아래방에 앉은 최문철의 눈길이 나에게 못박혀있다는 감이 들었으나 인차 그앞을 뜰수 없었다. 한참후에야 아래방으로 내려서는데 문철이 벌기우리해진 얼굴로 나를 어쭈게 바라보는것이였다.

《옥희동무, 저...》

나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보이며 탄청을 했다.

《아궁에 불이 다 사였겠어요.》

나는 밖으로 나왔다. 흐릿한 하늘에서 진눈까비가 내리고있었다. 나는 아궁에 장작을 몇가지 밀어넣고 쭈그리고앉았다. 눈에 젖은 나무가 불느라고 칙칙거리며 연기를 꾸역꾸역 피워올렸다. 손바닥으로 턱을 고이고 아궁앞에 앉았노라니 연기때문인지 아니면 야속한 문철에 대한 원망때문인지 눈물이 자꾸 흘러내렸다.

한참후에야 아궁에서는 장작불이 탁탁 소리를 내며 타번지기 시작했다. 이글거리는 불속을 들여다보니 점차 마음이 안정되고 뺨담해지였다.

(그가 뭐라든 난 문철동무의 애인이 올 때까지 그의 일을 진심으로 도와주자. 그가 원하는대로 2.16일에 꽃이 활짝 피어나도록 정성을 다할테다. 난 무엇을 바래서 이 일에 나서지야 않았으니까.)

나는 아궁앞에서 일어나 머리수건을 풀어 옷에 앉은 먼지를 털어버리고 옷매무시를 바로한 다음 방으로 들어섰다.

문철은 아직도 얼굴이 벌겋게 상혈되어서 제먼저 입을 열었다.

《옥희동무, 계 좀 앉소.》

나는 말없이 그가 하라는대로 한쪽구석에 앉았다.

《그간 나를 위해 동무가 바쁜 시간을 내어 수고를 많이 했는데 이제 가보아야 하지 않겠소? 동무의 성의를 난 일생동안 잊지 않겠소...》

그의 마지막말은 떨리는듯싶이 울려나왔다. 그가 이렇게 나오리라고 생각 못해본것은 아니었지만 이 순간 나는 아연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어쩌면 이럴수 있는가.

조용히 머리속인채 앉았던 나는 머리를 들고 소용돌이치는 가슴속 걱정을 누르며 담담히 말했다.

《문철동무, 전 동무가 나를 일생동안 잊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나선건 아니예요. 동무의 가슴속에 간직된 불타는 충성의 마음이 곧 저를 이리로 이끌어왔어요. 가고 안가고 하는 문제는 내 권한에 속한 문제니 더는 간참마세요. 여기 접중화들이 하나같이 활짝 피어나면 전 제 일터로 돌아가겠어요. 이젠 제가 당조직앞에 스스로 받은 분공이에요. 기다리는 애인이 있어 근심하는 모양인데 그런 걱정은 마세요.》

흥분된 내 마음과는 달리 내 목소리는 거침없이 또랑또랑 울려나왔다. 그 소리는 자그마한 공간도 비움없이 방안가득히 꽉 채우며 공명되는듯싶었다.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앉았던 문철은 뜻밖의 반격에 놀란듯 몸을 일으키는데 한껏 커진 두눈이 뚫어질듯 나를 쳐다보는것이였다. 순간 나는 그의 술많은 눈썹밑에서 확 불길기 이는듯이 피어나는 불꽃을 보았다. 나는 그 눈길을 피해 노란 장판바닥만 자꾸 문다지였다.

한참이나 시간이 흘렀으나 그에게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다. 지루한 침묵이 계속되기에 얼핏 머리를 드니 나의 마음속까지 투시하려는듯 그의 까만 눈동자가 나를 여전히 주시하는것이였다. 나는 그 눈길을 피하여 도로 머리를 숙이였다. 그 눈빛을 보니 가슴이 두근두근 놀뛰였다. 나는 더 앉아있을수 없어 움쭉 몸을 일으켰다.

《옥희동무, 잠깐만...》

그 순간 그의 목소리가 나를 붙잡아세웠다. 나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한채 그냥 서버렸다.

《옥희동무, 사실... 난...》

문철의 목소리가 도간도간 끊기며 울려나왔다. 그리고는 목이 마른지 옆에 있는 보온병에 손을 뻗

치는것이였다. 나는 얼른 달려가서 보온병의 물을 따른 고뿌를 받쳐들었다. 그 순간 그의 두손이 고뿌를 쥔 나의 손을 꼭 움켜쥐는것이였다. 더운물이 출렁출렁 두손등우로 흘러내렸다.

《어마나!》

당황한 나는 외마디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들고보니 활활 타는 눈빛이 눈앞에 있었다. 나는 몸둘바를 몰라서 머리를 숙이며 손을 빼려는데 그의

손은 내 손을 더욱더 꼭 그러쥐는것이였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을 이어나갔다.

《옥희, 나를 용서하오... 사실 동무가 본 편지는... 내가... 쓴것이였소... 동무를 마음에 둔지는 오랫동안... 제몸도 제대로 건사못하는 내가... 어떻게... 그래서 우정 동무를 멀리했었구... 그런데도 동문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나를 대하니... 내가 무슨 말로 감사를 드려야 할지...》

도간도간 끊기면서 울려나오는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불을 타고 줄줄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의 가슴에 와락 얼굴을 묻었다. 그리고 오래오래 흐느껴울었다. 이런 뜨거운 인간의 사랑을 받게 된 행복감에 눈물은 그냥그냥 썩처럼 솟아올랐다. 나의 어깨를 쓰다듬는 그의 눈가에도 뜨거운것이 흥건히 고여 빛나고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뇌이고 또 뇌이였다.

(오늘부터 접중화는 동무의 꽃이자 나의 꽃이예요. 우리 이 꽃처럼 한줄기에 영원히 붉게 피자요.)

2월의 명절날 아침이였다.

나는 삼륜차를 조심조심 큰길로 밀어갔다. 우리처럼 뜻깊은 이 아침에도 우리의 머리우에 위대한 태양을 주신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을 못잊는 사람들이 손에손에 꽃송이를 들고 그이의 동상으로 찾아가고있었다. 우리가 큰길에 나서자 사람들은 량옆으로 갈라서며 길을 내주는것이였다.

최문철은 그들에게 하얀 유리함속에서 활짝 웃고있는 꽃화분을 부쩍 머리우로 들어올렸다. 봉긋하던 망울을 터치고 고운 꽃잎을 곱게 편 접중화는 햇빛에 반사되어 방실방실 웃는다.

나에게는 그 꽃송이들이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영원한 친위병으로 살려는 문철의 마음이자 내 마음처럼 생각되어 볼수록 더 유정하게 안겨왔다.

봄날처럼 푸근한 대기속으로 사람들의 존경어린 눈길을 받으며 나는 삼륜차를 썩썩 몰아갔다.

아버지와 아들들

김성원

지금 우리의 청년들은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탄광, 광산, 농촌으로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초소에 저마다 자원하여 진출하고있다.

그리하여 제대군인소대, 청년작업반들이 온 나라 도처에 생겨나고 정다운 이웃들과 부모들을 도시에 남겨둔 젊은 부부들, 형제자매들이 앞다투어 어렵고 힘든 초소로 달려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속에서 자주적인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공산주의도덕기풍이 확립됨으로써 우리 인민들은 혁명적동지애와 의리, 혁명적량심을 가지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화목하게 살고있습니다.》

당과 수령, 사회와 집단, 동지들을 위하여 자신들을 바칠 열렬한 지향을 안고 당이 부르는 새 초소로 달려가는 우리의 젊은이들.

그들이 비록 낯설고 몸에 선 고장과 일터에 새 삶의 뿌리를 옮기였어도 흔들림없이 고장마다 일터마다 그 뿌리를 깊숙이 내릴수 있는것은 비옥한 토양이 되고 밀거름이 되어 그 뿌리를 품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때문이다.

전쟁로병이며 로당원이며 네 아들들 광산의 굴진공으로, 외동딸을 광산 압축기운전공으로 진출하게 한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석회석광산 채광4직장 중대장 장철수도 바로 그러한 사람들중의 한사람이다.

굴진공 세 아들

채광장을 떠나 경사급한 산정길을 내리고있는 장철수중대장의 너부죽한 얼굴에는 시종 심각한 고뇌의 빛이 지워질줄 몰랐다.

《중대장아바이, 그러다 넘어지겠수다. 내가 한말에 노염을 탄것이 아닙니까?》

뒤에서 주춤주춤 따라 걸으며 장철수의 위태로운 걸음을 보다못해 직장부문당비서 정광운이 던진 말이었다.

했으나 장철수는 대꾸 한마디 없이 걸음만 옮긴다. 련합기업소의 여러 직장들에서 일하던 세 아들들이 한날한시에 굴진공이 되어 자기가 일하는 채광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몇달전부터 얼굴에서 노상 웃음이 떠날줄 모르던 장철수였다.

이제는 내 소원이 풀렸다고 마음 폭 놓고 일터를 아들들에게 넘겨줄수 있게 되였노라고 내놓고 자랑하던 그가 갑자기 이렇게 피로와하게 된것은 사

실 정광운비서한테서 들은 이야기때문이었다.

방금전에 하루가 다르게 그 실적이 높아가는 셋째 동규의 갱막장을 대견한 마음으로 돌아보고 나오면서 정광운은 우스개삼아 이렇게 말했다.

《장아바이의 삼형제가 이젠 제법이웨다. 전교대에 나왔던 둘째 동철이녀석은 교대에 두 발과를 제겼더군요. 동규녀석은 정날이 무디여서 한발과 더 못했다면서 직장에서 자기네 삼형제를 잘 돌봐주지 않는다고 은근히 트집까지 걸지 않겠습니까. 허허허, 자기네 삼형제를 삼형제굴진공을 좀 내세워달라는 소리겠지요.》

정광운비서는 웃으며 한 말이였지만 장철수는 그것이 가슴에 탁 걸려 내려가지 않았다.

(뭘 돌봐주지 않는다구? 패썹한 녀석같은...)

장철수는 몇달전부터 굴진공으로 일하기 시작한 세 아들들 일에 너무도 무관심했던 자신을 아프게 돌이켰다.

생각해보면 동규녀석의 말이 그저 스쳐지날것이 아니었다.

얼마전에는 막장 암질조전이 나쁘다고 아버지도 모르게 여기저기 돌고다녀다니 세 아들이 끝내 조건이 좋은 새 갱으로 옮겨앉았다. 그리고 세 머느리들은 남편들이 굴진초소로 진출한 문제를 놓고 그런 힘든 일을 어떻게 한생 하겠는가고 남편들을 꼬드킨다고 안해가 근심스레 말하던것이 새삼스레 돌이켜졌다.

그러니 세 아들들이 몸은 새 일터에 옮기였어도 뿌리는 내리지 못하고 허궁 떠있는 셈이었다.

장철수는 당의 은덕속에 살아온 자신의 한생을 심심히 돌이켜보았다.

그는 전쟁시기 전선동부에서 싸운 전쟁로병이었다. 1953년 전승의 축포소리를 들으며 제대된 그는 광산의 착암공, 소대장, 중대장, 갱장으로 일하며 삶의 대부분을 채취공업전선에서 보내였다.

당의 배려로 6년전에 지방의 이름없는 자그마한 광산으로부터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석회석광산으로 소환된 장철수는 몇해전부터 자식들이 광산의 굴진공이 되어 자기의 한생이 바쳐진 그 일터를 넘겨받았으면 하고 은근히 기원했었다.

물론 그때 만아들 장동성은 회창광산에서 착암공으로 일하고있었으나 그는 자기와 너무도 멀리에 있는 자식이었다.

같이 끼고있는 자식들도 많았지만 둘째아들은 련합기업소 보수직장 제관공으로, 셋째아들은 광산발파대에서 발파공으로 일하고있었다.

넷째인 막내는 그때까지도 군대에 복무하였다.

장철수는 그래서 몇해전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외동딸 일화를 자기네 채광직장에 데려다 압축기운전공으로 일하게 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늘 광산에서도 첫공정이고 그중 힘든 초소이며 자기의 한생이 바쳐진 갱막장 굴진초소에 집중되어있었다.

그런데 지난해말 군사복무하던 막내아들 동일이 가 제대되어 웃으며 집에 들어선 대로부터 며칠후의 일이었다.

둘째인 동철이가 조용히 자기앞에 나타나더니 심중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아버지, 저와 동규, 동일이는 광산굴진공으로 진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젠 당이 우리 청년들에게 바라는것이고 아버지의 기대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장철수의 가슴에 솟구치는 기쁨이란 이루말할수 없는것이였다.

당장 얼싸 껴안으며 내 아들이 하고 웨치고싶은 심정이였다. 하지만 장철수는 가슴에 치미는 이 감정을 누르며 둘째아들의 등실한 얼굴을 새삼스레 쳐다보았다.

《그건 너 혼자만의 생각이냐 아니면 모두가 같은 생각이냐?》

《물론 동생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니다. 아버지의 의향을 묻기전에 동생들의 생각부터 알아보아야 한다.》

마음 내키지 않는 일은 시작하지 않는것만 못해. 네 동생들의 심장에 먼저 발동을 걸어라.》

그로부터 며칠후 세 아들은 나란히 아버지앞에 앉았다.

두 형님의 얼굴을 올릴 바라보고난 제대군인인 막내 동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3형제굴진공으로 광산에 진출하자는건 우리 세형제의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 순간 장철수중대장의 너부죽한 얼굴에 호합진 웃음이 피여올랐다.

얼마나 기다리던 이 순간인가.

《허허허, 장하다. 이해들아, 그러니 우리 집안은 6부자 광부일가가 되었구나.》

장철수의 눈굽에 번쩍이는 눈물을 용케도 훔쳐본 안해 전봉록녀인도 뜨거워오르는 걱정을 이기지 못해 돌아앉아 눈굽을 찍었다.

이렇게 되여련합기업소의 여러 직장에서 일하던 세 아들들이 세멘트생산의 첫공정인 굴진초소에 서게 된것이였다....

그날저녁 장철수중대장의 집에서는 가족회의가 열렸다.

굴진공 세 아들과 며느리들은 물론 압축기운전공인 딸 일화, 장철수의 안해까지 참가한 가족모임이였다.

아래목에 올방자를 틀고앉은 장철수가 침묵을 깨

뜨리며 입을 열었다.

《셋째야, 삼형제굴진공을 잘 돌봐주지 않는다고 네가 골반이를 했냐?》

《예? 골반이야 뭐... 아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하는 일이니 정날도 더 많이 깨뜨릴수 있구 정대도 더러 못쓰게 만들수 있는건데 이젠 오랜 굴진공들과 똑같이...》

안해 박춘영이 남편의 옷깃을 애꿎게 당겼으나 얼굴이 달아올라 그냥 내뱉던 동규는 아버지의 노성에 문득 말을 멈추었다.

《닥쳐라. 굴진공이 된게 무슨 큰 재새거리라고 엇드레질이나. 남달리 돌봐주었으면 하는 너의 그 속통에는 너희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은덕에 조금이나마 보답해야겠다는 량심이나 의리심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리기와 공명이 들어차있기때문이다. 너희들이 그런 덜된 생각을 하구있길래 찍하면 막장조건이 어떻게 착암기가 어떻게 조건과 구실이 많구 네 안해들의 입에서 그 힘든 일을 어떻게 한생 해내겠는가 하는 소리가 왕왕 나오는지다.》

장철수는 갑자기 심장이 아파나서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 순간 당의 은덕속에 살아온 한생이 일시에 눈앞을 스쳐지나며 송구하고 죄스러워지는 마음을 어쩔수 없었다.

못잊을 4월의 봄명절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선물, 세기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존함이 모셔진 표창장, 아들들에게 차례진 두칸, 세칸짜리 고급살림집과 그 집들에 놓아진 텔레비존 수상기며 가구들...

잠시후 입을 연 장철수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있었다.

《내가 너희들을 잘못 가르쳤구나. 자원해서 굴진공이 된 녀석들이니 이제는 만사가 제대로 된것처럼 생각하면서 공로자대우나 받으며 쉬어도 되겠다고 생각한 내가 어리석었다.》

아버이수령님을 잃은 슬픔으로 아이들마저 어른스러워지는 지금에 너희들이 어찌면 그럴수 있단 말이냐.

아버이수령님께서 세멘트문제로 오죽 심려가 깊으셨으면 세상떠나기 며칠전에 우리 련합기업소에서 생산해야 할 세멘트 톤수까지 찍어주셨겠느냐. 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한몸 바쳐서라도 받들어야 할 우리가 아니냐.》

그날밤 장철수중대장의 집에서는 오래도록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말아들

다음날 장철수중대장은 직장부문당비서 정광운과 마주앉았다. 한동안 창밖 한점을 피로운 얼굴로 응시하고있던 그는 꺼지게 한숨을 내그으며 입을 열었다.

《비서동무, 내가 당원구실을 잘못했수다. 전쟁로 병이구 로당원인 내가 세 아들이 굴진공으로 자원 해온것을 대견해하기만 하구 그애들이 이 산정에 뿌리를 착실히 내리도록 밀거름이 되어주지 못했수다. 그러구두 일터를 자식들에게 넘겨주구 편안히 설 생각을 하였으니...

이녀석들이 구실을 바루할 때까지 년로보장수속을 미룰가 하우다.》

《허허허, 너무 심각히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장아바이는 나라를 지켜싸운 전쟁공로자구 년로보장나이기도 되었는데 이제는 집에 들어가 쉬십시오. 동철이녀석들은 우리 당조직에서 맡겠습니 다.》

정광운은 기쁜 얼굴에 웃음을 담고 진정으로 권고했다.

《아니우다. 당조직이 못미더워서가 아니우다. 바르지 못한 속통들을 가진 녀석들을 비서동무에게 맡겨놓고 들어가면 내 속이 한시인들 편하겠소. 제발 내 진정을 막지 말아주시우.》

장철수의 목소리는 저음 떨리기까지 했다. 부문 당비서의 방을 나서니 낮교대가 끝난후여서 짧은 저녁해는 채광장산봉우리우로 기울고있었다.

하루사업을 총화하고난 장철수는 그길로 채광장을 향하여 산정길을 뚫아올랐다. 세 아들이 말아 내밀고있는 갱막장에 들어서니 마침 둘째 동철이와 막내 동일이가 교대를 인계인수하고있었다.

넘겨주고 넘겨받는 착암기며 정대며 기름통이며 각종 공구들을 일별하던 장철수의 술진 장미가 약간 휘어진 정대에 가뭇자 눈귀로 치솟았다.

《이런 정대를 형에게 넘겨주는 네 마음은 편안하냐? 창고에 가서 다른걸 바꿔다 인계해라.》

동일이 휘어진 정대를 둘러메고 갱을 나서자 장철수는 동철이와 함께 동일이가 발파해놓은 버력을 실어내기 시작했다. 그날 밤교대에 나온 동규, 교대를 넘겨주는 동철이와 함께 산정의 갱입구에 나란히 앉은 장철수중대장은 저 멀리 불빛찬란한 세멘트공장의 야경을 취한듯 바라보았다. 산정과채장으로 부터 세멘트공장으로 흘러간 벨트콘베아를 따라 형광등불빛이 아득한 붉은선으로 뻗어갔다.

이윽고 장철수는 두 아들을 돌아보며 감회깊은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공장이나. 6년전 우리 세멘트 공장을 찾아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잘 꾸려진 조종실에서 단추를 눌러 공장을 돌리니 이렇게 자동화된 공장은 자신께서도 돌릴수 있겠다고 말씀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그리고는 공장을 잘지었는데 설비를 알뜰히 관리해서 세멘트를 팡팡 뽑아내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었다.

그러구 그 한해전에 연합기업소를 찾아주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세멘트생산을 정상화하자면 석회석보장대책을 잘 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석회석광산문제만 놓고도 여러시간에 걸쳐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우리 광부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그토록 심려하신 세멘트생산의 첫공정을 맡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캐낸 이 석회석이 세멘트가 되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기쁨드릴 나라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서게 될것을 생각하면 아무리 일을 해도 힘든줄을 모르겠구나.

어버이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잊지 말고 우리 석회석을 더 많이 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을 충성으로 받들자.》

아버지의 말을 말없이 듣고있는 두 아들의 눈에 자책의 빛이 짙게 어리었다.

그날부터 장철수중대장은 자기의 하루사업을 끝내고는 어김없이 아들들의 갱에서 한교대일을 더하며 참된 광부의 녀를 물려주기 위해 애썼다.깊은 밤 산정의 외따른 갱에서 단독으로 굴진작업을 할 때에는 같이 밤을 새우며 천공배치를 하는 방법이며 착암기를 다루는 묘리도 익혀주고 눈보라가 채광장을 휩쓰는 강추위가 터져도 한밤중에 산정에 올라 물통에 불을 달아서는 착암기물을 뚫여주기도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막내 동일이가 교대시간 30분이 넘은후에야 헐떡거리며 갱에 나타나는 《비상사고》가 발생하였다.

언제보아도 교대시간이 다 되어서야 헤덤비며 갱에 올라오군하는 통일이였다. 장철수는 묻지 않아도 그것이 막내며느리 박춘실때문임을 짐작하였다.

로친네의 말에 의하면 막내며느리는 부엌일을 얼마 해보지도 못하고 고이 자란데다 새벽잠이 많고 성격이 늘어져서 노상 아침밥이 늦어진다고 하였다. 그날저녁 전에없이 막내아들집에 나타난 장철수는 의아해하는 며느리에게 웃으며 말했다.

《야야, 며칠간 난 너희집에 와있을가 한다. 여기서 광산까지 가자면 아무래도 좀 일찍 떠나야겠으니 아침밥을 늦지 않게 해주렴.》

전에없던 시아버지의 처사에 눈이 동그해진 안해에게 장동일은 눈을 찔 흘려붙이며 주먹질을 해보였다.

물론 그 며칠사이에 막내며느리의 새벽잠이나 느린 성미가 달라질수는 없었어도 아침밥이 늦어져 동일이가 헐떡거리며 산정에 치달아오르는 그런일은 그후에 더는 없어졌다.

이 나날들에 그들 굴진공삼형제는 산정의 초소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들 삼형제가 처음으로 월계획을 끝내였던 어느날 장철수중대장은 온 가족을 모아 성대한 총화모임을 가졌다. 이 뜻깊은 자리에서 동철이는 진중한 얼굴로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저희들은 어렵고 힘든 초소에 청년들을 부른 당의 의도를 이제와서야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희들은 한생 굴진초소에서 우리 당을 변함없이 떠받드는 나라의 맏아들, 당의 맏아들로 살겠습니다.》

《오냐. 그러구보니 우리 가정에서 딸이 동성이까
지 네 맏아들이 생긴 셈이구나.》

이날저녁 장철수의 얼굴에서는 시종 웃음이 사라
질 줄 몰랐다.

×

올해 초 중앙의 어느 한 신문은 광산굴진공으로

자원하여 진출한 장동철, 장동규, 장동일 삼형제가
한다하는 굴진공이 되어 매달 월계획을 200프로씩
넘쳐하고있으며 굴진소대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으
로 자라난데 대하여 소개하였다.

그리고 기사에는 낫설고 거친 굴진초소에 그렇듯
빨리 뿌리내린 그들 삼형제의 뒤에는 아버지인 장
철수로인이 서있다고 간단히 적혀있었다.

나는 사회주의의 초석이 되련다

최창일

마치 이 시각도
나에게 조용히 속삭여 주시는듯싶다
사회주의를 지켜가는 한길에서
당일군 내가 서야 할 위치에 대하여

당일군은 언제나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라고
그리고 간곡히 당부하시며
내 하루일과의 시간표를
몹소 짜주시는것만 같다

때없이 문을 두드리는
그 많은 사람들앞에서
당일군이기에 앞서
어머니로 동지로 나를 세워주는
위대한 로작의 구절구절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그 구절구절은
시각마다 나를 깨우쳐주더라
평범한 사람들과 다름없는
나도 이 도시의 한 주민임을
내 스스로 그 이름 불러
부끄럼없는 인민의 심부름군임을

내 오늘도 조용히 량심에 물어본다
우리 당위원회의 지봉을
저기 로동자구 사택의 추녀와
나란히 잇고 살았던가
내가 앉은 사무실의 이 의자를
어느 작업장 휴게실의 의자와
나란히 놓아본적 있었던가

생활은 가르치나니
내 마주하는 그 모든 사람들과

말이 통하고 피가 통할 때
그 오고가는 진정속에
사회주의는 더 밝아지더라

내 소박한 배낭 하나 등에 메고
이슬젖은 포전길
눈내리는 구내길을 걸어갈 때
사회주의는 인민의 마음속에
더 깊이 뿌리내리더라

자식들을 거느린 한가정의 어머니도
자기 구실 다하기 험치 않듯
천만 아들딸들을 품에 안은 우리 당
아, 어머니당의 당일군으로 살기는
정녕 험치 않아

때로 내 걷는 길에 잠이 모자라고
때로 내 하는 일에 힘이 부족
내 만약 생활에서 주저앉는 때 있다면
그때마다 로작은 나의 심장을
다시금 두드려 깨우쳐주리라

사회주의를 일떠세우는데는
계급의 진한 피가 바쳐져야 했지만
사회주의를 지켜가는데는
뼈가 부서져도 들여밀어야 할
그런 어깨가 있어야 함을

하여 내 그 어깨가 되련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한없는 사랑의 정치
인덕정치로 꽃피난
우리의 사회주의를 받드는
영원한 초석이 되련다
우리 당의 초석이 되련다!

영원한 모습

박만근

우리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 세멘트공장구내를 돌아보느라 나눈 지금도 때없이 눈물이 솟구쳐 주책없이 오열을 더치곤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환한 그 미소 공장구내 상공에 어리어있고 거룩한 그이의 발자취 곳곳에 깃들어 있어 한결음한결음을 눈물없이 걷는 옮길수가 없는 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인민에 대한 사랑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신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신 때로부터 어느덧 6년세월이 흘러갔다.

하지만 나의 망막에, 아니 나의 심장에는 시종 그렇게도 만족하시여 환하게 웃으시던 아버지수령님의 영상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벽화처럼 새겨졌다.

미소, 햇빛마저도 무색할 정도로 누리를 밝히는 아버지수령님의 미소!

위대한 수령님의 그 미소에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순간에 넋을 빼앗기고 매혹되어 그이를 따르는 열렬한 숭배자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마지막 영결의 거리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환하게 미소하시는 아버지수령님의 모습에 그만 넋을 잃고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며 통곡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로 우리 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는 그 30분간에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환한 미소를 나와 우리 종업원들의 가슴에 새겨 주시였다. 이 글을 쓰고있는 지금도 나의 눈앞에는 환하게 미소하시던 아버지수령님의 그 영상이 꼭 들어차있어 건잡을새 없이 눈물을 솟구치게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그렇게도 만족하시여 환하게 미소하신것은 정문앞에서 차를 멈추시여 세멘트공장전경을 부감하실 때부터였다.

잊지 못할 1989년 4월 2일,

소문도 없이 부하시운전을 하고있는 우리 연합기업소에 찾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연합기업소 당위원회 사업을 맡고있는 나와 영접나온 일군들의 인사를 받으신후 공장전경을 한동안 바라보시다가 지금 공장이 돌아가는가고 물으시였다. 공장굴뚝에 연기 한점 볼수 없고 기계소음조차 없으니 이렇

게 물으신다고 생각하는데 연합기업소 기사가장이 공장이 지금 잘 돌아가고있다고 말씀드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어 하루 세멘트생산량까지 확인하고나서 대단히 만족하시여 환하게 웃으시였다.

그리고 중앙조종실에 들어서시여 조종탁우에 놓인 생산공정보고작성인쇄기와 프로그램작성기, 공정정보직시장치, 소성로내부온도감시용 산업텔레비죤수상기 등 자동화된 공정기구들을 돌아보시면서 시종 만족한 얼굴로 세멘트생산공정에 대한 해설을 들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중유를 쓰지 않고 우리 나라에 흔한 무연탄을 리용하여 새로운 소성방법으로 세멘트를 생산하는데 대하여 대단히 만족해하시였다. 그렇게도 만족해하시는 아버지수령님의 모습에 용기가 솟구친 나는 석회석원료의 반입, 반출로부터 세멘트분쇄에 이르는 전공정을 4명의 조종사가 여기 척 앉아서 조종한다고 말씀드렸다. 외람된 나의 말을 탓함이 없이 들으시고 조종사들의 작업모습을 한동안 지켜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4명의 조종사들이 텔레비죤화면과 전자계산기, 자동화계기들을 통하여 모든 생산공정을 감시하면서 생산을 지휘하는것이 아주 멋있다고 조종실에 앉아서 모든 생산공정들과 로반의 벽돌상태까지 다보면서 생산공정을 돌리니 일하기가 재미나겠다고 대단히 만족해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수령님께서서는 수원들쪽을 돌아보시며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조종단추로 누르는 동작을 해보이시면서 이렇게 자동화, 원격조종화된 공장은 나도 얼마든지 돌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라고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아버지수령님의 그 웃음은 옆의 사람들도 따라웃지 않고서는 배기지 못하게 하는 매력이 있고 특유한 그런 웃음이었다. 그렇게도 만족해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는 순간 다소나마 아버지수령님께 기쁨을 드렸다는 커다란 행복과 함께 이날을 마련하시기 위하여 기울여오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심혈과 로고가 가슴뜨겁게 헤아려졌다.

사실 우리 연합기업소는 늘어나는 세멘트의 수요 때문에 근심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건설을 맡기하시고 2차의 현지지도와 수백차의 강령적말씀 및 지시를 주시면서 현대화, 자동화의 본보기공장으로 일떠세워 주시였다.

지금도 공장을 참관하는 외국사람들이 한결같이 칭송하는바와 같이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아버지수령님의 **《이민위천》**의 뜻을 그대로 이으시여

공장보다 먼저 노동자들의 살림집부터 건설하는 전례없는 산업건설방식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군들로부터 이에 대해 들으시면서 그러면 인민들이 좋아할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 식 산업건설방식이라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중앙조종실에서 나오시여 원료직장쪽으로 걸음을 옮기시면서 공장전경을 다시한번 둘러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공장이 정말 깨끗하다고, 생산공정에 제진장치를 잘했기때문에 먼지가 하나도 나지 않는다고 기업소로동자들이 좋아할것이라고 다시금 환하게 웃으시였다. 그 모습을 우러르는 순간 나는 우리 로동자들을 위해서는 아낄것이 없다고 하시며 막대한 자금을 아낌없이 내시여 가장 발전된 제진기술과 설비들을 받아들이도록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은덕이 고마워 눈시울이 젖어움을 어쩔수 없었다.

식사시간이 훨씬 지났다는 일군들의 간청도 만류하시고 이제는 차를 타고 공장을 한번 돌아보자고 하시면서 나의 손을 이끌어 자신의 옆자리에 앉혀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공장을 떠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시종 환하게 미소하시며 공장의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였다.

인류의 위대한 태양, 위인중의 위인이신 아버지수령님과 영결한 오늘에 와서 위대한 수령님의 4월 현지교시를 생각할 때면 곧 아버지수령님의 그 환한 미소가 떠오르고 위대한 수령님을 받드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충성과 효성이 이렇게 높고 지극한것이였구나 하는 깨달아짐에 가슴이 뜨겁고 숭엄해짐을 어쩔수가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비록 우리결을 떠나가시였으나 아버지수령님의 그 미소는 이와 같이 나의 심장에, 아니 인류의 가슴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모습으로 새겨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생의 마지막순간에 또다시 우리 련합기업소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우리가 생산하여야 할 세멘트톤수까지 정해주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최근에 자신께서 발기하여 건설한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가 크게 은을 내고있다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의 교시,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의 것처럼 큰 신임앞에 우리 세멘트 생산자들의 심장이 어찌 뛸뛰지 않겠는가.

그래서 슬픔의 7월과 8월에도 그 슬픔과 아픔을 디디고 올라 세멘트생산계획을 넘쳐했고 올해에도 역시 년초부터 생산정상화의 동음 세차게 울리고있다. 그리하여 우리가 생산해서 떠나보내는 세멘트가 청류다리(2단계)와 금룡2동굴로, 당창건기념탑으로 나라의 만년대계기념비들로 다투어 솟아나고 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우리결에 계시지 않아도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기에 우리는 용기백배하여 생산에서 변함없는 양양을 일으켜나가고있다.

우리는 아버지수령님을 모시던 그날처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받들어모시며 그이께 기쁨만을 드리리라.

그러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련합기업소에 오시여 것처럼 환하신 미소 지으신것처럼 경애하는 그이께서 또다시 우리를 찾으시여 봄날처럼 환하신 미소를 보내실것이다.

우리는 영원한 태양의 그 미소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충성의 한길을 변함없이 이어갈것이다.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책임비서)

가사

투쟁은 우리의 승리

안근배

하늘땅 바다에서 내 조국 노리며
간악한 원썬놈들 불구름 몰아올 때
필승의 신념을 안고서
우리는 맞받아나갔네
양보와 후퇴는 죽음뿐
투쟁은 투쟁은 승리다

강철의 우리 령장 안겨준 그 신념
단매에 원썬부실 용맹을 주었네
총포탄 날리지 않아도

이 신념 지키며 이겼네
양보와 후퇴는 죽음뿐
투쟁은 투쟁은 승리다

원썬들 또다시 덤벼여든다면
멸적의 총창 들고 번개쳐 나가리라
불패의 우리 힘 떨치며
조국의 존엄을 지키리
양보와 후퇴는 죽음뿐
투쟁은 투쟁은 승리다

풍만한 서정속에 안겨오는 동지애의 심오한 철학

-서사시 《동지》(김희중)에 대하여-

김성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의 구호를 우러를 때면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가장 고결하고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시고 수령과 혼연일체를 이룬 혁명전사들사이에 맺어진 동지적 사랑과 의리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 주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모습을 그려보게 된다.

어버이수령님이 한없이 그리워질 때마다 그와 더불어 한가슴 그득히 못견딜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기록하신 영상! 영원히 퍼내고 또 퍼내어도 진할줄 모르는 시상의 바다가 그속에 있고 영원히 따르고 또 따라도 끝을 모르는 매혹의 빛깔이 그속에 있다.

1

동지! 이 말의 참뜻을
가장 고귀한 혁명가의 이름으로
가장 충직한 충신의 이름으로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이름으로
가장 값높은 시대의 호칭으로
빛내여주신 김정숙동지!

-제6장에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인류문학사는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인정과 의리에 대한 형상화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지난날의 시인들은 권력과 황금의 속박을 물리친 인간사랑의 미덕을 걱정해 넘쳐 노래불렀다. 지어 그것은 계급이나 정치의 리념보다 더 높은 《영원》하고 《전인류적》인 진선미의 리상으로 칭송되었다. 그러나 수천만권을 헤아리는 그 모든 작품들은 그 기초에 놓인 각이한 세계관의 본질적약점으로 말미암아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념원에 부합되는 인간사랑의 완성된 화폭을 보여줄수 없었다. 그 위업은 오로지 사회정치적생명체를 형상원천으로 하는 주체사실주의문학의 기쁨진 화폭우에서만 빛나게 실현될수 있었다.

서사시 《동지》를 펼치라. 그 페이지마다에 격동적으로 구가된 인간사랑의 송가를 읽으라. 그러면 우리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지니신 혁명적동지애가 어떻게 수령을 중심으로 대중을 일심단결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합시키는 인간애의 최고절정으로 되고있는가를 알수 있을것이다.

서사시 《동지》가 우리에게 주는 커다란 감동과 매력은 지난날의 모든 인정, 의리의 세계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혁명적동지애의 세계를 주체의 관점

에서 심오히 파고들면서 그것을 산 인간의 후더운 숨결과 목소리에 담아 생동한 형상적화폭으로 실현한 진실성과 철학성에 있다. 그러면 시인은 이 작품에서 동지애의 철학을 풍만한 서정속에 어떻게 구현하였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동지와 동지애의 의미를 수령과 전사사이에 필연적으로 맺어지는 혈연적관계속에서 해명한다.

서사시에서 동지애의 문제를 안고있는 기본인물관계는 김정숙동지와 너대원 철옥이다. 하지만 시인은 김정숙동지께서 철옥에게 안겨주시는 한없이 숭고하고 열렬한 동지애의 《원샘》을 정치적생명의 은인이신 어버이장군님의 품에서 찾고 수령께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혁명전사의 자세와 결부하여 형상을 철학적으로 심화시키고있다. 김정숙동지에게 있어서 철옥은 단순히 인간의 도리로써 동정과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장군님의 사랑, 장군님의 심려속에 안겨있는 동지인것이다. 하기에 김정숙동지에게 있어서 철옥이와의 관계는 곧 장군님과과의 관계속에서 인식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작품에서 주체형의 인간전형의 아름다운 소행과 빛나는 공적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된 충성과 효성의 세계를 깊이 파고들어서 생동하게 그려야 한다.》

시인은 바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이 가르치심에 충실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앞에서는 한점의 티도 없이 순결하고 순간의 사실도 없이 헌신적인 충신중의 충신이신 김정숙동지의 아름다운 인간세계안에 그이께서 지니신 동지애의 세계를 보석처럼 정성껏 다듬고 또 다듬어 불멸의 화폭으로 수놓아 펼쳐준것이다.

삶에 필요한 모든것에 비해보면 말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천고의 밀림속, 정신이 혼미해질듯 끝없이 흘러드는 신비로운 정적에 묻힌 작은 풀막앞에서 김정숙동지께서는 버섯을 따고계신다. 식찬을 위해서인가? 아니다. 풀막입구에 달아놓고 장군님께서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스물아홉살을 헤아리기 위한 《일력》인것이다. 그런데 왜 하필 버섯을?...

우리가 식물학상의 한 종이나 생활상의 한 식찬거리로 알고있는 이 버섯은 김정숙동지께서 지니신 동지애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된 충성의 세계를 감명깊게 펼쳐보여주는 뜻깊은 세부로 령롱한 빛을 뿌리기 시작한다.

버섯은 그저 버섯이 아니다. 버섯은 장군님께서 즐기시는 산나물이기에 그이의 식사보장을 위해서

언제나 버섯처럼 파시게 되던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버섯만 보아도 장군님 모습이 어려오고 장군님 음성이 들려와 함께 계시는듯 눈물겨워진다. 그렇게 마음속에 뿌리내린 버섯이기에 지금은 식찬이 아니라 한 동지를 기어이 살려내라신 장군님의 기대에 보답할 하루하루의 날자를 세여보는 충성의 《일력》으로 된것이다.

그 버섯과 더불어 장군님의 안녕에 대한 끝없는 심려에 잠기시는 김정숙동지의 심중에서 자신이 맡아안으신 이 한사람의 동지는 과연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있는가.

...장군님에게는
한사람한사람의 대원이
하나가 모여 열이 백이 되는
단순한 수자가 아니였다

인간의 크기는
그 한사람이 있어서
얼게 되는 천만대중
그 한사람이 없어서
잃어버리는 천만대중

그 한사람이 있어서
얻을수 있는 승리를
그 한사람을 잃어서 얻지 못하는
심장의 아픔의 크기

-제1장에서-

하기에 철옥이는 지휘관도 명사수도 아닌 작식대의 평범한 한 전사이지만 반드시 살려내여 장군님 곁에 세워주어야 할 《천만대중》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 바로 그래서 김정숙동지께서는 솔선 자원하여 이 밀림속에 남으셨으니 밀림은 텅 비였어도 김정숙동지에게는 가장 큰것, 《그것이면 이세상의 무엇이든 있게 하는 장군님의 믿음의 힘》이 있다. 때문에 그이께서 매일매일 파시는 한송이한송이의 버섯은 언제나 장군님의 그 믿음을 잊지 않고 장군님의 품으로 한사람의 동지를 부축하고 한걸음한걸음 다가가시는 신념과 의지의 상징인것이다.

바로 그 버섯송이들은 무엇을 속삭이는가. 시인은 한 너대원의 소생을 위해 김정숙동지께서 기울이시는 극진한 정성과 사랑이 단순한 인간적의리나 인정이 아니라 곧 장군님의 위업을 받드는 숭고한 희생이었으며 장군님께 바치는 고결한 충성이었음을 뜨겁게 노래하고있다.

시인은 김정숙동지께서 지니신 이 동지애가 어버이장군님께서 지니신 인간사랑의 위대한 사상과 고매한 덕성에 뿌리박고 꽃피는것임을 감명깊은 예술적형상으로 시화함으로써 동지애의 철학을 최상의 경지에서 심화시키고있다.

위급한 상황이지만 행군대오를 멈추시고 대원을 기어이 살려야 한다고 것처럼 마음쓰시던 장군님, 한달이면 꼭 찾아오시겠다시며 한달 식량으로 털어

놓으신 마지막 비상미 두되가 너무 적어 걸음을 못 옮기시던 장군님, 예로부터 약이 하나라면 정성이 아홉이라 하시며 고통스레 짓누르는 밀림의 고독속에 때놓고가는 두 너대원을 몇번이고 뒤돌아보시던 장군님의 그 모습과 그날의 무거운 발자국소리가 김정숙동지의 한가슴을 가득 채우고있다.

은정의 무거운 배낭을 지고 떠났던 두 전령병이 원썩들의 습격을 받아 불타버린 풀막자리만 보고 되돌아왔을 때 장군님께서는 도저히 믿을수 없다고, 밀림속 그 어디에 반드시 살아있을것이라고 힘주어말씀하시며 다시 전령병들을 떠나보내시는것이다.

시인이 노래한것처럼 이 사랑과 믿음의 샘에서 장군님을 떠나서는 삶의 보람도 미래도 생각할수 없는 전사들의 절대적 신념이 태어났다. 바로 이 믿음의 뿌리에서 김정숙동지께서 철옥에게 안겨주시는 것처럼 아름답고 진실하고 희생적인 동지애가 피어났다.

하기에 김정숙동지께서는 약속된 날자가 되었을 때 주저없이 이전 풀막자리로 다시 옮겨가시었고 위험하지 않는가고 놀라는 철옥에게 단호히 말씀하시였다.

《물론 이자리에서도
또 연락장소에 가셔도 맞이할수 있어요.

하지만 그에서는 안돼요.
우리는 반드시 장군님 약속하신 그자리에서
장군님을 먼저 기다리고있어야 해요...》

-제6장에서-

장군님의 약속을 크나큰 믿음으로 받아안으셨기에 추호도 그 약속을 어길수 없다는 너전사의 신념이 드디어 상봉의 기쁨을 안아왔을 때 장군님께서는 철옥동무를 보게 된것이 천만대적을 소멸한것보다 더 기쁘다고, 정숙동무가 보여준 그런 동지애만 있다면 세상에 죽을 사람이 없다고 또다시 벅찬 믿음과 사랑을 주시는것이다.

그러기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불렀다.

그렇다 《동지》!
수천년 력사가 알지 못하는
이 뜨겁고 신심하고 숭고한 부름은
한별의 존함과 함께 태어나고
한별의 존함과 함께 영원히 있는 말

이 부름을 심장에 새겨안으시고
시련에 찬 혁명의 길을 헤쳐가시며
이 부름을 인륜사에 금문자로 새기신
그분이 바로 인간 김정숙!
그분이 바로 동지 김정숙!

이처럼 서사시는 우리 혁명대오에 수령을 중심으로 한 일심단결을 가져온 동지애의 력사가 《전사

들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그 믿음에 끝까지 의리를 다하는 전사들의 뜨거운 충성》에 의하여 마련된 영생의력사임을 소리높이 구가하였다.

2

네가 자유로이 나는 새라면
나는 가없이 펼쳐진 그 하늘

네가 곱게 피어난 꽃이라면
나는 그 뿌리를 적시는 달디단 즙
...

네가 여름밤에 꿈을 꾸는 별이라면
나는 그 꿈을 지키는 고요한 대지

네가 돌돌 흐르는 시내물이라면
나는 그 돌을 주옥으로 굴리는 물꾼

너 없이는 내가 없고
나 없이는 네가 없는 그 하나여
-제3장에서-

서사시가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지니신 한없이 아름답고 숭고한 동지애의 세계를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펼쳐보이게 된 또하나의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동지적 사랑과 믿음을 주고받는 인물들의 관계를 그들의 인생관에 기초하여 깊이있게 맞물려준데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작품의 인물관계는 실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상적인 관계, 운명적인 관계로 되여야 한다. 그러자면 인물들의 관계를 그들의 인생관에 기초하여 깊숙이 맞물려놓아야 한다.》

이 작품은 처음부터 마감까지 거의 대부분의 페이지에 두명의 등장인물만이 등장한다. 김정숙동지와 철옥이다. 그나마 철옥이는 열병환자로서 의식을 잃은채 있을 때가 태반이다. 생각컨대 시인에게 가장 큰 애로의 하나는 이 두 인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주어야 작품의 철학세계도 높이고 감정조직도 극적으로 심화시키겠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였을가.

형언할수 없는 고독의 세계에서 한달간을 《홀로》 지내야 하는 김정숙동지의 형상을 어떻게 그려야 할것인가. 남모르게 혼자서 환자에게 기울이는 정성과 정성의 화폭들만을 런던아 펼쳐보인다면 동지애의 철학이 인상깊은 생활속에서 감명깊게 풀려나올수 있겠는가.

여기에 물론 갈등이 있을수 없다. 오로지 동지적 사랑과 의리의 혈연적관계만이 있을뿐이다. 그러나 시인은 이속에서 《극》을 찾아야 하였고 문제성을 날카롭게 세워야 하였다.

시인은 두 인물의 관계를 그들의 인생관에 기초

하여 깊숙이 맞물리면서 그들사이의 교감을 의미심장하면서도 격동적으로 실현하는데 성공하였다.

...버섯송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장군님께서 지니신 인간사랑의 불길로 달구어진 너전사의 심장은 얼마나 희생적인 동지애와 강의한의지로 넘쳐있는가.

바다처럼 망망한 밀림속에서 열병에 좋다는 한줌의 록주옥같은 족두리풀을 찾아 높은 산, 험한령 다 넘으시며 풀덤불, 가시덤불 다 헤쳐보시던 시련의 발자국은 그 얼마?

폭풍에 날려 잣나무에서 떨어졌어도 잣송이만은 그대로 가슴에 안으신채 감각 잃은 다리를 끄고 풀막을 찾아오시던 의지의 나날은 그 몇번?

와들와들 떨며 헛소리를 지르는 동지의 입에 힘껏 깨무신 단지의 손끝을 물리시고 더운 피방울방울 넣어주시던 헌신의 시각은 그 언제?

끝이 없다. 네번째, 열다섯번째... 버섯송이들의 속삭임은 눈물에 젖어있다.

김정숙동지께서 동지에게 바치는 이 정성은 이미 앞에서 고찰한바와 같이 장군님의 기대에 보답해야 한다는 충성의 일념에 뿌리박고있다.

그렇다면 철옥이도 마땅히 김정숙동지께서 부여주시는 사랑과 믿음을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접수하고 이를 악물고 병을 이겨 기어이 살아서 기쁨을 드려야 하였다.

하지만 철옥에게는 무엇인가 부족한것이 있다. 자기를 위해 기울이시는 김정숙동지의 사랑이 얼마나 고결한 기대와 념원이 깃들어있는지 다는 알수 없었다. 자기때문에 김정숙동지께서 잘못될수 있다는 위구심, 자기가 김정숙동지의 《우환거리》라는 자책감, 자기가 차라리 죽어야 김정숙동지를 구할수 있다는 각오... 그리하여 철옥은 김정숙동지께서 안계시는 사이에 편지 한장 남겨두고 풀막을 떠났다.

그러나 사라진 철옥이를 찾아 《땀이 아니라 기름방울을》 흘리며 안타까이 숲속을 달리는 김정숙동지의 내면세계는 어떠한가.

정숙동지께서 안타까이 가슴을 두드리신다
(철옥동무! 내가 사령부로 가는 날은
동무가 나아서 걸어가는 날이예요
동무와 함께 오라는것은
장군님이 주신 명령이예요

동무가 잘못되면
내가 장군님앞에 나설수 없다는것을
동무는 왜 몰라요

나 한사람이 무엇인가구요?
장군님의 전사 한사람한사람이
천만 동지라는것을
동무는 왜 몰라요

병을 고칠 가망이 없대구요?

아무래도 죽을 사람이라구요?
그 나약성이 끝내는
혁명에 대한 배반이 된다는것을
동무는 왜 몰라요

-제4장에서-

바로 이렇게 충신이 지닌 혁명적동지애의 세계는
철옥이에 비해 천백배 높은 위치에서 빛나고있다.

물론 동지를 위해 차라리 자기가 죽으려는 철옥
의 정신세계는 이해된다. 그러나 장군님을 위하여
기어이 살아야 하고 나약하게 죽으려는것은 장군님
과 혁명에 대한 배반이라고 보시는 김정숙동지의
정신세계는 훨씬 더 숭고하다.

서사시는 한결을 더 나아가 그들이 지닌 인생관
의 차이를 예리하게 부각시키고있다.

철옥에게는 김정숙동지앞에서 더 놓이지 못한 량
심의 그늘이 있다. 왕우구에서 혁명동지 광동무가
억울하게 《민생단》에 몰려 희생당할 때 가증스런
왕가놈의 횡포에 놀려 무거운 손을 들었던 기억이
가시처럼 량심에 박혀 그를 괴롭힌다. 하지만 그
일만은 누구에게도 말 못하겠다고 철옥은 생각한다.
목숨이 아까와선가? 심판이 두려워선가? 아니다.
목숨은 바칠수 있어도 동지를 위하여 땀땀치 못한
치욕은 누구의 기억에도 남기고싶지 않은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철옥의 인생관에 아직도 자기라는
개인의 몫이 남아있음을 본다. 아직도 진정한 동지
의 사랑으로 다는 정화되지 못한 위선의 흐리터분
한 그늘을 본다.

철옥은 김정숙동지께서 사선을 헤치고 데려오신
《인술의원》 의사의 치료를 받아 완전히 소생한 그
날 마침내 《흐려진 눈동자, 넓어진 마음으로 더는
마주설수 없는》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 량심의 이
《죄》를 털어놓는다. 그때 김정숙동지께서는 너그
로우신 웃음을 지으시며 이미 알고있었다고, 그것
은 철옥동무의 피가 아니라 왕가놈의 모략이었다고
말씀하시며 대변에 오래도록 가슴깊이 박혀있던
《가시》를 훌 뽑아 하늘공중에 날려버리시는것이
다.

이렇게 동지애의 화신 김정숙동지의 품속에서 육
체의 병만이 아니라 량심의 《병》까지 털어버리고
몸도 마음도 새롭게 소생한 철옥은 흰천에 수놓은
아름다운 진달래우에 《동지》라는 두글자를 아로
새긴 손수건을 영원히 참된 동지로 살려는 맹세를
담아 김정숙동지께 올리게 된다.

시인은 대담하게 김정숙동지와 철옥의 인간관계
를 그쳐 동지적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만이 아니라
인생관의 견지에서 일련의 본질적차이를 가지고 일
정한 곡절을 거쳐서야 하나로 뭉쳐가는 사상적관계,
운명적관계로 깊이있게 맞물려줌으로써 작품의 사

회적문제성을 철학적으로 더 심화시킬수 있었고 나
아가서 이야기줄거리의 단조성을 피하고 극성과 감
정조직의 굴곡을 조성할수 있었다.

3

세상에 이런 사랑도 있던가
피도 살도 나누어주고
죽음도 막아주는
땅처럼 순진하고
공기처럼 맑고
불길처럼 뜨겁고
해빛처럼 따사로운 사랑

-제5장에서-

서사시는 주체의 인생관에 기초하여 김정숙동지
께서 지니신 혁명적동지애의 의미를 예리한 지성이
비낀 자유분방한 서정도로써 정론적으로 개방하
고있다. 자칫하면 철학상의 생경한 논리가 우세하
여 생동한 형상을 통해 안겨오는 생활정서가 빈약
해질수 있었다. 그러나 서사시는 동지애의 철학을
풍만한 서정에 담아 감명깊게 전달할수 있었다. 어
떻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
적하시였다.

**《문학작품은 생활속에서 철학을 이야기하고 철
학적인 심원한 사상을 꾸밈없는 생활적형상을 통
하여 밝혀내야 뜻깊고 가치있는것으로 될수 있
다.》**

철학과 생활의 통일- 바로 여기에 이 서사시의
가장 중요한 예술적특징이 있고 이 시인의 로숙한
기량이 있다.

형상의 매력은 작가의 의도를 생활속에 깊숙이
몰아두고 그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자면 형상보다 결론을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

서사시와 같이 서사성과 서정성이 통일된 문학형
태인 경우 생동한 생활묘사가 있기전에 서정도로써
앞세우지 말며 철학적인 서정도로써 내뿜을 때에
도 직선적인 논리적호소로써가 아니라 생활적인 형
상적표현으로써 다듬어야 한다.

이 서사시에서는 바로 이 문제가 시인의 원숙한
기교에 의하여 원만히 해결되고있다.

입의의 폐지를 펼쳐놓고 생활과 철학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통일되어 펼쳐지는가를 보자.

네번째 벼짓송이 따신 날-

무서운 폭풍이 풀막을 무너뜨렸다. 철옥의 마음
속에서 신념을 휘잡아흔들던 《폭풍》을 동지애의
진하고 후더운 붉은 피를 주어 조용히 잠재우고 김
정숙동지께서는 풀막앞 진대나무우에 앉으시였다.
폭풍과의 담판이라도 청해보시련듯.

헌데 폭풍에 뒤이어 더 무서운 밀림의 고독이 가
슴에 휘몰아든다. 비애와 절망과 눈물의 골짜기로
그이를 이끌어가려고...

외롭고 쓸쓸한 김정숙동지의 가슴에 동지들에 대한 못건달 그리움이 밀려들고 좌-올려오는 바람소리
 리는 분명 손을 쳐들고 달려오는 동지들의 목소리
 인양 안겨온다. 극도로 피곤해진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만 환각에 빠져 동지들을 부르며 마주 달려가
 그러안으시었던만 그것은 가지를 흔들며 스적이는
 나무들이었다. 밀림의 년대를 대표하는 아름드리
 로목과 김정숙동지의 녀의 대화가 진행된다.

《밀림이 생겨나 수수천만년
 내 여기서
 새도 짐승도 사람도 보기는 하였지만
 동무에게 피도 숨결도 다 주는
 그런 사람은 처음 보았소!...》

《고맙구나 나무야!
 허나 너도
 이것만은 알아두어야 하리

네 푸른 잎이
 땀별에 탈탈 말라들 때
 너는 시원한 비가 그리울테지

한겨울의 모진 추위가
 네 몸을 땡땡 얼굴 때는
 따사로운 해빛이 그리울테지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비나 해빛보다 더 그림고 소중한
 사랑과 믿음의 세계가 있단다

그것을 안고살면
 그 어떤 절해도고에서 살아도
 외로움도 두려움도 다 잊거니

날알 하나 없는 이 밀림속에서
 나와 철옥이 숨쉬며 사는것도
 바로 그 사랑과 믿음이 있기때문

이런 밀림의 바다에서
 조선의 아들딸들이 장군님을 모시고
 빼앗긴 나라 찾아 헤쳐가는 힘도
 바로 그 사랑과 믿음이 있기때문

그렇다 나무야 그것이 없다면
 나는 벌써 밀림의 고독에 숨막혀
 너의 그늘 밑에서
 한줌의 흙이 되고말았으리...》

-제2장에서-

이 말씀에 로목은 와스스 가슴의 흥분을 터치며
 동지의 사랑이 그렇게 뜨거웠기이라면 나도 벗이
 되고싶다고 목메어 웨친다.

김정숙동지께서 사위를 둘러보니 밀림의 세계도

벗이 되어 서있는 동지의 세계이다. 하늘 향해 미끈
 히 선 이깔나무들은 풀막을 지키는 초병이 되어 총
 창을 비껴든듯, 정답게 몸매를 흔드는 봇나무들은
 하늘가 멀리 전우들의 소식을 전해주는듯... 밀림도
 동지의 세계로 거느리시는 김정숙동지의 꿈과 랑
 만속에서는 고독도 한갓 행군길의 한 설참에 불과
 하였다.

여기에 철학이 있는가? 더 말해 무엇할것인가!
 여기에 생활이 있는가? 있다. 생활 그대로이다.

만일 시인이 이 대목에서 못건달 고독과 싸우시
 는 김정숙동지의 심정을 내면독백형식의 직선적인
 주정토로로만 펼쳐보였다면 이처럼 큰 감동을 줄수
 없었을것이다. 시인은 이 대목에서 대담하게 랑만
 주의적의 조건적형상수법을 도입하여 의인화된 로
 목과의 생생한 교감을 실현하고 그와의 생활적교제
 속에서 동지애의 철학을 펼쳐나감으로써 생활도 있
 고 철학도 있는 기름진 형상을 창조할수 있었다.

이러한 창조적경험은 열다섯번째 버섯송이를 따
 신 날의 인상깊은 생활묘사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서사시에는 이외에도 심오한 철학을 안고있는 감
 동적인 서정토로들이 많다. 그러나 그것들은 어느
 것 하나 추상적인 논리적호소로 엮어진것이 없다.
 인상깊은 생활묘사를 바탕에 깔고 참으로 주정을
 터치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는 적중한 계기를 선택
 함과 동시에 생동한 표상을 주는 비유적표현에 담
 아 서정이 토로되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형상적비유의 미학적기능은 추
 상-논리적인 개념을 감성적인 형상으로 전환시켜
 구체화하는데 있다. 때문에 시인이 발견해낸 생활
 진리를 논리적사유의 과정이 직선적으로 드러나는
 개념적서술로 제시하는것이 아니라 형상적비유에
 담아 생동한 표상으로 전환시켜 그려줄 때 그 서정
 토로는 철학과 생활이 통일된 감명깊은것으로 될수
 있다.

드디어 스물아홉번째 마지막 버섯송이를 따고 장
 군님과 약속하신 그자리에서 감격적인 상봉이 이루
 어졌을 때, 장군님품을 찾아 떠나는 대오의 앞장에
 서신 김정숙동지의 발자욱소리가 땅의 지맥, 수림
 의 년륜, 철옥의 가슴에 깊이깊이 새겨지는데 사색
 깊은 시인의 목메인 주정토로가 시작된다.

동지란 얼마나 귀중한것인가
 한점의 불꽃에서 불길이 인다고
 그렇게만 알고있지 말자
 불꽃도 흩어지면 재만 남으리

동지란 얼마나 그리운것인가
 물방울이 모여모여 바다된다고
 그렇게만 믿고있지 말자
 물방울도 방울로 남으면 마르고말리

동지란 얼마나 힘있는것인가
 함께 걸으면
 넓은 길이 열리지만

혼자 가는 자옥에선 풀이 돌아나리
-제6장에서-

이렇게 시인은 생활철학을 노래한다.

이리하여 서사시의 그 어느 요소에도 추상적인
호소나 속빈 미사려구는 찾아볼수 없다. 철학은 생
활의 웨침으로 안겨온다. 또 서사시의 기본특성인
서사성과 서정성의 결합은 자연스럽게 실현된다.

4

혁명이 승리하는 길도
동지의 사랑에서 시작을 보시고
동지의 믿음에서 그 끝을 안으시는
김정숙동지!

그 자애로움
그 너그러움
그 따사로움
그 인품과 매력 앞에
따르지 않는 이름
가꾸어지지 않는 랑심이 있었던가
-제6장에서-

이 서사시는 지성세계가 높은 작품이다. 서사시
의 매 폐지들에서 시인의 높은 지성이 보석처럼 빛
을 뿌리며 독자들을 생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상
한 미의 세계으로 이끌어준다.

충신중의 충신이신 위인의 형상을 창조하는 혁명
적작품은 마땅히 위인의 품격과 지성에 어울리는
높은 지성도를 가져야 한다. 그러자면 시인 자신이
한없이 위대하고 숭엄한 위인의 정신적높이에 올라
생활의 모든 세부로부터 거창한 역사의 전반흐름
에 이르기까지 높은 이성적안목으로 투시해볼줄 알
아야 한다.

이것은 쉽지 않다. 때문에 지성적으로 저조한 작
가가 감히 위인의 생활을 그린 큰 작품을 쓰려고
접어드는것은 오히려 위인의 풍모에 손상을 주는
경솔한 소행으로 되는것이다.

김정숙동지와 같은 위인의 형상을 손색없이 창
조해야 할 엄청난 과제앞에서 지성과 철학적사색의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피타는 탐구와 열정을 기울
인 시인의 모태김을 우리는 력력히 헤아려볼수 있
다.

이 서사시의 높은 지성세계는 무엇보다도 생활표
사의 어느 대목에서나 작가에 의하여 새롭게 발견
된 생활철학과 아름답고 고상한 미의 세계가 펼쳐
지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이 서사시에는 수십편의 《서정시》가 있다. 많
은 대목, 많은 세부묘사에는 그자체로서 한편의 서
정시를 뽑아낼수 있는 독특한 철학적발견이 있고
예민한 미적체감이 있다.

제2장 2절 김정숙동지께서 시내물에 철옥의 머
리태를 감아 열레빗으로 빗어주시는 장면은 그 대

표적실례의 하나로 된다.

치렁치렁 머리채에 열레빗 오르내린다
동지들의 단정한 자세를
장군님께 보이고싶어 간직하신
정숙동지의 마음의 열레빗

철옥의 머리채에 윤을 내며
고운 물방울이 떨어진다
믿음과 믿음으로 이어지는
두 마음을 비껴담고
구슬구슬 반짝이는 물방울의 속삭임

내물에 머리감는 생활과 열레빗이라는 자그마한
세부속에서도 시인은 수령에 대한 고결한 충실성을
도덕화, 생활화하고 동지적 사랑과 의리를 최상의
높이에서 체현하고있는 충신의 정신도덕적미를 뜻
깊게 밝혀주는 하나의 심원한 철학과 미의 세계를
발견하고있는것이다.

이처럼 지성에 넘치는 시인의 눈앞에서는 그 어
떤 생활에서나 새로운 철학이 흘러나오고 자주적인
간의 정신미가 아름답게 천명된다.

어찌 이뿐이라, 짙막한 자연묘사의 한구절을 더
보기로 하자.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두고 김정숙동
지의 모습을 느끼는 철옥의 시점에 시인의 남다른
지성세계가 비끼고있다.

여기서 시인이 발견한 철학과 미의 세계는 고요
와 별의 관계에 있다.

고요에 실려 황황히 빛을 뿌리고
고요에 부딪쳐 늦쇠소리를 울리고
고요에 감싸여 따스한 온열을 뿜는
별들을 보며 철옥이 정숙동지를 그려보니
별은 그대로 정숙동지의 모습
정숙동지는 그대로 저 빛나는 별!

단순한 자연묘사가 아니다. 시인의 섬세하고 예
민한 시적감각과 세련된 시적표현력을 보여줌과 동
시에 여기에는 말로는 다 이름할수 없는 철학적사
색과 미적감각이 깃들어있다. 별은 고요와만 어울
린다. 고요... 말그대로 아무 소리없는것이 동지에
게 바치는 지극한 사랑과 정성, 헌신의 미덕에 가장
어울리는것이다. 하지만 별은 그 고요에 실려 황황
히 빛을 뿌리고 그 고요에 부딪쳐 쟁쟁히 늦쇠소리
를 울리고 그 고요에 감싸여 따스히 온열을 내뿜는
다. 별의 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 별에 상징된 김정숙동지의 최고의 인간미는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런 요란한 청송도 바람이 없
이 오로지 묵묵히 조국과 동지를 위해서만 살며 불
타는 그 고도의 순결성과 철저성에 있다.

이 서사시의 높은 지성세계는 또한 작품의 요소
요소에 깊고 풍부한 인식적내용을 담은것과 동시에
인물들의 리지적성격을 깊이 파고드는데서 나타나
고있다.

시인은 생활과 역사, 철학에 대한 폭넓고 깊은 연구에 기초하여 여러곳에서 사랑과 동지의 의미를 두고 풍부한 지성적사색이 동반된 서정토로를 주고 있다.

여기서 시인은 자기 자신이 직접 얼굴을 드러내기보다 리지적인 등장인물의 내면세계에 굴절시켜 그의 체험과 사색의 세계를 개방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작품의 지성적면모를 손색없이 과시하고있다.

김정숙동지의 동지애앞에 깊이 감동된 《인술의 원》의사의 시점에서 지상의 모든 사랑과 대비하여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가장 고귀하고 진정한 사랑인 동지애와 그 사랑의 원샘인 절세의 위인 **김일성** 장군님의 품을 격조높이 레찬한 대목은 시인의 높은 기성적안목을 잘 보여준다.

×

서사시 《동지》는 주체사실주의문학이 이룩한

귀중한 열매의 하나로서 우리 인민을 항일의 녀성 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지니신 한없이 고매한 충실성과 동지애의 정신으로 교양함으로써 수령을 중심으로한 사회정치적생명체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시인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영광과 행복은 없다. 시인이 노래부른것처럼 위대한 수령님을 단결의 중심으로 만들어온 무적의 혁명대오의 흐름속에는 김정숙동지께서 키우시고 빛내여주신 충성의 별들이 그 얼마였던가. 그 별들이 오늘은 우리 혁명위업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을 옹위하여 충성의 별무리를 이루고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모두를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정신으로 무장시켜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묶어세우시며 대오의 앞장에서 걸어가고계신다. 그 영원한 충성의 대오속에서 서사시 《동지》의 구절구절은 힘찬 행진곡이 되여 대를 두고 울려갈것이다.

행복한 밤에

서진명

이밤도 로앞에 선듯
열어젖힌 창너머로
가스발생로동음소리 쉽없이 울려와
설레는 가슴 진정 못하는가

불밝은 작업반선전실
책상을 마주하고 앉으니
더욱 간절한 경애하는 그이생각
스물둘 당세포당원들의 눈빛에도
뜨거이 어려있는 그리움

편지를 쓰네
경애하는 그이께
한자 또 한자
가장 뜨거운 말을 새겨가네
홍남을 그리도 자주 찾으시던
수령님의 그 영상 때없이 어려와
눈굽을 씻던 그 손으로

줄줄이 뻗어간 배관 한끝에서
폭포처럼 쏟아져내릴 비료
경애하는 그이의 기쁨을 위해
로마다 만부하를 걸어가며
땀에 젖던 그 손으로

어버이수령님의 유혼 받들어
저마다 새롭게 태어난듯
후더운 땀으로 로의 불길을 높이고
심장의 고동으로 배관의 숨결 높여온

가스발생로직장 세포당원들

은하수 비껴간 하늘가 저 멀리
깊어가는 이밤을 새날로 이으며
불빛이 끝없이 빛발칠 당중앙창가
경애하는 그이께로 마음 달리며
한자두자 충성의 편지를 써가네

더없이 행복한 시간이 흐르네
위대한 그이앞에 흥금을 터놓고
해운 일 해야 할 일에 대해
삼가 아뢰이는 이런 때는
위대한 그이앞에 몸도 마음도
가장 가까이 다가서는 때!

아, 스물둘 당원들의 심장이
하나같이 뚫어오르는 행복한 이밤
가슴속 후더운 그 숨결
불타오르는 심장의 그 뜨거움을
한자 또 한자 편지에 담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그이께서 이끄시는 우리 당을
비료로 받들어갈
충효의 아름다운 마음
그이와 운명을 함께 하는
신념의 맹세속에 깊어가는
행복한 홍남의 밤이여

중대방송을 들으며

11월 9일 낮 12시에 중대방송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것은 내가 지하철도 광복역에 들어섰을 때였다.

중대방송이 있다는 말을 듣고 보니 나의 머리에는 하염없이 비 뿌리던 7월의 그날 중대방송이 떠올라서 눈곱이 몽클 젖어드는 것이었다.

후더워오는 눈길을 드니 위대한 수령님의 숨엄한 발자취가 력력히 어려있는듯한 태고연한 백두의 수림속 눈덮인 길아닌 길들과 밀림 한가운데 거연히 자리잡은 사령부 귀를집우에서 변함없이 세찬 바람을 받으며 펄펄 휘날리는 붉은 기발이 나의 눈에 확 안겨오는 것이었다.

우리 인민앞에 행복만을 안겨 주시려 한평생 후식도 없이 멀고 험한 길을 쉬임없이 걸으시다 떠나가신 수령님! 인민들에게 복된 삶의 길, 영광의 길만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아낌없는 로고를 바쳐오신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나의 가슴은 금시 미여지는 듯하였다.

그러면서 녀덜후인 오늘때 중대방송이 있다고 하니 또다시 가슴이 후두둑 뛰는 것이었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7월의 중대방송은 그야말로 온 천지를 뒤흔들고도 남을 크나큰 슬픔과 거대한 손실의 대명사로 사람들의 심장과 뇌리에 세월이 가도 아물지 않을 아픈 상처로 자리잡았다.

혼자 생각에 골똘해있던 나는 옆에서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에 눈길을 돌렸다. 할머니 한분이 한손을 왼쪽가슴에 대고 근심에 싸인 목소리로 묻고있었다.

《무슨 일일가, 체네?》

그제서야 나는 전동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속에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앞쪽에서 제대군인차림의 젊은 남자가 누구에게라없이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정세가 또 긴장해진게 아닐가요?》

《글쎄 김영삼괴뢰역도가 무슨 궁공이를 하는지 알게 뭐요.》

서로 다른 소리들이 연방 웨치듯 말한다.

《닭쫓던 개 울쳐다보는격으로 가련하게 됐으니 무슨 일인들 못하겠소?》

사람들은 격분에 차서 저저마다 한마디씩 던지였다. 어떤 중대방송일가?

《12시까지 몇분 남았소?》

사람들은 시간을 물어보며 시계를 들여다보며 조바심을 안고 조용히 귀를 기울이였다.

나도 그들의 감흥속에 인차 휘말려들었다.

사람들의 흥분된 심정을 복돋아주듯 전동차가 붐- 기적소리를 앞세우고 들어서자 모두들 올라탔다.

전동차의 고르로운 동음을 들으며 조용히 귀기울이는데 모두의 기대와 관심 속에 중대방송이 터져나왔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051호

평양시에 청류다리(2단계)와 금룡2동굴을 건설할데 대하여...》

명령이었다. 녀덜전의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고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창조와 건설의 무기를 높이 추켜들고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혁명의 수도 평양을 더욱 아름답고 현대적으로 꾸리며 행복한 인민의 생활을 보다 행복하게 꾸려나갈데 대한것을 명령으로 내리시였다. 우리들이 상상하던것과는 너무도 뜻밖의 충격이었다.

어찌먼 인민들의 교통상 권리를 위한 다리건설과 동굴건설을 최고사령관명령으로 하달하시는가? 나는 저도 모르게 흥분되어 두손을 모아전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누구보다 큰 슬픔을 안으시고도 혁명의 진두에 꿋꿋이 서시여 자신보다 먼저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고 인민은 위해서는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청류다리2단계공사와 금룡2동굴을 건설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그 순간 나에게는 혁명이란 목적에 있어서 인민에 대한 사랑을 꽃피우는것이라고, 다시말하여 인민에 대한 참된 사랑을 위하여 혁명이 필요한것이며 우리가 혁

조봉금

명하는 목적도 인민들에게 최상의 인격과 최대의 행복을 안겨주는데 있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말씀이 뚜렷이 떠올랐다. 그러면서 얼마전 신문에서 읽은 서술에서의 성수대교붕괴사고내용이 주마등처럼 안겨오는 것이였다.

아침출근시간에 긴다리 50미터구간이 몽청 무너져내려 술한 자동차들과 버스들이 곤두박히고 사람들이 무리로 죽은 성수대교.

김영삼역도의 반인민적정책으로 말미암아 한쪽에서는 있던 다리마저도 무너지고있을 때 우리의 수도 평양에서는 청류다리1단계공사가 끝난데 뒤이어 《청류다리2단계》 공사를 《금룡2동굴》과 함께 또 시작하려 하지 않는가. 생각만해도 가슴벅차오른다.

나의 눈앞에는 한번도 보지 못한 두 건설물들의 모습이 상상화로 그려졌다. 청류다리는 칠색명룡한 무지개로, 《금룡2동굴》은 옛이야기속의 황홀한 동굴처럼 안겨왔다. 그속으로, 그 위로 환희에 넘쳐 나래돌쳐 들어가고 나오고 걷고걸는 우리 인민의 행복상이 눈부신 화쪽으로 펼쳐지고 펼쳐졌다. 멀지 않은 앞날에 우리는 행복에서 더 큰 행복으로 쉽게 가게 하는 사랑의 지름길을 걷게 될것이다.

나는 전동차에서 내렸다. 영광역이었다. 흥분으로 들먹이는 나의 가슴처럼 벽화의 대동강이며 버드나무들도 일제히 좌-좌-설레이는듯했다. 천정에 장식한 축포줄기며 불꽃들이 금시 광광소리치며 치달아오르고 마음부푼 나의 머리우에, 긍지높은 우리 인민에게 축복의 꽃보라되어 떨어져내리는것 같았다.

오늘의 중대방송! 그것은 그대로 우리 인민들에게 있어서 기쁨이 오는 소리, 영광이 오는 소리였으며 우리 인민 한사람, 한사람의 가치와 존엄이 더더욱 커지는 소리였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체도가 세상에 제일 좋은 나라임을 알리는 소리였다.

나의 심장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감사의 정으로 하여 끝없이 끝없이 끓어올랐다.

나라의 하고많은 중요한 일들
중에서 인민의 행복을 마련하는
사업을 첫자리에 놓으시고 그 대
책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는 어
버이장군님!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밀림
에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
을 빛나게 이어 받으시고 수령님
과 똑같이 인민을 위한 정치를

펴나가시는 우리의 **김정일** 동지!
정녕 우리 인민은 어느 시인이
노래한것처럼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자애로운 그 영상을 우러
르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며
행복을 보내주시는 대원수님의
인자하신 영상을 뵈고있는것이
아닌가.

지하철도를 나서며 나는 다시

금 확신하였다. 오늘의 중대방송
은 우리의 **김정일** 동지께서 계시
는 한 세상 그누구도 우리를 건
드리지 못하며 인민의 행복은 날
마다 시간마다 꽃피여난다는것
을 다시한번 온 천하에 알린 방
송이라고.

탄부의 시간 외 1편

김정호

새날을 기다린 마음
발걸음에 앞서누나
상쾌한 탄전의 바람마저
등을 떠미는 아침이다

간다
막장으로 탄부들이 간다
질은 속눈썹에도
엄숙한 표정이 비낀 갱장아바이
다시금 팔목시계를 보고
바쁘다 열띤 젊은 친구들
앞서거니 뒤서거니 걸음발에
불이 인다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유훈을
안은
탄부의 시간

서둘러 위훈을 마중가는
뜨거운 시간

뛰는 피방울도
재촉한다
마주치는 눈빛에
불타는 약속이 오간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
심장에서 심장으로 흘러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앞에
자각한 탄부의 량심이
불바람을 터친 시간이어

살아계실 때
기쁨을 못다 드린
그 아픈 마음

그 죄스런 가책
초침에 감고감아
시간도 숨가쁘게 따르거니

앞당기라 기쁨의 시간
폭포쳐내리는 검은금으로
저탄장 하늘가에 산을 쌓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 아뢰일
기쁨의 그 시간
탄부들은 심장에 만태엽을
감았거니

간다
막장으로 탄부들이 간다
이 아침 높뛰는 심장의 박동을
억센 손으로 짚어보며
말없이 짚어보며...

그 아버지에 그 아들들

언뜻 보기엔 그 모습 수수한
공훈탄부아바이
출근길이 들쭉하게 웃고 떠들며
불끈 힘이 솟는 팔들을 내저을
때면
아들 다섯 누굴 봐도 하나같은
끝끝한 탄부일가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버지에 그 아들들이라고
말하더라

때로 집에선
아바이 잔소리할 때 있어도
막장에 들어서면
그 크고 시원한 눈에 웃음을
흐르더라
스스로 제자리에서 할일을
다하는 아들들앞에

일욕심 아버지를 닮은 다섯형제
누구하나 기울지 않더라

탄발에 때아닌 자연굴이
나타나면
밤이 열이래도 버럭으로 메꾸고
봉락이 사래쳐 쏟아질 때면
겹쌓이는 어깨성
드림없는 성벽이더라

때로
더 캐내지 못한 석탄을 두고
아바이 잠못드는 그런 밤이면
밤새 뒤적거리는 다섯형제
마음 편했던가
창문이 희뵈히 밝을 때까지

잊지 못할 그해 그 봄이
아니였던가
막장에 찾아오신
우리의 **김정일** 동지
걸음을 멈추시고
끝끝한 다섯형제 하나같이
둘러보시며

밝은 웃음속에 정깊은 말씀
그 아버지에 그 아들들이라고

아 그 아버지에 그 아들들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그이 사랑의 말씀
대대로 지하막장을 받들어
어깨로 떠받들어
조국의 창창한 미래를 부르며
앞서간다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믿음
빛나는 표창

세월이 흘러도
어머니조국은 기억하리라
그들이 캐낸 석탄산만이 아닌
불보다 뜨거운 심장
혁명의 운명과 호흡을 같이한 그
심장들을!

봄맞이풍경

조상호

아직은 봄이 아니었다.

길가의 가로수마다 서리꽃이 하얀 추운 2월이었다. 눈이불을 쓰고누운 대지도 잠에서 깨지 못했고 길옆 내가의 버들개지도 기를 펴지 못한채 눈보라에 시달리우며 봄을 기다리고있었다.

나는 차에서 내리자바람으로 솜옷깃을 올린채 취재가방을 옆에 끼고 추위에 쫓기듯 걸음을 다그쳤다. 금천협동농장으로 가는 길이었다. 인차 사람들을 만나보고 오후에는 돌아서야 했다.

그러나 관리위원회 앞마당에 들어선 나는 그만 자기도 모르게 우뚝 서버리고말았다. 하얀 눈모자를 쓴채 나지막한 산기슭에 그림처럼 웅크리고앉은 관리위원회가 별로 조용했기때문이었다. 관리위원회 앞 양지쪽에서 해바라기를 하던 누런 강아지 한마리가 인기척에 놀라 힐끗 올려다보더니 어슬렁어슬렁 어디론가 가버렸다.

(쉬는날도 아닌데 모두 어디로 갔을까?)

떡집이 풀리는것을 느끼며 이방저방 열어보았으나 주인없는 책상들만이 빈방을 지키고있었다. <회계실>이라는 표지를 이마에 건 방에서만 스무나문살 된직한 오목논의 처녀가 책상우에 장부책을 펼쳐놓고 전자수산기를 열심히 두드리고있었다.

나는 허구쁜 미소를 지으며 처녀앞에 마주앉았다.

《수고합니다. 가는날이 장날이라더니 내가 헛걸음을 한것 같군요.》

방긋 웃으며 마주 인사하던 처녀의 동실한 얼굴에 갑자기 의아한 표정이 떠올랐다.

《왜 그러십니까?》

《모든 사무실들이 다 비어있길래...》

《예에-》

처녀는 그제야 알겠다는듯 말꼬리를 길게 끌며 생긋 웃었다.

《모두 작업반들에 나갔답니다.》

《그래요? 허허, 그런걸 난 또...》

나는 억측했던것이 어이없어

떨떨 웃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누굴 만나시려고?...》

《관리위원장동무를 만나려고 그러요. 없으면 리당비서동무라도... 계시겠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처녀가 수화기를 들었다. 교환수를 찾아 몇마디 이야기를 나누더니 나를 돌아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어쩌나... 관리위원장동진 조금전까지 3반포전에 계셨는데 방금 4반 앞동포전 거름내는데로 가신다고 했대요. 그리고 리당비서아바인 8반 흙갈이장에 나가계신대요.》

《앞동포전이 여기서 머요?》

《저 벌끝인데 시오리 잘된답니다. 8반은 이쪽 끝이구요.》

나는 그만 아연해졌다. 처녀가 가리키는곳을 보면 두사람은 지북침처럼 농장의 남북 양끝에 가있는 셈이다. 나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막연한 기대가 어린 어조로 물었다.

《점심엔 들어오실가?》

《글쎄요. 안들어오실적이 더 많아요. 늘 점심을 싸들고 나가시는데요. 어버이수령님을 잃은 그때부터 노상 들에서 사신답니다. 총화도 들에서 짓고... 관리위원장동지나 비서아바인 들에 가야 만합니다.》

갑자기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나는 수화기를 드는 처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장부책을 펼쳐놓고 오동통한 손끝으로 깨알같은 수자를 짚어가며 알려주는 처녀를 이윽도록 쳐다보다가 나도 모르게 그가 한 말을 조용히 외워보았다.

《수령님을 잃은 그때부터... 들에서 만납니다.》

순간 가슴이 쩡 하더니 코허리가 매워올랐다.

평범하게 지나가는 말처럼 자연스럽게 한 말이어서 더더욱 가슴을 울려주는것인지도 모른다.

어버이수령님을 잃은 크나큰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만

들어나가는 이곳 일군들의 모습이 눈부리 뜨겁게 그려졌다.

《들에 가야 만합니다.》

다시금 그 말뜻을 되새기느라니 여기 오기전 온천군의 어느 농장별을 찾아갔던 일이 불쑥 떠올랐다.

그날 키가 큰 그 관리위원장은 흙갈이를 하던 실참에 삽자루를 깔고앉은 농장원들앞에서 어버이수령님을 바라거친 들에 모셨던 일을 가슴아프게 돌이켜보며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만은 절대로 이런 험한 들길을 걸으시지 않도록 하자고 절절하게 이야기하고있었다.

그의 모습과 나란히 떠오르는 또하나의 얼굴이 있다. 눈보라 세차게 불어대는 들에서 랭상모관 방풍나래를 칠 기둥을 박으며 그 어떤 모진 광풍이 불어와도 끄떡없이 우리 당만을 받들어나가자고 사람들을 일깨워주던 젊은 리당비서의 모습이였다.

어찌하여 이 시각 그들의 모습이 이처럼 불쑥 떠올랐는지 모른다.

아마도 이곳 일군들도 그들처럼 언제나 농장원들속에서 살며 수령님의 유훈관철에로 불려일으키고있다는것을 확신했기때문 이리라.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들고 언제나 대중속에 들어가 살면서 우리 당을 따르는 길로 그들과 어깨결고 역세게 나아가는 우리의 미더운 일군들...

그렇다.

처녀의 그 한마디 말속에서 나는 이곳 농장 관리위원장이나 리당비서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어버이수령님의 생전의 뜻대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더욱 높이 받들어나가는 우리 시대 일군들의 드팀없는 의지와 신념의 웨침을 들었던것이다.

정녕 그것은 얼마나 뜨겁고 억센것인가.

우리 수령님께서 생전에 늘 쌓 일군들은 군중속에 들어가 현실에 침투하는것을 모든 사업의 철칙으로 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었다.

언제나 군중속에 들어가 살면서 그들을 배워주고 그들에게서 배우며 그들을 불러일으켜 혁명의 난국을 헤쳐나가는것, 이것은 바로 우리 수령님께서 혁명의 뜻을 올리시던 그때 벌써 사업의 철칙으로 삼으시었던 위력한 사업방법, 수령님식사업방법이다. 이 사업방법이야말로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놓았으며 가장 락후했던 우리 나라를 세상에서 제일 존엄높은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운 무궁무진한 힘을 탄생시킨 위대한 사업방법이다.

바로 이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심장에 새겨안은 우리의 지휘일군들이 배낭을 지고 군중속에 들어가 살면서 수령님의 유훈관철에로 그들을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는것이다.

그런데 나는 지금 어디로 왔는가?

나는 얼굴의 뜨거웠다. 가방을 움켜쥐며 자리에서 움쭉 일어섰다.

가자, 들로 나가자. 어버이수령님의 생전의 뜻대로 우리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어떻게 받들어나가는가를 나의 눈으로 확인하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도 있지 않는가!

《고맙소, 처녀동무, 내가 들로 찾아가겠소.》

나는 관리위원회를 나섰다. 차디찬 바람이 눈가루를 몰아왔으나 나에게는 조금도 춥게 느껴지지 않았다. 하여 쟁쟁 활개를 지으며 걸었다. 저앞에 눈덮인 들판이 보인다.

그러니 그 들판에는 지금 오색기가 힘있게 나뭇기고있다. 김이 문문 나는 거름을 듬뿍듬뿍 실은 트랙터들이 밭동소리 높이 울리며 줄을 지어 들판으로 달려나간다. 길옆 포진들에서는 방풍나래를 치는 농장원들의 웃음소리가 명랑하다. 잘 익은 두엄을 푹푹 떠올리며 절절 웃는 농장원들의 얼굴도 보인다. 저 멀리 흙을 파내는곳에서는 볼도젤이며 트랙터, 사람들이 와글와글 끓고있다. 노래소리가 들려온다.

방송차에서 울리는 격동적인 방송원의 목소리가 온 들판에 메아리친다.

사무실이 조용한 대신 온 들판이 부글부글 끓고있었다.

나는 가슴이 한껏 부풀어올랐다.

아- 이것이 바로 우리 수령님과 **김정일** 동지를 받드는 농촌의

봄맞이풍경, 우리 조국의 참모습이 아니겠는가?

나의 걸음은 점점 빨라졌다. 쌀로 먼저 공산주의를 건설하자시던 수령님의 유훈대로 올해에도 기어이 만풍년을 이룩하여 우리의 **김정일** 동지께 기쁨을 드리려는 농장원들과 일군들의 뜨거운 숨결이 눈덮인 이 들판에 봄을 불러오는것이 아니랴.

이들은 이렇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이 땅우에 꽃피울것이다. 우리 인민은 이렇게 공산주의 봄언덕에 남먼저 올라설것이다.

그렇다. 눈속에서도 봄은 오고 있었다.

저멀리 온천벌에서도 분계연선 연백벌에서도 나라의 복단왕재산협동농장에서조차 아니 오늘 우리 나라 그 어느벌에 가나 풍년봄을 맞이해가는 활기에 찬 모습을 보게 되리라.

봄을 먼저 맞으며 서두르는 사람들속으로 힘있게 걸어가는 나의 심장을 두드리며 처녀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들에 가야 만납니다.》

《들에 가야 만합니다.》

즐거운 밤길

조창선

자전거를 타고 몇십리
군에 갔다온 피로도 잊고
그대는 또다시 밤길을 떠나는구나
고개 넘어 령 넘어 먼 작업반으로
기빠서 경사로위 걸음 재우치며

산모의 건강이야 좋을테지
세쌍둥이의 모습
얼마나 귀여우랴 대견스러우랴
오늘 평양산원에서 돌아왔다는
작업반의 한 농장원가정을 찾아

마치 딸의 집을 찾아가듯
마치 며느리의 집을 찾아가듯
친부모의 마음으로
그대 리당비서 이런 밤길
자주 걸었지 많이도 걸었지

해종일 숨막히는 무더위에
강냉이밭 이랑이랑에 땀방울 떨구며
농장원들과 승벽내기로 김을 매며

구수한 이야기로 당정책을 해설한 그날에도
그대는 이런 밤길을 걸었다

축사에 들리어 돼지마리수를 세어가며
늘어날 농장살림을 생각해보았고
학교에 들리어 갖추어줄 악기를 알아보며
조국의 미래를 그려본 그날에도
그대는 이런 밤길을 걸었다

말형이 되어 친누이가 되어
한 일군의 잘못을 깊이 깨우쳐준 그밤에도
밤새워 논같이할 운전수를 찾아
밤참보자기 들고가는 밤길도
그대는 얼마나 행복에 겨워 걸었던가

아, 경애하는 그이 당사업방법대로
정으로 밀어주고 사랑으로 이끌어주니
생각대로 일이 잘되어가는 그 재미에
걸고걸어도 힘이 솟는 밤길
걸고걸어도 즐거운 밤길

딸에게 주는 시

박웅전

처음 바란것은

실버들 춤추는 봄날의 거리로
안해여
재봉공 우리 딸이
춤추듯 걸어가고

미풍에 날리는 연분홍옷자락
부드러운 어깨우에 물결치는
굽실머리
어여쁜 그 얼굴처럼
몸맵시 또한 얼마나 아릿답소
어쩌면 처녀시절 당신같구려

마주오는 사람마다
기쁜 눈매, 부러운 눈길
끝끝한 젊은이들

두세번씩 쳐다보오

아마도 손끝이 여물게
새옷을 잘 짓는
저애의 일습씨 소문나
더 쳐다보는것인지

생각하면
신비스럽기도 하오
정녕 저애는 당신과 내가
당의 햇빛아래 이 땅에 피워놓은
한송이의 고운 꽃

꽃다운 그 나이와 함께
청춘을 빛내갈

저애의 마음씨 나날이 영글고
저애 만든 고운옷
거리에 넘쳐날수록
우리의 소원도 커가는구려

바라건대 안해여
키워준 당의 은혜 값는 길에서
한생 힘이 되고 의지가 될
그런 젊은이가 나타났으면

어머니당에 기쁨드릴
충성의 열매
한생토록 의 좋게 가꿀줄 아는
그런 성실한 젊은이에게
아, 귀한 딸 맡길수 있었으면...

아버지의 기쁨

등근달이 솟은 강변을 늦도록
거닐며
마음껏 사랑을 속삭이었고
주고받은 애뜻한 편지라도
있어서
잠못 이룬 그런 밤들이 있었다면
내 너를 두고
이다지도 마음쓰지 않았으리

두툼한 혁명소설들의
갈피갈피에
뜨거운 눈물을 떨구며 지새던
그밤들에 남몰래 피어났는가
어려서부터 남을 도울줄 아는
그 착한 마음씨는 칭찬해왔건만
아버지도 대신해줄수 없는
구만리같은 너의 한생길을 두고
아버지도 결심하기 어려웠던것

미처 몰랐구나
살구꽃 피어나던 그 봄날의

출근길에서
나도 경애하는 그이만을 따르는
청년전위임을 믿어달라던
그 정찬 목소리를 들을 때도

미처 몰랐구나
조국 위해 청춘을 바친
영예군인의 그 불편한 걸음씨를
두고
너의 사랑 불길처럼 타고를줄은
스물세해 소중히 키워온 사랑
아낌없이 바쳐줄줄을

헛키우지 않았구나
선생님들이
사로청의 실효모임들이

텔레비죤속소설들이
공연한 걱정도 하였구나
노래부르긴 쉬워도
노래처럼 살기는 힘들게라고

고맙구나
미풍선구자들을 따르고
꽃피우라
공장과 농촌 그 어디서나 하던
아버지의 연설도 남먼저 지켜준
사랑하는 내 딸아

기쁘구나
당을 따르는 너희들
그 소중한 마음을 아시면
우리의 **김정일** 동지께서
기특해하실 생각에

너희들 새 세대들이
사회주의조국을 대를 이어
끝까지
지키고 꽃피우리란 생각에
아, 내 이제 눈을 감는다해도
기꺼이 마음놓을수 있겠구나

꽃피워다오

좋은날 좋은 혼처에
딸들을 시집보내며
기뻐한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으랴만
오늘의 내 기쁨에 비길수

있다더냐
위대한 스승의 술하에서
젊은 시절부터 당사업을
해왔건만

한번도 마련하지 못한 그 기쁨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드리었구나

조국 위해 피흘린 영예군인을
사위로 애인으로 삼는것은
이 나라 아버지와 딸들의
너무도 응당한 도리이건만

우리의 **김정일** 동지께서
너와 나 우리 가정에
뜨거운 감사를 보내주시었으니
이보다 더 큰 영광 또 어디
있겠느냐

삼륜차 몰아가고

지팡이 받들어가고
그 길에 눈비내리고
진창길 나서도
웃으며 가다오
노래하며 가다오
칭찬받으며 가다오

꽃피워다오
정성 다 바쳐 한몸다 바쳐
자애로운 어버이의 축복을 받은
그 사랑을

조국 위해 바친 다리를
뜨거운 사랑으로 이어주면
병사의 걸음 정보로 내밀고
또다시 위훈의 언덕으로
나래쳐오르지 않으랴

아, 그날에
붉게붉게 피워놓은
그 향기질은 꽃밭에서
너희들 백발이 나란히 웃을 때
사랑의 해빛아래
인생의 꽃향기는 영원하리라

그 밝은 웃음이 외 1편

박근원

많이도 변했구나
고향이며
우뚱우뚱 일어난 층높은
살림집들
쭉쭉 뻗어간 네거리

한시바삐 만나고싶구나
그리운 사람들
내 대학으로 떠나던 날
공부를 잘하여 훌륭한 일군이
되라고
거듭 당부하던
군을 잘 꾸려 신문에도 크게 난
군당책임비서의 그 억센 손도
다시 잡아보고싶구나

믿음어린 눈길로

웃으며 나를 배려주던
정다운 고향사람들앞에
마음도 외모도 깨끗이 서고싶어
내 발걸음 이끌렀는가
자그마한 구두수리소도
스쳐지나지 못하겠구나

그런데 이제 누군가
구두수리소의 작은 문으로
밝은 미소를 뿌리는 너인
내 대학으로 떠나던 날
책이며 도중식사머를 싸들고
배려주던

인사말도 채 맺지 못하고
반갑게 두손을 마주잡을 때
티없이 맑은 그 미소가

몽클 이 가슴 적서주느냐

인민을 위한 일이면
자신도 가정도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하는 일군이
고향의 호주로 있다는 생각
가슴 뿌듯한 긍지여

아, 고향에 들어선 첫순간에
무엇을 위해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한생의 길을 깨우쳐주는구나
층높이 솟은 집집을 떠받들고
초석처럼 자리잡은 구두수리소
그 작은 창문의 밝은 웃음이

생에 대한 생각

나이들수록
후회는 가는 인생에 채찍질하고
그때문에 자다가도
문득 소스라쳐 깨게 되는 때면

나는 무엇이든 일감을 잡는다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을 때
그 많은 생의 뜻깊은 구간에
남긴 맹세가 있어서...

빛나게 살자던것이
한갓 말로만 끝날가봐
베물어지는 은혜에 목매여
가슴 젖던 그 나날이
허울같이 보일가봐...

더 하지 못한 일을 두고
몸을 아끼던 한순간을 두고
후회마저 없다면
내 어이 먼길을 끝까지 가랴

그때문에
내스스로 량심에 물어본다
그 어느 《좋은 기회》에 이름을
내고
못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독차지하려는
그런 사심은 없는지

투쟁속에서

위훈을 남겼다고
그 무엇을 바란적 있다면
아 무서워라
당이 키운 내 삶에 때가 낄것이

있지 말자
있지 말자
온갖 시련 다 이기며
천만금을 들여 나를 키운
당을 위해 티없이
한생을 빛나게 살아야 할
나는 영원히 당의
아들이라는것을!

나는 당의 3대혁명소조원이다 외 3편

아침해 산마루에 솟아오를 때도
석양빛 압록강물에 다 타버릴 때도
마음속 깊은곳에서 속삭이는 말
나는 당의 3대혁명소조원이다

그러면 이 가슴에 금시
타는듯 용접의 백광 부서지고
기계소리 지동치고
레사롭지 않아라 증기구를
저뒤에서
아침노을이 피는
나의 공장이며 노래의 공장이며

일터마다 혁신의 불을 지피는
불씨란 말이 아니던가
소조원이란 그 말은
이랑을 적시는 샘물이란 말
당이 말긴 초소에서
무겁도록 열매를 주렁지르는
단물이란 말이 아니던가
소조원이란 그 말은

그렇더라, 그것은 또 마음의
창문을 열어주는
따뜻한 봄바람이란 말
땅에 스미여 아름드리기둥을
세우는
진한 땀방울이란 말

내 만일 땅이 거칠어, 부는 바람
차거워
잠시라도 서야 할 자리를
비운다면
오, 상상도 할수 없어라, 그것은
그것은
우리 인민에게 더 주고픈
모든것을 다 안고
한밤에도 진펄길 앞장서
헤쳐가는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는
우리 당을 남들처럼 어머니라
못부르리

당은 나에게 말기였나니
소조원의 영예와 함께
더 세차게 박동쳐야 할 저
기계소리와
거리와 마을에 넘치는 비단물결
그리고 가슴마다에 더 활짝
피워야 할
생활의 꽃향기, 마음의 꽃향기
그래서 일을 해도 해도
더 하고픈 심정이며

만일 이 땅의 외진 두메

깊고깊은 막장
그 어디에 또다시 이몸이
필요하다면
나를 불러달라 당이며
개간지의 우등불이 타오르는
그곳으로
잠깨는 보화가 기다리는
그곳으로
꺼질줄 모르는 그대의 불씨되어
가리라
마를줄 모르는 그대의 단물되어
가리라

어디서나 그대의 뜻 별처럼
따르는
이 땅의 수만 소조원들중의 나는
한 아들

내 이름 정겹게 불러 여기로
보내던
그 아침처럼 그렇게 레사로이
언제나 나를 불러달라 당이며
그대의 위대한 위업
영원히 맑을 우리의 저 하늘과
영원히 풍요할 이 땅을 위해
나는 소조원이다
그대의 3대혁명소조원이다

그때 우리는 셋

창가에 석양도 꺼지고
도면우엔 땀방울이 떨어지고
부러진 새 창안프레스앞에
그때 우리는 셋

누구도 앞서간 자국이 없는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가
새 자국이 되어야 하는
땀의 수백날
탐구의 덤불길앞에
그때 우리는 셋

바람이 흔들여놓는 조명등아래
터갈린 입술
그래도 이슬처럼 반짝이던
눈동자여
피로운 마음 뒤에 감추고
서로 웃으며 밥박을 들고
전호속 병사들처럼
콩나물국 후후 불며 마시던
저녁이며

때로 실망의 무거운 안개 앞을
호리워
지친 마음 기대앞에 쓰러질 때면
우리는 보았나니 가까이
걸어오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해빛보다 밝으신 영상

봄들판을 깨우는 시내물소리듯
다정하신 그이의 음성을
들었나니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동무들은 당의 혁명전위가
아닌가고
비단으로 비단으로 어서
거리와 마을에 꽃을 피우라고

그러면 눈오는 날에도 가슴속엔
꽃이 폈더라
그러면 별없는 밤에도 마음속엔

별일 했더라.
마음은 금시 새날을 맞이하듯
작업복 툭툭 털며 일어설 때에
우리는 보았나니 안개자락
흩어지는
저창너머로
분명 새벽노을이 피는것을

아, 걸음걸음 탐구의 새 길을
열며
태양이 머리를 쓰다듬는
성공의 그 아침에 우릴 세워준
의지여
그때 우리는 정말 셋이었던가

3백이었다, 3천이었다
우리의 열정이요 용기이고
슬기이신
그이께서 가까이 계셨기에

생일날에

어머니 이 아들이
생일상을 받았습시다
불밝은 이 저녁 합숙식당 이
저녁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습니다

바빠 차려서 별로 푸짐하지
못해도
상머리엔 소조원처녀 껌어온
연분홍 초롱꽃이 왜 저리
곱습니까

흰김 서리는 생선국냄새
동무들 담근 싱싱한 나물김치
내 식성 잊지 않아 연공아바이
들고온
빨간 고추장도 한접시

내 언제나 잡고 갈
따뜻한 손들이 차린겁니다
잡으면 즐거워 잠결에도
꿈결에도
내 마음이 못놓고 사는
손들입니다

바람찬 하선장길 돌아보고
왔다고
한밤에도 내 손을 잡아줄 때엔
아늑히 온몸이 다 녹아버리는
아슬한 옥상에서 안전띠를
매여줄 땐
더없이 더없이 커만보이는
따뜻한 손들이 차린겁니다

식지 않을겁니다, 서리는 저
흰김은
한겨울에도 이 가슴에 식지
않을겁니다
내 하는 일 동무들의 자랑이
되라고
나라의 자랑이 되라고
언제나 다정히 속삭여줄 이 저녁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습니다
후더운 우정으로 고여진 생일상
이보다 푸짐한 상 어데
있겠습니까
어머니 이 아들이 큰상을
받았습니다
상중에 큰상을 받았습니다.

나의 졸업증

내 오늘도 펼쳐보노라,
대학졸업증을
고마워라 나를 키워준 대학이여
푸른 하늘이 가깝던
높은 교사, 해빛밝은 강의실
책장을 비치주며
나와 함께 밤새우던 기숙사의
불빛이여

내 키워준 슬기로
내 흘린 땀 기대우에 떨어지며
기대는 더 흥겨운 노래를
부르나니
창창한 지혜의 바다에 내 꿈을
 띄워
노를 저어주며 눈을 띄워준
대학이여, 너를 떠나온 여기서
네 소중한줄 더 잘 알겠구나
내 졸업증 쥐고 떠나온 교정이여

하지만 나는 여기서 아직 대학
1학년생
지금껏 배워온 지식
오직 당에 드릴 큰 기쁨을

위함이 아니었던가
그 기쁨 마련하며
울라야 할 봉우리는 높고
내 지금 그 기슭에 서있나니
그래서 아직 대학 1학년생

탐구의 공식을 풀던 내 푸른
만년필
어디서나 놓지 않으리라
떠오르는 해보다 먼저 출근길에
서리라
해놓은 일 없인 정든 합숙이여
날 기다려 너의 문 언제나
열려있어도
들어서지 않으리

바람을 안은 듯꼭인듯 붉은기
휘날리는
하선장 저 기증기들 숨결높은
기계들
그것은 대지에 펼친 나의 교과서
피출처럼 열기설기 배관들이
뻗어간

구내길은 나의 강의실
구리빛 이마 땀에 젖은 저 오랜
기능공들은
나의 선생님
그들의 말없는 땀이 나를
가르치리

내 그들과 함께 비단숨
뿔고뿔으리라
강물인듯 흰눈인듯 비단숨을
뿔으리라
그것으로 경애하는 그이께 기쁨
드리기전에는
말하지 않으리라
나에게 대학졸업증이 있다고

날마다 산더미처럼 비단숨이
쌓일 때
날마다 노래와 웃음이 산처럼
쌓일 때
그이께서 만족하신 그 숨을
바라보며 말하리라
나에게 대학졸업증이 있다고